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
현장 스님 구법정신
戒定慧 삼학을 닦자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5월 3일) · 주간

제1049호 2015년 6월 18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열반경〉
베푸는 것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다.
베풀 때는 자신들 돌아보지 말 것이며
베풀 상대를 가려서도 안된다.

생활 실천 · 문화 적용한 '불교적' 인성교육 필요

인성교육진흥법 7월 시행, 불교계 대책은

인성교육을 국가 정책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시행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이 오는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소 포괄적인 법이기는 하지만 인성교육이라는 특성상 불교 등 종교계의 역할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의 내용을 '예(禮), 효(孝), 정직, 책임, 배려, 존중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 을 핵심 가치로 보고 있다.(2조 2항) 그 영역은 공교육을 비롯한 공공 영역 전반에 해당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살펴야 하고 특히 정부는 관련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해 적극 보급해야 하며 전문가에게 인증 프로그램을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성 지도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부 장관 등이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명시했다.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성 교육과 종교 교육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6월 11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과 불교계의 과제' 를 주제로 개최한 포교 종책 연찬회에서 인성 교육의 필요성과 불교와의 상관관계를 역설했다.

성 교수는 "인성 교육의 지향점은 종교의 핵심 가르침과 일치하고 인성 교육이 구현하려는 공동체 모습은 종교가 꿈꾸는 이상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인간성 상실과 이로 말미암은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현대에 '종교적' 차원의 인성교육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
공공 영역서 정책적 추진
종교계 역할 높아질 전망

포교 연찬회서 방향 논의
"실생활서 적용 가능해야"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돼야 할까.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은 포교 종책 연찬회에서 보편성과 다양성, 현실성이 담보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불교를 종교라는 틀에 가두지 말고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교인성프그램은 일반 대중들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개발돼야 한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적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기획조정실장은 불교적 문화콘텐츠와 인성교육의 융합도 전략 과제로 꼽았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연등축제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와 덕목, 역량을 바탕으로 한 템플스테이 브랜드를 개발하고 무명을 밝히는 의미를 가진 연등축제를 '마음 밝힘' 의 키워드와 연결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면 충분히 대중적 어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진흥센터' 를 불교계에서 지정받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인성교육진흥센터는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포함해 프로그램 인증과 확산, 인력양성기관 지정과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불교계에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인성교육진흥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4월 발족하고 현재 교육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추진중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를 종단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6월 11일 동국대 이사장 · 총장 합동취임식에서 총장 보광 스님〈사진 왼쪽〉이 이사장 일면 스님으로부터 학교기를 넘겨받아 힘차게 흔들고 있다. 종비생 출신인 일면 스님과 보광 스님은 일심동행으로 학교발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명문사학 새 100년 시작하자"

11일,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 총장 보광 스님 취임식

불교건학 실현 · 해외교류 확대
조계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소외이웃 나눔 행보도 '눈길'

동국대가 이사장과 총장 합동 취임식을 열고 '일심동행' 을 바탕으로 학교발전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동국대는 6월 11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38대 이사장 일면 스님과 18대 총장 보광 스님 합동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원로 스님들과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호계원장 자광 스님 등 종단 교역직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일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건학이념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일면 스님은 "동국대는 1906년 불교계의 선각자들에 의해 설립된 명진학교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109년의 역사를 만들어온 명문사학" 이라며 "학교를 도약의 반석에 올려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도 오는 8월부터 본격 진행될 '비전2020' 을 밝혔다. 스님은 먼저 재정문제에 대해 발전기금 확충에 최선을 다하며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불교전문대학을 설립, 사이버 대학 개설, 일산 대학병원 발전, 구성원 처우개선 등을 밝혔다. 스님은 "오래전부터 동국대 발전을 위한 열망을 품었다. 25만 동문과 불교계,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걸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축하메시지를 비롯해 해외 유수대학 총장들의 축하말 등이 이어졌다.

진제 스님은 "이번 이사장과 총장 스님은 모두 종단 종비생 출신으로 취임한다는 의미도 지닌다"며 " '일심동행' 에 맞게 한마음으로 불교건학이념을 실현하고 동국대가 미래 100년을 발전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어느 누구보다 종단과 학교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학교를 위해 종단의 역할을 찾아내고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며 종립학교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어느 때보다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종립학교 발전에는 많은 불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끊임없는 불교계의 지원을 통해 명문사학으로 발돋움을 이끌자"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축하화환을 대신해 받은 공양미를 중구 관내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행사도 마련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학인 외국어스피치 첫 대회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10월 14일 개최… 8월 3~14일 접수

지난해 학인 스님 대상으로 처음으로 염불시연대회를 열어 큰 호평을 받았던 조계종이 교육 활성화와 불법홍포에 기여하고자 외국어스피치 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0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회 조계종 학인 외국어스피치 대회' 를 개최한다.

외국어스피치 대회는 사찰 승가대학,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의 기본교육기관 재학 학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9월 15일 오전 10시 예선전이 열리며 개인 · 단체로 나눠 진행된다. 개인은 5분 이내 설법을, 단체는 10분 이내의 토크 · 연극 · 상황극 등을 실시하게 된다. 주제는 선(禪), 불교교리와 사상, 불교문화, 사찰의 생활 등이다.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등 외국어로 PPT · 관련사진 · 음악 ·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된다.

승가대학별로 학장스님의 추천을 받은 개인 2인, 단체 1팀에 출전기회가 부여된다. 중앙승가대는 총장, 동국대는 정각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접수기간은 8월3~14일이며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종교 갈등 해결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자승 스님, 10일 이근면 인사혁신 처장 예방서 강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종교편향 이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종교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승 스님은 6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예방을 받고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의 중요성과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임에도 종교간 갈등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증오범죄법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인권을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는 국가공무원법 59조 2항을 언급한 뒤, "공무원의 권한으로 종교적 편향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개인의 종교를 직책과 연관한 종교편향으로 인해 다툼도 많았다"며 "공무원은 종교를 떠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공무원의 종교편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종교간 갈등이 해소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돌아가야 한다.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믿음과 애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믿음과 애정이 있다면 종교간 갈등도 해소될 것이다.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 청동 촛대 세트

현불샵 단독 입점 상품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Design 등록원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6월 10일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정 의장의 바쁜 시간을 구매해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는 취지로 열렸고, 불교계 지도자들은 십시일반으로 2200만원을 모금했다. 이후 정 의장은 이 성금을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했다.

국회의장이 불교계에 기부한 이유는?

정의화 의장, 11일 동행에 기금 2200만원 전달

'국회의장 초청 저녁식사' 열어
불교계 지도자들 기금 마련하고
정 의장은 불교에 성금 기부해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교회 집사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장이 6월 11일 조계종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에 2200만 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화제다.

개신교인인 정 의장이 불교계 기부재단에 성금을 기부한 이유는 지난 3월 국회 새법당 개원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국회의장의 바쁜 시간을 불우이웃을 위해 사겠다고 발언을 했고, 정 의장은 스님의 제안을 잊지 않았다.

불교계 지도자들은 6월 10일 국회 내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초청 자선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불교계 지도자들은 십시일반 금일봉을 모아 2200만원을 정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불교계 지도자들이 모은 성금을 다시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만찬 행사는 미국의 투자 귀재 워렌 버핏과의 오찬 경매처럼 자선기금으로 모아서 뜻 깊게 사용하고자 진행됐으며 정 의장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금을 전달했다.

한편, 만찬 행사에 국회에서는 정 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주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임수경 의원, 김성동 의장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등이 함께 했다.

신성민 기자

지홍·호성·돈관 스님 등 동대 이사 추천

조계종 종관위 11일 회의서 6명 복수 추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삼혜, 이하 종관위)가 동국대 이사에 지홍·화평·호성·등목·돈관·덕조 스님을 복수 추천했다.

종관위는 6월 11일 열린 제97차 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 정념 스님의 후임에 지홍·화평 스님, 호성 스님 후임에 호성·등목 스님, 이사회에서 해임된 영담 스님 후임에 돈관·덕조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동국대 이사는 동국대 정관과 조계종 종립학교관리법에 따라 종관위 추천과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동국대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다. 이에 따라 종관위는 오는 6월 22일 열리는 제202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동국대 이사 후보 복수추천의 건'을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서 종관위는 동국대 사태에 대한 경과를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종민 스님에게 보고 받고 질의했다.

종민 스님은 "동국대는 종단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종립학교다. 종단이 설립주체이며 설립자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사장 및 총장 선출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총학생회의 반발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종민 스님은 "법과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엄격히 다뤄야 한다. 학칙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마찰을 마무리하고 적법히 선출된 총장과 이사장을 중심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는 자료로 이뤄지는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방송 사장 연임 논란 '일단락'

6월 11일 이사회서 이채원 사장 연임 포기 선언

'현직 사장 연임시 후보자격 보장'에 대한 정관개정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불교방송 문제가 이채원 사장의 연임 포기 선언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방송은 6월 11일 마포가든호텔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91차 이사회를 열었다. 2시간 동안 공개로 회의가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종하 스님의 연임이 확정됐고 신임 이사에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이 선임되었으며 진흥원 측 구상진 이사는 연임이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사장 종하 스님을 비롯해 총 20명의 이사와 감사가 참석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된 사안은 추가안건으로 채택이 된 '현직 사장 연임시 후보자격 보장의 건'이다. 조계종 소속 이사스님 다수가 포함된 12명 이사의 동의를 얻은 이 안건의 주요 골자는 '사장 연임시 진흥원에 추천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나 당장 진흥원은 시도에 반발했다. 진흥원 측은 "2004년 당시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 역시 사장 후보 추천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전례가 있다. 또한 이미 후보 추천공모가 진행되는 과정서 정관을 개정한다는 것은 공모 절차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예정대로 사장 공모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진행되자 상황은 반전됐다. 이사장 종하 스님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에 넘길 것"을 제안했다.

안건으로 상정하고 다음 이사회 때 논의

'연임 시 진흥원 추천자격 無'
정관 변경 추진… 진흥원 반발
"양측 법률 공방 우려돼 포기"
종하 스님 이사장 연임은 확정

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진흥원 측 전경두 이사는 "국가에서도 헌법을 초월해 법안을 다룰 수 없듯이 정관에 위배되는 결의는 할 수 없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사 혜일 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은 "이채원 사장이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연임할 수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다가)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받아서 안건을 제안한 것이다. 다수의 의견에 안 맞으면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넘겨도 된다"고 맞섰다.



불교방송은 6월 11일 마포가든호텔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91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직 사장 연임시 후보자격 보장의 건'이 다뤄졌으나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또한 이채원 사장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결국 '현직 사장 연임시 후보자격 보장의 건'은 논란 끝에 다음 이사회 때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은 이 자리에서 연임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큰 논란이 되어 왔던 사장 연임 문제를 일단락 시켰다.

이 사장은 "법률해석, 논리 공방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해 이사장 종하 스님께 연임을 포기할 뜻을 밝혔다. 후임 사장의 연임시에는 후보자격이 보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연임 포기의 뜻을 밝혔다.

이후에는 임원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이 진행됐다. 종하 스님의 이사장 연임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고 나머지 세 명의 이사 선임은 투표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통도사 신임주지 영배 스님의 이사선임과 종하 스님의 이사 연임은 통과됐지만 진흥원 측 구상진 이사는 반대 11표를 받아 연임이 부결됐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청소년·청년 출가 첫 장학 수혜자 나왔다

출가특별법 대상 학인 스님 5명
조계종 교육원, 9일 장학금 수여
"한국불교 이끌 인재되달라" 당부

조계종이 지난 2013년 제정한 '청소년 출가·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장학수혜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올해 초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입학한 학인 스님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 대상자는 소년 출가자 정인 스님을 비롯해 청년 출가자 명담·법상·덕수·금천 스님 등 5명이다. 이날 대상자들은 1인당 200여 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들 스님들은 현재 동국대 종비생으로 70%의 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이번 장학금 수여로 개인부담 하나 없이 4년간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됐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최근에는 동자승보다 나이든 출가자들이 훨씬 많다"며 "사회에서 젊은이들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승가에서도 청년들이 구성원이 필요하다. 종단의 기대와 성원을 잊지 말고 한국불교를 이끌 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청소년 출가·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올해 초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입학한 학인 스님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 "또한 젊은 스님들이 종단 장학 혜택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사회의 젊은이들도 대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출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조계종이 젊은 세대의 출가를 유도·장려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은 소년 및 청년 출가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년출가자의 경우 행자교육이 면제된다. 소년 및 청년출가자가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으로 진학 시 장학금을 지원하며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면 이 역시 종단 장학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군승 우선 선발 및 공찰 주지 우선 임용 등도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장학금을 지원 받은 명담스님은 정인 스님은 "금전적 고민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젊은 스님들이 늘어나 비슷한 연령대의 도반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교육특별분담금' 영구 존치 추진된다

조계종 교육원, '문화재관리법' 개정

조계종 교육원은 최근 교육특별분담금 징수의 근간이 되는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종단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칙 제2조 '문화재보유사찰 주지는 중앙승가대 교육불사 및 승가교육 불사를 위해 문화재구역입장료 총 수입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201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매월 5일까지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징수 기한을 폐지함으로써 5년마다 관련법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교육특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원은 "승가교육은 종헌에서 정한 종단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라며 "승가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특별분담금을 상설적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교육원은 이 개정안을 6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6월22일 예정된 제202차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최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7월 15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근현대 지성 일엽 스님 재조명 된다

일엽문화재단, 콘텐츠 사업 등 전개 예정

한국 근대의 대표적인 신여성이자 선불교의 맥을 이은 일엽(一葉, 1896~1971) 스님 〈사진〉을 재조명하는 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김일엽문화재단(이사장 월송)은 "한국 근대사의 대표적 신여성인 일엽 스님의 생과 문학 활동, 여성운동, 불교사상 등을 망라해 연구함으로써 일엽 스님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콘텐츠 사업 등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일엽문화재단은 2015년 사업으로는 특강, 학술대회, 전시회, 전집 출간, 평전 출간에 나서며 예산·홍성·서산과 연구 및 협동사업을 통해 지역학 연구에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 사업으로는 충청남도, 한서대, 예산군, 홍성군, 덕숭총림 수덕사, 경허만공선양사업회 등과 연계해 기념관 건립, 근대여성문학관 건립을 진행한다. 올해 안으로는 기존의 모든 글을 통일된 전집으로 출간하고, 영문판 평전 출간도 곧 펴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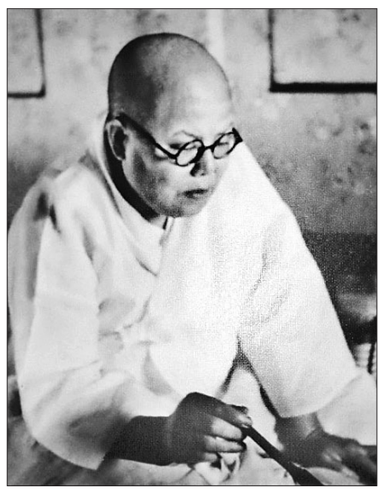
한국 근대사의 대표적 신여성으로 꼽히는 일엽 스님은 1세대 여성작가이자 개화기의 여성운동가였으며, 사상가이자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비구니였다.

평남 용강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 한국과 일본에서 신학문을 수료한 스님은 1920년대 〈신여자〉를 창간하고 〈신정조론〉과 〈자유연애론〉으로 대표되는 여성계

2015년 영문판 평전 출간
특강에 이어 세미나 진행
근대여성문학관 건립 추진

몽운동을 전개해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여러 번의 결혼과 동거 등 곡절 많은 사랑을 거친 후 1933년 홀연히 모든 것을 버리고 만공스님 문하로 출가한다. 입산 후에는 스승의 뜻에 따라 절필하고 비구니의 총본산인 견성암의 입승(入繩)직을 30여 년간 맡아 참선수행으로 일관했다. 만년에는



덕숭산 수덕사 산내암자인 환희대에서 머물며 대중포교를 위해 '어느 수도인의 회상'과 '청춘을 불사르고' 등을 펴내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엽 스님의 글은 호기심에서 시작돼 읽혀졌지만 곧 그 깊은 성찰의 내용이 화제가 됐다. 그 내용에 감화돼 불교에 귀의하거나 입산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스님은 1971년 세수 76세 법랍 43세로 스님이 설립한 덕숭총림비구니선원에서 입적했으며, 스님의 영정과 추모탑이 덕숭산 수덕사 환희대에 모셔져 있다.

김일엽문화재단측은 "일엽 스님은 한국 여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중 한 명"이라며 "학술대회 등을 통해 향후 일엽 스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불교와 문화, 또 지역 중요인물로서 콘텐츠사업 등 문화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진행된 제1회 김일엽 학술대회에서는 방민호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가 '김일엽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일엽 스님의 일생을 개관했다. 이어 유진월 한서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김일엽과 콘텐츠 활용 방안', 박진영 아메리칸대학 철학과 교수가 '김일엽: 여성과 불교철학'을 발표했다. 또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김일엽 불교의 재인식-인연, 수행, 출가를 중심으로', 김주리 한밭대 교양학부 교수가 '김일엽 문학의 연구방향에 대한 고찰' 등이 발표됐다. (041)337-6404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편향 빠진 반쪽짜리 인사 청문회"

범종교인 연석회의, 여야 질타
청문회 기간동안 1인 릴레이 시위
중앙종회 의장단 비판 성명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종교편향 문제는 거론되지 않아 반쪽짜리 청문회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저지 범종교인 연석회의(이하 황국저지 연석회의)는 6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바로 종교적 편향과 이념적 편향, 그리고 공격적 성향의 반쪽짜리 국무총리 후보라는 점을 인사청문위원회가 보여주지 못한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황국저지 연석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인사청문 당일 제출하는 등 인사청문위원회를 농단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병역면제, 전관예우 등 하나 같이 국무총리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사안이지만, 여기에 여야 청문위원들이 발목잡혀 정작 국무총리로서 가장 큰 덕목이 되어야 할 국민 소통과 통합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저지 범종교인 연석회의는 총리 인사 청문회 기간동안 임명 동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은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임 대표와 우희종 바른불교재가모임 대표의 1인 시위 모습.

연석회의는 각계 정책 전문가 80%가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부적합하다는 경실련의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조사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황국저지 연석회의는 6월 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을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임명동의를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연석회의는 서한을 통해 "황 후보자는 사회법보다 교회법이 우선인 종교 편향,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공격적 성향, 이 외에도 세간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의혹들로 볼 때, 공정하고 온화한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는 매우 부적당하고 부족한 인물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자질 미달 총리 후보의 임명 동의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6월 8~10일까지 이어진 릴레이 시위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박광서 대표), 바른불교재가모임(우희종 상임대표, 이정희 사무국장), 참여불교재가연대(김형남 공동대표), 대한불교청년회(전준호 중앙회장, 황태웅 간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권오광 대표, 이주영 사무국장),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곽성근 대표, 이은석 사무국장), 우리신학연구소(경동현 소장), 불력회(박종린 법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채은 회장, 홍지연 지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도 여야의 인사청문회가 실망스런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은 6월 11일 입장문에서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책임지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담당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그러나 총리후보자의 종교관련 편향적 발언 등이 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을 운영하는 공직자는 개인의 사고를 넘어 공평무사한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일 것"이라며 "황 후보자는 균형 있는 종교관으로 종교화합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국민과 종교계에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로 만해 스님을 기리다

선학원, 7일 만해 열반 71주년 예술제… 사부대중 800여 명 참석

문화 예술로 만해 스님 열반 71주년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7일 오후 4시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어지러운 세상, 님께 길을 묻다'를 주제로 만해음악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예술제에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만해 스님의 딸 한영숙 여사, 선학원 8개 분원 소속 합창단과 어린이회 등 메르스 여파에도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을 위해 선학원은 메르스 예방을 위해 전 관람객을 대상으로 방역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제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 앞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금년은 해방 70주년이자 만해 스님이 가신지 71주기가 되는 해"라며 "이에 우리 재단에서는 '어지러운 세상, 님께 길을 묻는다'는 제목으로 만해 스님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하고자 오늘 음악회와 함께 문학, 학술, 추모 등 네 꼭지로 대중들과 만해 스님을 같이 만나기로 했다. 오늘 참석한 모두가 만해 스님의 '님'"이라고 말했다.

국악인 김종엽 선생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예술제는 선학원 분원 소속 합창으로 시작됐으며, 각계 예술인들이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국악관현악팀 락음국악단은 김성진 지휘자의 지휘 아래 'Fly to the sky'와 '아리랑환상곡'을 연주하며 한민족의 아픔과 애환을 표현해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은 판소리와 국악관현악단, 그리고 합창단이 함께 꾸민 무대 '님이시여'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님이시여'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직접 가사를 붙인 곡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예인 김성녀, 소리꾼 정준태, 합창단 150명이 함께 부르는 국악관현악으로 새롭게 편곡됐다.

한편, 선학원이 주최하는 만해 추모의 달 행사는 15일 삼각산 정법사에서 열린 만해학술문화제와 29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만해 추모다례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이 6월 7일 개최한 만해예술제에서 김성녀 씨가 국악관현악으로 꾸며진 '님이시여'를 노래하고 있다. '님이시여'는 이사장 법진 스님이 가사를 붙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네팔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 · 환자 등 동행에 기부동참 이어져

네팔 대지진 참사를 돕기 위한 불교계 사부대중의 구호 성금이 이어지고 있다.

지진 발생 직후 네팔 지진 긴급구호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다양한 사연을 담은 성금이 답지되고 있다. 500원을 기부한 아동부터 병원 입원환자, 아동생활시설 청소년 등 다양한 단체에서 각자의 사연이 기부되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대구 반야유치원(원장 남현미)은 지진 이후 한 달여간 자발적 참여를 통한 네팔 돕기 성금을 모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남현미 원장은 "선생님과 원아들이 네팔 기사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네팔 친구들 돕기 모금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군것질을 하지 않고 가져온 아이들의 기특한 마음이 네팔에 전해지길 바란다"며 12만2천원의 성금을 보내왔다.

경남 고성의 아동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원장 승욱)에서도 62만원의 성금을 보내왔다. 59명의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보리수동산에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어 그 관심에 보답하고자 용돈을 모아 전달해왔다.

이밖에도 8일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환우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법당에서 기금을 보아 4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약 1,500곳의 개인 및 단체가 네팔 구호기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총액은 11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아름다운동행은 네팔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2차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02)737-9595

신성민 기자

마하연투어 예약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1.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4.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5. 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출발확정 상품 [호텔-일정-포함내용-식사 : 타사비교 필수]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 7월 11일, 8월 29일, 9월 2일	1,490,000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출발일 : 6월 24일, 7월 17일	1,390,000
[대한민국 영산] 북경/백두산	5일	출발일 : 7월 10일, 8월 30일	1,290,000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 7월 10일, 8월 22일	1,290,000
[문수도량] 오대산/용강석굴	5일	출발일 : 7월 17일	1,390,000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 7월 25일, 8월 18일	1,090,000
중남미 7개국	20일	출발일 : 7월 29일	11,590,000
미동부/캐나다	10일	출발일 : 9월 12일	2,610,000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 5일
양곤/바간/헤호 5일
BEST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BEST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씨-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방콕/부탄 7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BEST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BEST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라오스
BEST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7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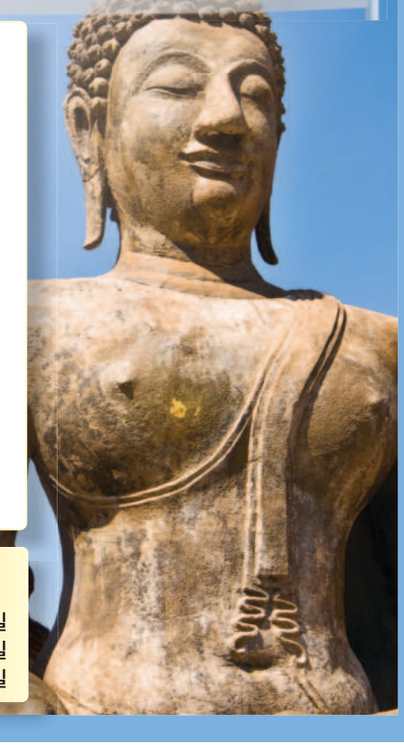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엠립 6일

태국
태국
방콕-아유타야-파타야 5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 3대사찰 순례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중국
BEST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BEST [관음도량] 항주/보타/낙가산 5일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BEST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BEST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훼리 크루즈(수륙대제 가능)
대룡훼리, 화동훼리, 위동훼리
세계3대 트래킹명소 호도협
곤명/호도협/옥룡설산 6일

세계 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일주탐방 9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동부 일주탐방 9일



일 주 문



2015신나는 어린이여름불교학교

수불 부산 범어사 주지 스님은 8월 1~2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2015 범어사 신나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광주전남 청소년 템플스테이

지원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은 7월 4~5일 순천 송광사에서 '송광사 스님들과 함께하는 내 이야기 들어주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자녀를 위한 108일 특별기도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7월 28일 '자녀를 위한 108일 수능특별기도'에 입재한다. (041)330-7700



해남 어린이 숲속마을

범각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8월 1~3일 어린이 숲속마을을 개최한다. (061)535-5775



다라니 철야정진 기도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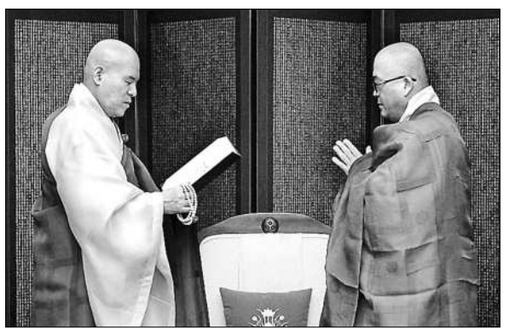
무심 대구 무심선원 선원장 스님은 6월부터 매주 토요일 다라니 철야정진 기도법회를 연다. (053)616-8080



구궁선원 부처님 이운법회

도상 대구 구궁선원 선원장 스님은 6월 9일 구궁선원에서 부처님 이운법회를 진행했다.

〈인사〉 조계종, 수익사업 특보 각운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수익사업총괄 특별보좌관에 각운 스님〈사진 오른쪽〉을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승려복지가 수익사업을 통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각운 스님은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4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1987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대산사, 원효암, 남지장사 주지와 총무원 재정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견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진오 스님·이자랑 박사, 불이상 수상

사회복지와 초기불교 연구 공로로
7월 6일 신라호텔에서 시상식



진오 스님



이자랑 박사

진오 스님, 다문화·이주민 지원 앞장
이자랑 박사, 계율 관련 원전연구 탁월

제30회 불이상 수상자에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과 이자랑 동국대 HK교수가 선정됐다.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실천분야에 진오 스님과 연구분야에 이자랑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1985년 제정된 불이상은 1974년 재가불교 및 여성불교 위상 제고를 위해 설립된 불이회가 불교학 연구 및 포교에 모범이 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천분야와 연구분야로 나눠 선정하는 상이다. 수상자들에게는 2000만원의 연구비가 전달된다.

먼저 실천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진오 스님은 이주민노동자 등 소외계층 인권보호에 나서고 있는 스님이다. 25여 년 동안 새터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지원을 비롯해 마라톤을 통한 후원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진오 스님은 1980년 보은 법주사로 출가해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대구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1990년 자비의 전화 부회장을 시작으로 김천 구미 피해자 지원센터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와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연구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이자랑 HK교수는 초기불교 교단사 연구를 비롯해 최근 초기불전 내의 계율 문제를 활발히 연구해 왔다. 팔리어 및 산스크리트 원전, 한문불전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를 통해 최근 사회 갈등 상황에서의 불교적 대안에 대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일본 도쿄대학에서 불교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로 있다.

한편, 제30회 불이상 심사는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중앙승가대 보각 스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최연식 동국대 교수, 안양규 동국대 교수가 심사를 맡았다.

이번 불이상은 응모방식에서 추천방식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됐으며 소장학자 발굴이란 취지 를 살리고자 연구분야의 경우 자격을 '조교수 이하 학자'에서 '박사학위 취득한 연구원, 연구교수, 강의교수, 비정년 전임교원'으로 변경했다.

시상식은 7월 6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제28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 성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에는 15개팀이 참여했다.

(사)청소년교화연합회(총재 현성)는 5월 30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28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교화연합회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잠재된 예술적 소양을 고취시키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불교진흥원, 도선사, 동국대의 후원을 받아 매년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2015 꿈을 향해, 열정을 다해, 도전하는 청소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총 15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경연대회에는 내외귀빈을 포함해 총 6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대회 1부는 경하 현성 스님의 대회사로 시작해 함종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의 축사와 청소년교화연합회 창립49주년 기념 유공지도자와 모범청소년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본선 진출 총15개 팀의 경연이 이뤄졌다.

경연 결과 대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에는 '평택농악'을 선보인 평택 오성중학교팀이 차지해 장학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에는 가야금산조를 연주한 동대부고 최유리 양과 경기12잡가 중 유산가를 부른 김희서 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7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종단협, 남방불교 교류 나서다

6월 2~6일 라오스 방문…한국문화체험 행사



종단협 대표단 스님들은 라오스 거리탁발에 동참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이 남방불교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종단협은 6월 2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해 현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6월 3일 열린 문화체험 행사에서는 나파쑥 초등학교를 비롯한 9개 학교에서 3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으며 연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한국 문화재 접기 등 체험행사가 이뤄졌다.

이날 체험행사는 종단협 사무처장 각우 스님을 단장으로 한 주요 종단 및 사찰 실무자 36명과 지구촌공생회 라오스 지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어 방문단은 4~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루앙프라방으로 이동해 현지 스님들에게 준비한 공양을 올리고 불교 사찰, 불교교육기관 등을 방문해 라오스 불교를 체험했다.

신성민 기자

봉원사서 남북통일 영산재 열려



현충일을 맞아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재가 펼쳐졌다. 태고종 신촌 봉원사는 6월 6일 봉원사 경내 영산재도량에서 영산재보존회 주관으로 제27회 영산재를 봉행했다.

이날 영산재는 타종을 시작으로 옹호게, 헌좌진언, 다게, 행보게, 산화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봉원사 주지 선암 스님은 "영산재는 종교의식임과 동시에 죽은자의 넋을 기리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행사"라며 "앞으로 불교 예술성과 종교적 숭고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국제붓다봉사단, 예술인회 후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소속 국제붓다봉사단 (총재 목탁, 회장 정영숙)은 6월 5일 종로구 청진동 미얀마문화원에서 소속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군인경찰예술인봉사연합회(회장 김종수, 이하 예술인봉사연합회)에 25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국제붓다봉사단 총재 목탁 스님은 "봉사단의 활동을 물적으로 지원해 주는 (주)청정원의 고마움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신성민 기자

안동 봉황사, 청소년장학금 전달식



경북 안동 봉황사(주지 도견)는 6월 7일 안동시 임동면사무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청소년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청소년 6명에게 총 1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도견 스님은 "미래 불교의 발전을 위해 불교계가 청소년 포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6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6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6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조계종 불교음악원 개원식 및 봉은국악합주단 창단기념 연주회가 6월 7일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김회경 예술총감독의 지휘로 진행된 단원들의 연주 모습.



공연에 앞서 진행된 불교음악원 개원식에서는 불교음악의 발전을 기원했다. 사진은 현판식 모습.



불자와 시민 등 400여 대중들이 모여 경내에서 진행되는 음악회를 감상하며 즐거워했다.

경내에서 국악 공연… 찬불 음악의 진수 보여줘

불교음악원 개원식 및 봉은국악합주단 창단 연주회

강남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 국악 선율이 울려퍼졌다. 주옥같은 찬불가들이 경내를 휩싸면 관중들은 조용히 눈을 감거나 때로는 어깨를 덩실거렸고 또 때로는 박수를 쳤다. 모두가 국악으로 연주되는 찬불가에 푹 빠진 듯 즐거워 보였다.

조계종 불교음악원 개원식 및 봉은국악합주단 창단 기념 연주회가 6월 7일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불교음악원장이자 조계종문화부장인 혜일 스님,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음악회에 앞서 조계종단 산하기관으로 개원하게 된 불교음악원의 현판식과 개원식이 이어졌다.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의 사회로 진행된 개원식에서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불교음악원장 혜일 스님(조계종 문화부장),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의 인사말과 환영사가 각각 이어졌다.

불교음악원장 혜일 스님은 "종단사상 처음으로 불교음악원이 개원하게 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음악공양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교음악원은 기존의 불교음악에서부터 새로운 불교음악의 창작에 이르기까지 불교음악의 연구와 보급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음악의 역사적 틀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불교음악은 신심을 표현하는 지극한 공양이다. 지난 봉축 때 봉은국악합주단의 공연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다. 오늘을 계기로 조계종 전국 사찰에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합주단 창단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제 본격적인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국악인 박애리 · 남상일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봉은국악합주단 김회경 총예술 감독이 지휘를 맡았다. 봉은국악합주단의 연주와 더불어 봉은사 어머니합창단, 조계사 혼성합창단이 참여했으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김성녀, 김묘선, 유지숙, 도신 스님, 최수정, 민은경, 사물광대 등이 협연했다.

6월 7일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서
박애리 남상일 재치 넘치는 사회
도신 스님 김성녀 김묘선 등 출연

특히 이번 연주회는 불교음악원 및 봉은국악합주단 탄생을 기념하여 교성곡 '붓다' 중 '아! 탄생' 으로 문을 열었고 연잎바람, 찬미의 나라, 보렴, 백팔번뇌 등 다양한 찬불가와 승무를 위한 관현악,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까지 여러 음악이 선보여 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불교신도에서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공연에 참석한 관객들은 국악선율로 펼쳐지는 찬불 무대를 감상하며 불교음악에 매료되었다. 음악회를 관람한 김기옥(54) 보살은 "산사음악회는 많지만 순수 국악만을 연주한 사찰음악회는 처음인 것 같다. 사실 교회는 연주단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지만 불교는 그렇지가 못해 늘 아쉬웠다.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합주단이 생겨 너무 기쁘다. 앞으로 봉은합주단이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봉은사 합창단인 아내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음악회에 참석했다는 변창진(48) 씨는 "강남 한복판 삼성동에서 이렇게 국악연주가 울려퍼지니 무척이나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봉은사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사찰인데 이런 음악회를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회에 참여했다가 우연히 음악회를 감상하게 되었다는 김청명(78) 보살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찬불공연이 너무 발전한 거 같아 기쁘고 공연도 너무나 훌륭했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기쁨의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봉은국악합주단의 창단에 큰 기여를 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인사의 말들도 줄을 이었다. 현재 '중앙대 특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원학 스님은 "하루빨리 오해가 풀려 불교음악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그 원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김성녀 씨 또한 "박범훈 전 수석과는 불교음악 운동을 같이했다. 시댁도 친정도 다 불교집안이었지만 불자라는 마음이 자리 잡지 못했던 내가 불교 음악 운동을 하면서 진정 불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박 전 수석을 위해)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린다"며 애석한 마음을 표현했다.

불교음악의 연구와 발전 '기대'
창단에 기여한 박범훈에 응원 메시지도
400여 사부대중 모여 흥겨운 한마당

한편, 봉은국악합주단은 영산회상을 비롯해 전통불교음악 및 예불의식음악과 찬불가를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배합 앙상블로 연주함으로써 불교음악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불교계 최초로 창단된 국악합주단체이다. 지휘자 및 연주자 총 12인이 소속되어 있으며,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상설공연을 진행해 주목받아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음악원은?

불교음악 새지평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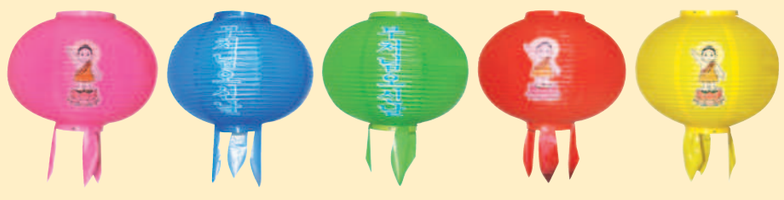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조계종 종령기구로 종단 최초로 설립된 불교음악 교육기관이다. 과정은 불교음악 최고위과정, 불교음악 지도자 과정, 찬불가 교육과정, 찬불가 최고위 과정 등으로 나뉘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불교음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합창단 중심의 찬불가를 지향하며 동시에 불교포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회경 음악감독은 "불교음악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불교음악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불교음악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불교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 출판 음반 공연기획 등 불교음악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 불교음악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며 설립 취지를 전했다.

더불어 불교음악원은 세계 불교음악 페스티벌까지 개최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보련기획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만 월 등

극락왕생등


공 단 등

황 금 등

영 가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연화제 50주기… 숭고한 구도정신 기린다

고불회, 7월 3~5일 월정사서 '50주기' 연화제 마련

열 송이 못다 핀 연꽃이 부처님 품에 내려앉은 지 어느덧 50주기. 고려대불교학생회가 연화탑에 잠든 10명의 선배들을 기리는 추모재를 준비하고 있다.

50년 전 1965년 7월 10일, 고려대불교학생회 학생 10명이 급류에 휩쓸려 생을 마감했다. 오대산 월정사 수련대회를 위해 10일 간 머무르던 중 마지막 날, 원보산 스님 장례식 참석 후 월정사로 돌아오던 길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참변을 당한 것이다.

안타까운 넋을 위로하기 위해 고려대불교학생회(이하 고불회)는 7월 3일~5일 오대산 월정사서 50주기 연화제 '추억어린 선배님 가신 길 따라' 를 주최한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추모재는 고려대 불교학생회 교우회, 불자 교우회, 대학생불교연합회동문회가 함께한다.

첫째 날인 3일에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 월정사와 연화탑 일대 선재길을 함께 걸은 후 중대 사자암부터 적멸보궁까지 삼보일배를 한다. 이어 이튿날에는 선재길 탐방 및 적멸보궁 참배, '연화제와 대학불교운동' 대담 등이 진행된다.

특히 '연화제와 대학불교운동' 대담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고불회 재학생 회장, 대불련 원로회원 이용부, 고불회 교우회 김동기 · 이연창 · 이동식씨가 대담자로 나서 눈길을 끈다. 고불회는 대담과 관련 "50년 전 돌아가신 10명의 숭고한 구도정신을 오늘날 우리 모습에 비춰보는 의미깊은 자리"라며 "50년 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연화제를 진행해 왔다. 이제는 고려대만의 행사가 아닌 전국 대학생 불자들과 이 정신을 함께 기리고자 한다"고 대학생 불교운동의 기폭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본격적인 연화제 행사는 7월 5일 월정사 대적광전에서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들에 대한 애도를 표할 예정이다. 고불회는 월정사와 이날 장학사업 및 명예 신도증 관련 MOU를 체결할 계획도 밝혔다. 고불

삼보일배 · 대담 · 세미나 등 진행
50주기 추모지도 발간 예정

회는 "50년간 고불회는 여름수련회 · 농촌활동 등 신행활동을 월정사와 연계해 함께 했다"며 "MOU체결을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불자학생들의 불심을 고취시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연화제 후에는 관련 학술세미나가 열려 주목된다. 학술 주제는 △동국대 김광식 교수 '탄허대선사와 대학불교운동' △고려대 조성택 교수 '우리시대의 부처님' 등 이다.

한편 고불회는 연화제 50주기 추모지도 공식 발간한다. 추모지에는 50주기 기념 유가족 및 월정사 주지 스님 추모글, 고불회 및 교우회 법우 추모글과 50년 간 연화제 역사를 담을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고려대불교학생회가 주최하는 '연화제' 가 50주기를 맞았다. 사진은 50년 간 역사를 담은 모습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1973 • 1980 • 1995 • 2014년 모습.

고려대불교학생회가 당한 참사는?

1965년 7월 5일 고려대불교학생회 회원 38명은 오대산 월정사로 10일 간 하계수련대회를 떠났다. 지도법사 탄허 스님과 함께 승려와 다름없는 산사 생활을 체험하던 중 참극이 벌어진 것은 수련회 회향을 하루 앞둔 7월 10일. 오대산 일대 암자 참배 후 원보산 스님 장례식에 다녀오던 중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싸여 10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무참히 사라졌다. 앞서 출발한 13명은 무사히 월정사에 도착했지만, 뒤따르던 13명이 상원사와 월정사 중간 지점 동피골을 건너다 급류에 떠내려갔다. 스크럼을 짠 채 계곡을 건너던 이들은 한 여학생이 미끄러지자 한꺼번에 쓰러졌고, 손명현 교수와 학생 2명은 구사일생으로 헤엄쳐 나왔으나 나머지 10명은 12일 낮 주검으로 발견됐다.

다인중앙회 조계종 신도단체로 창립

6월 3일 출범 법회… 지원 스님 총재로 선임

"다도 통한 포교 적극 나설 것"
4월 2일 포교원 신도단체로 등록

전국의 불자 다인(茶人)들을 한데 어우르는 신행단체가 출범했다.

한국불교다인중앙회는 6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다도를 통한 불법홍포를 다짐했다.

한국불교다인중앙회는 지난 4월 2일 조계종 포교원 신도단체로 등록했으며, 이번 출범을 통해 전국 사찰 및 지역별 헌다공양과 차를 통한 포교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다인중앙회 초대 회장은 최순애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이 맡았다. 총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상임지도법사에는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지도법사는 신도국장 덕산 스님이 맡아 신행지도를 담당한다.

이날 법회에서 지원 스님은 치사를 통해 "언제부터인가 우리 전통 차를 멀리하고 커피에 친숙해져 있다"면서 "전국 사찰과 지역별로 헌다 공양을 실천하고 다도를 통한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UN 각국 대사에게 차를 올리고 한국참전 미군들이 안장된 알링톤 국립묘지에도 헌다 공양을 올리는 것도 추진해 보자"며 한국 전통 차의 세계화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순애 한국불교다인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월 다인회를 대표해 선혜품계를 품수했다"면서 "늘 고마워하고 하심하는 마음자세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테니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다인회 활동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교역직 스님과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다인중앙회는 6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다도를 통한 불법홍포를 다짐했다.

"인재는 양성 아닌 본래 인재를 깨우치는 것"

바른법연구원, 6월 8일 '금강경 교육법' 발표 '눈길'

취업 위주 · 지나친 사교육 등 한국 교육의 한계가 드러나는 때 새로운 불교적 교육 패러다임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금강경(金剛經)을 교육법에 적용하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바른법연구원(이사장 김원수)은 6월 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문화관에서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재양성 교육법〉을 발표했다. 금강경 개경게 독송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임종록 한양대 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김원수 이사장의 소견발표로 이어졌다.

임종록 교수가 발표한 교육법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는 금강경 핵심사상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임종록 교수는 이것을 '행법(行法)' 이라 지칭했다. 임 교수는 " '할 수 없다' 혹은 '모른다' 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음이 만든 무지(無知)가 자신의 능력을 말살시키는 것"이라며 "금강경 실천으로 무지가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되면 무능이 사라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로운 자임을 깨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수는 현행 대학 교육과 선진국 교육법 한계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 및 선진국 교육은 첨단 지식인과 창의적 인재 발굴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학생들이 학습된 행동을 벗어나 역경에 처할 경우 궁극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서 "금강경식 교육은 본래 인재라는 것을 깨달아 참인격 · 참지혜 · 참행복을 갖춘 바람직한 인재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실천 방법으로 임 교수는 '무슨 생각이든 부처님께 바칠 것' 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잡념과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부처님께 그 생각을 바쳐야 한다"며 "이는 내적 고민을 떨쳐내는 의미다. 생각을 지속할 때보다 내려놓을 때 문제의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 교수는 "위빠사나 · 초월명상 · 간화선 등 우리나라에 소개된 모든 수행법을 30년 동안 체험해 왔지만 금강경 실천에서 수행 핵심에 이르렀다"며 "공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경은 형상이 없는 무여 열반에 들게 한다. 이를 통해 본래 내가 한량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법연구원은 동국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생활 속의 금강경' 대강좌 수강생을 중심으로 7월 16~20일 3박 4일간 금강경 실천수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강경 실천수련은 △일체유심조 및 공의 진리를 깨치는 분임토의 △일체유심조 진리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박아름 기자**



바른법연구원(이사장 김원수)은 6월 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문화관에서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재양성 교육법〉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임종록 한양대 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과 교수가 맡았다.

병불련, 사단법인 출범위한 공식 행보

6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총회 개최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설립 16년 만에 사단법인 공식 출범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사장 류재환)은 6월 2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사단법인 출범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의제는 △사단법인 정관 토의 및 승인 안 △사단법인 등기 이사 선임 승인 안 △사단법인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안 △사단법인 사업 수지 예산 및 결산 검토 및 승인 안 등으로, 이날 결정사항에 따라 사단법인 정식 등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류재환 이사장은 "임원과 정관으로 보다 확실한 시스템을 갖춰 큰 의료봉사단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많은 봉사인원이 갖춰졌고 회원들의 열의가 대단해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류 이사장은 법인 설립 후 향후 계획도 밝혔다. 류 이사장은 "법인 하 조직적 봉사시스템으로 포교원을 비롯한 종단 봉사활동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독자적으로는 5월경 인도 의료봉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지난해 8월에도 인도 북부 아삼지역에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 아삼 시바시가사원에서 3천여 명을 진료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 + 대출력 스피커 + 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개별 맞춤형 아동 상담으로 마음 치유

용호복지관 '아이마음결힐링센터' 6월부터 심층 상담 실시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먹고살기도 힘든데 심리치료를 받는 건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 아이의 심리적 문제는 덮어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 A 씨는 자녀의 심리치료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생활고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 치료는 늘 뒷전이었다. 이처럼 저소득층 아동들은 학교생활부적응, 우울, 위축,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에 노출되기 쉽지만 환경적인 이유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인 '아이마음결힐링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해 주목된다. 지난 4월 출범식을 가진 '아이마음결힐링센터'는 6월부터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면서 아동들의 심층 상담에 들어간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대부분 심리치료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부모도 많고, 관심은 있으나 경제적 비용부담 때문에 치료를 꺼리는 부모들도 많다. 실제로 치료센터나 병원을 방문하면 1회당 1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스러운 비용이 아닐 수 없다. '아이마음결힐링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심리 치료를 주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따라서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고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 남구 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시남구희망복지지원단, 신라대학교, 위즈키즈마음상담센터 등 지역 내 각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맺었다. 또한 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4월 30일, 컨소시엄기관 출범식 및 협약식을 통해 총 15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각 기관과 학교 등으로 상담사들이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관 내로 초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각자의 사정에 맞는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는 각 협약기관 등에서 총 50명의 아동을 추천받은 상태이며 상담 및 1차 선별검사를 진행, 이중에서 30명을 선별해 6월부터 아동심리 전반에 걸쳐 2차 심층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온 상담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군 아동 3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1대1로 치료사와 매칭을 시켜 월 1회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1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아동들을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15개 기관과 협약, 찾아가는 상담
학부모 연계 프로그램도 실시


아동(오른쪽)과 1대 1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단순한 치료프로그램을 넘어 상담 및 학부모양육프로그램, 가족 간의 외식, 야유회 등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집중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서은해 부관장은 "현재, 각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동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파생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매우 많다. 이는 아동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이마음결힐링센터는 단순한 아동치료뿐 아니라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메르스 공포에 교계 복지관도 비상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21개 기관 잠정휴관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확산에 대한 공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교계 복지관들도 줄줄이 휴관을 결정했다. 6월 10일 현재,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등 교계복지관 21 곳이 휴관했으며, 32곳 복지관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해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6월 9일~15일까지 잠정휴관을 결정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긴급공지를 통해 "메르스 확산 사태에 따라 긴급대책 회의를 거쳐 많은 어르신과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잠정휴관을 결정했다"는 공지와 함께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메르스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서울지역 노인복지관 대부분이 1주일 이상의 휴관을 결정한 상태이며 일부 시설들은 단체급식 등의 일부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메르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메르스 관련 기관별 현황을 조사하는 등 상황 파악에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김유민 팀장은 "현재 재단은 매일 조계종 산하 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기관별 휴관, 이용자 및 기관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행히 재단 산하기관에서는 확진 및 의심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서울 지역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일부 휴관을 결정한 상태이다. 특히, 가장 위험성이 높은 무료 단체급식은 중단하고 도시락 등의 개별식사를 제공하는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지방에

32개 기관 일부 사업 운영 중단
단체급식 대신 개인 도시락 등 지급
조계종복지재단 24시간 모니터링

서도 일부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대단위 인원이 참석하는 집단 프로그램은 자제를 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각 기관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 주고받고 있으며 주말에도 대기조를 편성해 꾸준히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혜숙 기자

석왕사 룸비니 '원미사회복지관'으로 새 단장

7월부터 '위기가정 보호' 등 7대 사업 운영



부천 원미사회복지관 전경

사회복지법인 석왕사 룸비니(이사장 임영담)가 부천시 구도심인 원미동 지역에 '원미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7월부터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 보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석왕사 룸비니는 "지난 3월 3일 '룸비니어린이집' 운영 종료 후 지역복지시설 전환 준비에 들어가 5월 29일 부천시로부터 '원미사회복지관'(관장 곽병권)설치 신고증 발급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간의 진행과정을 전했다.

원미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 상호간 연대감 조성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 치료하는 지역복지 거점공간으로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 '무지개 빛 희망 만들기 7대 사업'이 진행된다. △위기가정 보호 △가족기능 강화 △다문화 가정 지원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활지원 △지역조직화를 주제로 각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급속히 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실, 요리교실, 생활문화교실, 가족교육,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문화도서관도 운영한다.

정혜숙 기자

식습관 개선사업 '건강밥상 요리경연대회'

경기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연성대학교가 주관 · 주최하는 2015 올바른식습관개선사업 '건강밥상 요리경연대회'가 연성대 식품과학관에서 진행됐다.

노년기 적극적인 식습관 개선 실천을 위해 기획된 이 행사는, 안양시 19개의 경로당 38명이 참여하여 저염식 요리 실력을 발휘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대한노인회 안양시 동안 · 만안구 지회장, 동안구노인대학장,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장, 연성대학교 교수진 등 내빈과 19개 경로당 40명의 응원단 어르신들도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경연대회의 대상 수상의 영광은 석수현대홈타운 경로당(권옥금, 한옥희 어르신)에 주어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안양시 경로당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적극적인 저염식 실천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정혜숙 기자

성북노인복지관 어르신 문화나들이 실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해피 투게더, 해피 솔루션 문화나들이'를 5월 29일 실시했다.

'해피 투게더, 해피 솔루션 문화나들이'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통합 및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사회복지학, 뷰티전공학, 물리치료학, 간호학, 식품영양학 등의 전공 학생들이 월 2회 정기적으로 어르신댁을 방문, 전공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말벗 서비스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문화나들이를 통해 어르신과 대학생 봉사자들이 함께 뮤지컬 '점프' 퍼포먼스를 관람하면서 1~3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혜숙 기자

라오스에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자비행'

로터스월드 · 백천재단 9일 협약식

불교계를 대표하는 국제 구호 지원 NGO 중 하나인 로터스 월드와 백천문화재단이 라오스 오지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 힘을 모은다.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재단법인 백천문화재단(이사장 조명하)은 6월 9일 서울 종로구 로터스월드 사무실에서 라오스 씨엥쿠앙 도 덕캄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후원 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재단법인 백천문화재단은 이날 도서관 건립 후원금으로 165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으로 지어질 덕캄초등학교 도서관은 72㎡(약 22평) 규모로 건립되며, 마을 주민들의 기금으로 마련된 새로운 학교 부지에 들어서게 된다. 도서관은 8월부터 건축 공사를 시작해 오는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덕캄초등학교가 있는 라오스 씨엥쿠앙 도 덕캄마을은 129가구(679명)가 살고 있으며, 수도 비엔티엔에서 차량으로 10시간이 소요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마을 전체 인구의 95%가 소수민족으로 전통적인 차별이 남아있고, 인근마을보다 빈곤한 환경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곳이다. 실제 초등학교는 덕캄초등학교 한 곳 뿐이며,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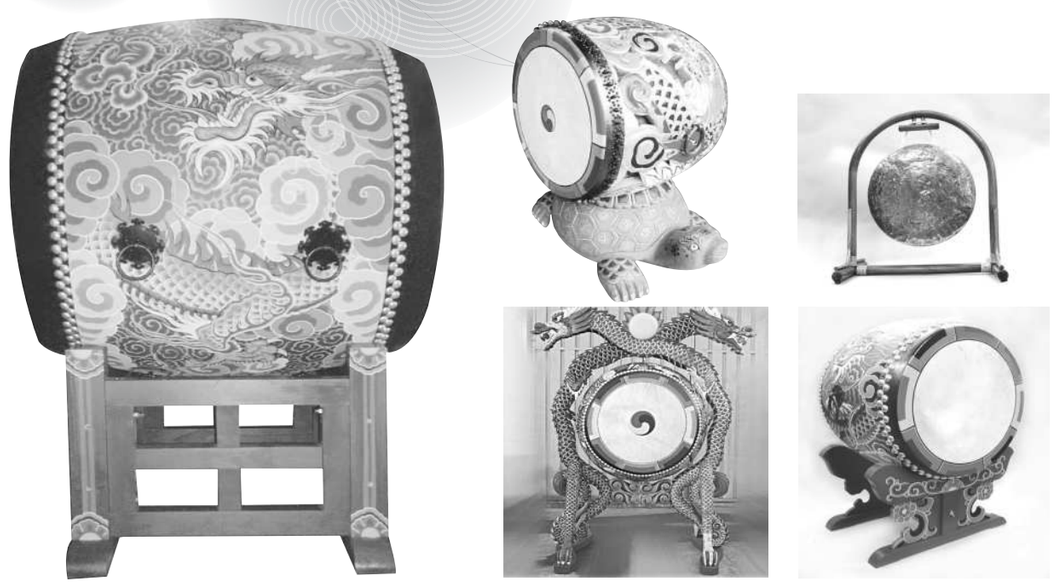
로터스월드와 백천문화재단은 6월 9일 라오스 덕캄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은 3km 거리의 인근 랏논마을로 통학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해 로터스월드는 "덕캄마을의 아이들은 높은 빈곤률 및 취약한 기반시설 등의 이유로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서관 신축 이후 도서관리 교육과 소수민족을 위한 문화교실 등을 지원해 교사와 학생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천문화재단이 로터스월드를 통해 빈곤 아동들의 교육시설을 지원한 것은 두 번째이며, 지난 2011년 로터스월드와 협약을 맺고 캄보디아 돈엠초등학교의 도서관 건립을 지원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선무도 공연◈
매일 오전11시 30분,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 수련원◈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지원 010-2554-8100
· 울산지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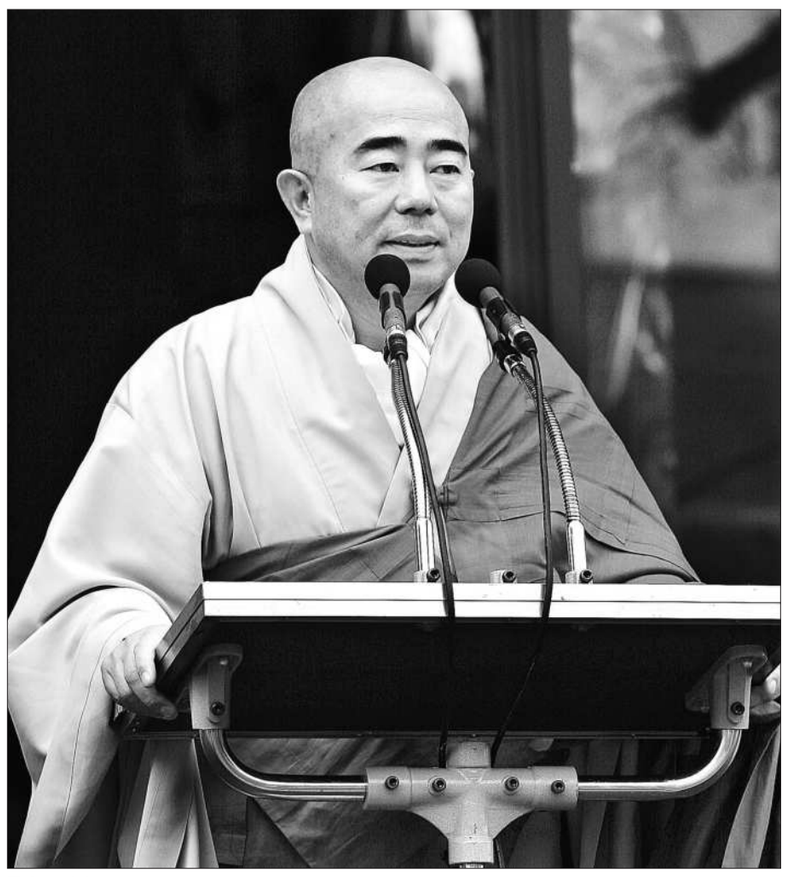
현장 스님 구법정신… 戒定慧 삼학을 닦자

〈계정혜〉

조계사 관음재일 법회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

서유기(西遊記)에 나오는 삼장 법사는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다. 현장 스님은 세 명의 제자 오공 · 오정 · 저팔계와 함께 인도 나란다 학교로 구법의 길을 떠난다. 이 여정 중 겪은 고난과 역경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환란으로 상징된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12일 조계사 관음재일 법회에서 현장 스님의 구법 여정에 비춰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설법했다. 정념 스님은 "현장 스님은 고난과 역경때 마다 관세음보살의 지혜지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이 구법 정신을 본받아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이어 스님은 "행복은 밖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길흉화복은 자신의 일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관세음보살 정근으로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을 강조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정념 스님은 … 1980년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오대산 상원사 주지와 나눔의 집 이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호법분과위원장, 강원불교 연합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월정사 주지로 재임해 왔다.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을 벌여온 정념 스님은 또한 2012년에 정부로 부터 국민훈장 동백장 포상을 받기도 했다.

지혜지력으로 환란 헤쳐 나가자

저는 여태까지 두 차례 실크로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굉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교통망과 숙박, 질서가 상당부분 높아졌지만 과거에는 실크로드가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 몇 년 전 갔을 때 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발전의 원동력은 황하문명권의 발달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페르시아, 인도 문화와의 교류와 서역 문물을 연결해준 실크로드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진 · 한 나라 때 이 실크로드를 개척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문화가 개선되고 삶이 풍족해지면 가장 먼저 발전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잉여생산물이 많아지면 일을 적게 해도 여러 사람이 함께 풍요로울 수 있는 기술을 증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에 중국이 문화적으로도 융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서유기에 나오는 스님입니다. 오늘 현장 스님의 구법 여행을 소개할까 합니다.

현장 스님은 법을 구하기 위해 서쪽 인도로 떠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형님과 함께 출가한 현장 스님은 매우 천재적인 두뇌에 출중한 외모를 갖춰 어릴 때부터 이미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중국 황실에서는 현장 스님의 능력을 인정해 나라의 인재로 키우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인도 나란다 대학을 가길 원했습니다. 인도는 부처님께서 전법하고 해탈하신 곳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이곳을 참배하기 위해 모이는 이유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묻어난 곳이며 역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엉뚱한 불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명확하게 알아야 정견을 가지고 부처님의 길을 따라 바른 불자가 될 수 있겠지요. 현장 스님은 이러한 원력을 세우고 구법을 위해 나란다 학교를 가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왕실의 허가가 있어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현장 스님이 나라에 남아 큰 법을 전하길 원하여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현장 스님은 실크로드를 따라 몰래 구법의 길에 나섭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우여곡절 끝에 실크로드 중간쯤 되는 곳에 있는 도시 고창 고성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황무지 속에 유적지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현장법사가 머물렀던 법당터가 남아있습니다. 현장 스님이 그곳에 이르니 당시 그 지방 임금이 불법을 숭상하던 분이라 현장 스님을 그 나라에 붙잡아 두고 싶어 했습니다. 임금이 현장 스님의 구법 여정을 듣고 매우 감명을 받아 누이동생과 결혼을 시켜 나라의 큰 스승으로 삼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 스님은 도저히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며 구법의 길을 떠날 것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현장 스님의 큰 뜻으로 자신의 의지를 포기 하고 제자 네 명을 동행하게 하여 나란다 대학에 이르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때 제자 네 명의 이름이 바로 큰 제자 오공, 둘째 제자 오능, 셋째 제자 오정, 넷째 제자 오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여정 중 제자 두 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은 떨어지는 얼음에 맞아서 죽고, 또 한 명은 눈 속에서 동사하여 죽었습니다. 결국 남은 제자는 오공과 오정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팔계는 중간에 합류한 제자입니다. 팔계라는 이름의 뜻은 여덟 가지의 음식을 금한다는 뜻입니다. 저팔계는 원래 사람을 잡아먹고 해치기도 하는 돼지였는데 그러한 것을 모두 금하라는 뜻에서 현장 스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오정은 셋째제자입니다. 사오정의 얼굴 옆에는 아홉 개의 해골을 달고 다니지요. 그 해골 중 하나는 삼장법사의 전생 해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오정이 전생에 현장 스님을 해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이 이생에 사오정을 교화시켜 삼장법사 구법의 길을 잘 인도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장 스님 구법정신 본받아야
환란마다 관세음보살 지혜지력 따를 것
관세음보살 정근 모든 걱정 끊어내
공(空)한 자리에 지혜의 빛 구현

현장 스님과 세 명의 제자는 힘든 역경을 헤치고 나란다 대학에 이릅니다. 현장 스님은 나란다 대학에서 거의 10년 이상 머무르며 불법을 수학하고 인도 여행과 답사를 마칩니다. 이때 현장 스님은 제자를 함께 보내준 고창 고성 임금과 1년 동안 불법을 강의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려고 했으나 이미 임금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나라로 돌아갑니다.

서유기는 현장 스님의 고난과 역경의 구법기행을 담은 것입니다. 현장 스님과 제자들은 81가지 난을 겪는데 이 때 겪는 무수한 일들을 두고 우리 인간들이 겪는 여러 가지 환란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환란마다 관세음보살은 현장 스님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와 가피를 베풀어 줍니다. 관세음보살이 현장 스님을 보호해 주었듯 우리가 살아가며 일어나는 일체 모든 일들은 바로 관세음보살의 지혜지력입니다. 정말 진정한 불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계정혜(戒定慧, 깨달음에 이르려는 자가 반드시 닦아야 할 세 가지 수행) 삼학을 모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 스님의 구법기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말할 때 무엇이 행복하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 중 하나는 수명장수일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오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덕스럽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사후에 연화장세계로 잘 갈 수 있는 것이 오복입니다. 이 오복을 위해 인간 사회는 발전해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처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지요. 네팔 지진, 세월호 사건 등 인생사에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류 문명이 발전해도 마음의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먹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마음은 더 여유로웠던 과거가 더 행복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백년의 사리가 하룻밤 꿈속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00년 동안 살아온 이 인생이 긴긴 산과 같고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만 돌아보면 별 것이 없습니다. 임금 노릇을 해봐도 인생은 대단한 것이 아니며 천하를 놓고 바둑을 두듯 아웅다웅 살아도 결국 바둑 한 판일 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닭장에 든 닭은 당장 제때 먹을 것은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 운명인지 모릅니다. 반면 들판에 노는 학은 일정한 양식은 없습니다만 천지가 자유롭습니다. 먹을 것이 중요하냐 자유가 중요하냐 따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물질적으로 마음껏 누리는 세상이 됐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번뇌가 다 없어진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복을 아무리 밖에서 구해도 삶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일심에 따라 육도 펼쳐진다

오복의 반대는 육극(六極)입니다. 육극이란 여섯 가지의 큰 불길(不吉)로 흉단절, 질(疾), 우(憂), 빈(貧), 악(惡), 약(弱), 인체(人體)의 중요한 여섯 곳 등을 말합니다. 흉단절은 변사(變死)나 요사(夭死)를 비롯해 장수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이상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이 꼭 행복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대왕, 예수, 율곡이이 등 전 세계적인 위인들 중 요절하신 분들은 천하의 할 일을 모두 하고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깨어있는 마음을 내야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이란 갖은 망상에 휩싸여 변죽 끓듯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더라도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닌 병고에 휩싸여 수명만 지속한다면 이것 또한 박복한 것입니다. 육극 중 우(憂)는 근심이 많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근심 속에 삽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농사짓는 일에 그쳤으나 요즘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갖은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생각해야할 것이 많아지고 이에 현대인들은 점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예민이 지나치면 과민입니다. 이 끝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병이 오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걱정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예민해지면 행복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쉼 없이 돌고 돌아가는 걱정의 수레바퀴에서 관세음보살을 찾아 그 고민을 끊어내야 합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념을 잘 살펴 깨어있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업장이 모두 소멸하고 좋은 인연과 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도리어 무심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육극의 하나입니다. 악하게 사는 것, 즉 마음에 덕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박복입니다. 성격은 고치기 어려운 것이라 하지만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격을 바꿔서 업장을 녹여야 합니다. 이를 잘하여 환골탈태하면 번뇌를 바라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어 지극한 원력과 기도지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이에게 좋은 파장을 주며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덕을 갖추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며 인내하여야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약하게 태어난 것도 육극의 하나입니다. 건장하게 잘 태어나면 복입니다. 하지만 완력이 세다고 강한 것은 아닙니다. 천하장사도 힘은 좋아도 무병장수하지는 않습니다. 정신력이 굳건하고 건강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병은 전생 업연에 이어 모든 뿌리가 연결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 병 또한 간절한 관세음보살 정근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길흉화복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일심(一心)에서 육도가 펼쳐집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처럼 마음을 쓰는 것에 따라 부처가 되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도 하며 아귀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업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바라보면 됩니다. 마음은 그 자리가 없습니다.

서유기 현장 스님 제자 '오공'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몸과 마음을 비우고 그 본래 자리를 찾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연은 원래 무상하고 변하는 것이니 이 실체를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견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빈자리에 지혜의 빛이 맑음의 자리를 구현시켜 지혜와 자비가 구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현장 스님의 구법 정신을 본받아 일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헤칠 수 있는 힘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 힘은 관세음보살의 가피지력을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길흉화복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구할 것 없이 정근 하는 한 마음 속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부처님 되길 바랍니다.

대한불교 원융종 중앙종회 해산 및 체탈도첩 대상자 공고

대한불교 원융종은 종권 운영상 중앙 종의회를
현 총무원장이 종정 직무 대행으로 불기 2559 (2015)년 6월 9일부로 해산한다.

체탈도첩 대상자

■ 대천 (임화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궁정사

위 체탈도첩 대상자는

종정예하가 특허 받은 종단마크(별첨1)를 위조모방(별첨2) 하는 등 전체 문도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고 일부 일공 문도회 비상 소집령을내려 총무원장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정예하의 법호인 일字 공字를 일명 (일문회)라 칭하는 (별첨3) 유인물과 같이 함부로 변경하는 모욕적인 행위와 열반이후 장례에 관하여 외부에서 대중모임을 선동하여 종단 총무원장을 음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제7조 5항 종정 또는 중요 교직자에 모욕적 행위가 있는 자. 종단발전을 저해하고 명예훼손 하는 행위(제9항에 해당 채탈 도첩 대상이다.

■ 해운 (백민현)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타원

위 체탈도첩 대상자는

예전 2006년 6월 29일 부산 종무원장 소임을 보며 사문서 위조로 종단 해종 행위를 하여 소임 면직되고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종정예하의 사면으로 복권되어 종단의 중책을 맡고있는 소임자가 자중하지 않고 총무원장을 모욕하는 (종법3장 제7조 5항)행위를 하며 기타 종단발전을 저해하고 명예훼손 하는 행위(제9항)

■ 평신 (이상춘) 경기도 부천시 무애암

위 대상자는 본 종단의 승정원장으로서 품격과 덕망을 겸비하여 종도에게 귀감이 되어야하는 직책으로서 본종의 종풍거양(宗風擧揚)의 표상으로 종단의 신성과 존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 (종헌 15조)를 갖추신 종정예하를 모욕하는 행위 종법(제3장 징계법 제7조 5항과 9항 종단발전을 저해하고 명예훼손을 하는행위에 적용되므로 종헌 종법에 의거 체탈도첩에 처 합니다.
이에 본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의하여 불법 모임을 주동한 해당자 모두에게 보직 해임하는 등 대한불교 원융종 종헌종법 제3장 7조 5항과 9항에 의거 회의장소에서 본인들에게 선포하고 종도에게 알리며 선포문을 배포하여주고 체탈 도첩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체탈도첩 대상자는

종법 상벌 법 제 3장 징계 제 6조

1항
• 승적을 삭제하고 도첩 및 승려증을 회수한다. 체탈 도첩을 받은 자는 복적(復籍)이나 재 득도(再 得度)를 할 수 없다.

3항
• 법계원부를 삭제하고 법계증서를 회수한다.

불기 2559년(2015) 6월 9일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裵 鎭 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뜸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GMP)인증

편안하게 배에 차기만 하여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이열치열 : 여름철은 뱃속이 더욱 냉합니다. 본제품 사용으로 뱃속의 냉기를 몰아내면 배탈없이 건강하고 상쾌한 여름을 보낼실수 있습니다.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헬스온열복대는 금강약돌 바이오세라믹 육각거북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도 화상 없이 신체 깊은 곳까지 강력한 원적외선 이 방사되어 원적외선"열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 다 복대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숙변배출효과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 관절, 전립선, 혈액순환 조절, 산후조리 오로배출효과 , 소화불량, 숙취, 체질개선,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대하등을 자연치유 시키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시간 사용시 하복부에 탄력를 주는 다목적 뜸온열밸트입니다.

온열복대 사용후 : 일주일 정도는 평상시 보다 대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문의전화_ 02.723.0099 입금계좌_ 국민 095037-04-002448 금강의료기

"구제품을 가지고 계신 교우님께서는 **보상판매**를(신제품교환) 받아 사용하세요."

구증구포법, 초의선사 다법인가?



"구증구포, 19세기 남도사찰서 성행
송광사 연해적전, 초의 제자에게 수계"

최석환 선차문화연구회장

"구증구포는 '정성' 의미
초의 〈동다송〉 〈다신전〉에도 언급 없어"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최석환 선차문화연구회장 주장에 차계 논란

초의 스님의 다맥(茶脈)이 송광사로 이어졌으며 그 제다법이 아홉 번 쪄서 아홉 번 말린다는 '구증구포(九蒸九曝)' 라는 주장이 제기돼 차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석환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 회장은 6월 6일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다맥의 재발견' 학술세미나에서 초의선사의 다맥이 송광사로도 이어졌음을 밝히고 그 다맥을 이은 연해적전 스님의 제다법이 구증구포법임을 주장했다.

"송광사의 '구증구포' 는 초의다맥"

최석환 회장은 '연해적전의 생애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선차문화 재발견' 논문에서 "연해적전 스님을 통해 드러난 송광사 다풍은 120년간 은밀히 전해졌다. 초의, 범해, 금명, 연해로 이어진 다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근래 대구 관음사 원명 스님에 의해 드러난 연해적전 스님이 금명보정 스님으로부터 대승보살계를 수지한 내용은 초의 다맥이 연해적전을 통해 송광사에와 닿은 것을 의미한다. 대흥사가 초의다맥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지만 금명보정 선사로부터 다맥을 이어온 연해적전 선사의 등장으로 해남 대흥사 다맥과 더불어 송광사 다맥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연해 적전(蓮海寂田, 1889~?) 스님은 1889년 4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33세 때 송광사 담허품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27년 4월 초의 스님 제자인 금명보정 스님으로부터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았다. 특히 43세 때인 1931년 송광사 삼일선원 원주를 맡으면서 금명보정 스님으로부터 제다맥을 이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특히 연해 스님의 제다법으로 구증구포법을 들었다. 최 회장은 "차를 가마솥에 아홉 번 반복해서 넣었다가 내는 구증구포 제다법이 산사를 중심으로 은밀히 전해졌다"며 "이유원의 〈임하필기〉에 19세기 성행한 증거 있으며, 1929~1945년 송광사에 주석하며 다송자 금명보정 스님의 제다맥을 이은 연해적전 스님을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연해 스님의 음다법이 찻잎을 달여 마시는 전다(煎茶)가 아닌 찻잎을 말려 가루 내어 끓여 마시는 점다(點茶)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조선에 점다법이 사라진 것은 고려왕조가 멸망하고 이성계에 의해 조선왕조가 건립되면서 자연스레 점다법에서 전다법으로 바뀌었다"며 원명 스님의 증언 등을 근거로 "그 점다법이 남도의 산사마다 전해진 것은 한국 차문화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말했다.

"수계 제자, 다맥 평가는 무리수"

이에 대해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구증구포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연구소장은 "만약 연해 스님이 다송자 금명보정 스님의 다법을 받았고 다송자가 범해에게 범해가 초의에게 전승받은 제다법이라면 동다송과 다신전에서 논해진 제다법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소장은 "더구나 구증구포는 제다법의 원리상 그 전거가 없다"며 "구증구포는 근래 정민 교수가 발굴한 이유원의 자료에서 다산이 구증구포 방법을 승려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기록이 유일하다"며 "이를 근거로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제다법이 구증구포의 비방을 가진 것으로 오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소장은 또 "연해 스님이 계를 받았다고 해서 초의다맥을 이었고 그로인해 연해 스님의 구증구포 법이 범해 초의 스님에서 연유된 것이란 논리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소장은 "이미 범해 스님은 초의차라는 시를 지어 초의 제다법의 실체를 구체화했고, 이는 동다송이나 다신전의 제다법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박 소장은 "구증구포의 9는 합리적인 원리에 규합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뜻도 있어 절차상 9번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임종욱(진주교대) 평론가가 '조선후기 다도의 중흥조 초의 스님의 다도사적 위치',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의 '범해 각안의 선사상과 다사상' △송광사 현봉 스님의 '금명보정의 종통과 다풍' 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울산 영축사지서 고려 청동시루 출토돼

공양물 만드는 용도 사용, 금속제 중 最古



울산 영축사지 고려 청동시루

울산 영축사지에서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시루가 출토됐다. 이번에 출토된 청동시루는 완벽한 형태로 발견된 것중 가장 이른 시기의 금속제 시루다. 청주 사뇌사지 청동시루가 출토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파손된 바 있다. 청동시루는 사찰에서 불교 의식 때 떡이나 밥 등을 쪄서 불전에 바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박물관 사적조사팀은 6월 8일 울산 영축사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출토된 청동시루의 크기는 높이 24㎝, 입 지름 42㎝, 바닥 지름 37㎝로 몸체는 원통형이며 구연부(口緣部)는 살짝 벌어지고 동체부 중간 지점에 두 개의 손잡이가 달렸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고려시대의 청동시루가 출토된 예는 극히 드물다"며 "이는 대부분 흙을 빚어 만든 토제시루가 일상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바닥 부분의 형태가 완벽하게 남아 있어 보존과 연구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청동향로는 높이 25.7㎝, 바닥지름 23.5㎝ 크기로 세 개의 다리가 달린 원형 받침 위에 향로의 몸체가 얹혀있는 형태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장식이 화려하다. 청동완은 청동대접으로 땅에 묻힐 당시 청동향로의 뚜껑으로 전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름 15.5㎝, 높이 9.5㎝로 굽 부분이 약간 손상됐다.

노덕현 기자

韓, 몽골지역 불교사원 보존관리 나선다

한국이 보존위기에 처한 몽골 고대 불교사원을 보존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강순형)와 몽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센터(센터장 갈바드라흐 엥흐바트)는 6월 9일 몽골 문화유산센터에서 '몽골 고대 건축유산 공동 조사연구'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몽골지역 건축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9년까지 5년간 3차원(3D) 스캔과 실측, 건축양식 조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기술 전수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양국 언어로 된 조사연구 보고서와 디지털 자료로도 공개된다.

1차 년도인 올해는 몽골 수도에서 50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아르항가이(Arkhangai)에 있는 고대 불교사원(Uuld Beis in Ulziit soum)을 조사한다. 이곳에는 1797년에 건립된 티베트 양식의 불교사원이 남아 있다. 총 3동으로 이뤄진 이 사원 본당은 목조로, 부속건축물은 목조와 벽돌을 혼합해 지어졌다. 1937년에 폐사된 이후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 축사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내용은 주 건축물에 대한 3차원 입체영상 스캔과 실측,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사원의 건축양식과 기법 등에 대한 현장조사 등이다. 조사단은 우리 측 연구자와 몽골 측 연구자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조사기간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이다.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올 하반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될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CPCS)' 과정에 몽골 측 연구자가 참여해 3차원 스캔과 관련한 기술교육과 공동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서구 화풍 반영한 괘불, 근대문화재로

서양기법 도입한 근현대 불교문화재 승격 가능성 시사



고양 대성암 괘불도

근대 서구화풍이 반영된 괘불도가 근대 문화재로 등록 예고되 눈길을 끈다. 근대 화승인 성엽 스님의 대표작품인 대성암 괘불도가 그 주인공으로 서구기법을 도입한 불교문화재도 향후 문화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자료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6월 10일 '고양 대성암 괘불도' 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괘불도는 가로 305㎝에 세로 553㎝의 대형크기로 1928년 향암 성엽(香庵 性曄) 스님이 제작했다.

성엽 스님은 20세기 초반 공주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스님으로 계룡산 화파로 불린 당시 주류화맥인 금호당 약효 스님의 제자 중 한명이다. 약효 스님은 186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50년 넘게 불화를 그리면서 수많은 불화가를 양성했다. 약효스님과 그의 제자들은 전통적 불화기법을 따르면서도 서구 화풍으로 대변되는 음영법 등 서양화법 수용에도 적극적인 것이 특징이다.

대성암 괘불도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있다. 신체 윤곽선에 음영을 주고 중앙 본존불 법의(法衣)에도 윤곽선을 먹으로 그은 후 선을 덧대어 입체감을 살렸다. 채색은 황색, 주황색, 청색, 흰색 등 근대기 불화에 많이 사용된 색상을 사용했다.

괘불도 전면에 삼존불을 내세웠고 그 뒤쪽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그려 화면에 꽉 차게 담은 간단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상단 좌우에 천으로 만든 복장낭(腹藏囊) 2개가 달려있다. 복장낭은 불화를 조성한 뒤 불경(佛經) 등 복장품을 넣는 주머니로 20세기 전반 괘불 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강렬한 안료의 색감과 음영법, 독특한 문양 등 당시의 화풍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근대기 충청지역 중심 화파의 특징이 잘 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硏, 6차 학술발표회

6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소장 법안)는 6월 27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제6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강소연 홍익대 겸임교수의 '수륙불화에서의 왕생 과정의 회화적 표현' △최성규 밀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의 '조선조 수륙불화 도상의 사상적 배경' △정기선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의 '스리랑카 불치사의 일상 공양의례'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컴퓨터 공학자, 붓다에게서 길을 찾다!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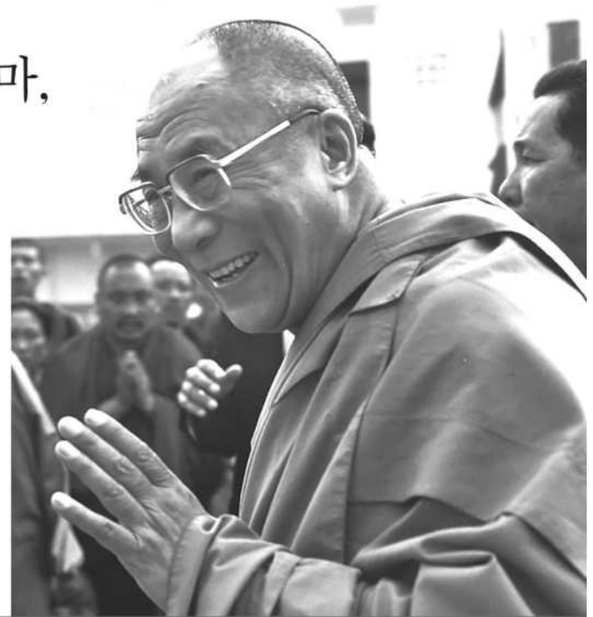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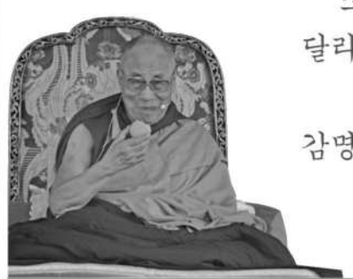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을 계승한 저자가,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에게서 미래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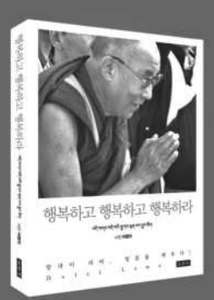
지승도 저/신국판/284쪽/15,000원

사진으로 만나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말씀!





소박하고 인간적인
달라이 라마의 모습과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는 가르침을
담은 책!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20여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의 수행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온 작가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가르침을 한데 모아 엮었다.

이영자 사진/국판변형/전면컬러/280쪽/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충북도, 불교 성지 관광코스 개발한다

6월 1일 불교전문여행사 관계자 팸투어 진행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충북지역 불교 성지를 활용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충청북도청은 6월 1일 불교전문여행사 관계자 10명을 초청해 1박2일 일정으로 도내 대표 사찰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들은 2일까지 보은 법주사와 영동 반야사, 충주 석종사, 단양 구인사 등 템플스테이 사찰 4곳과 주변 관광지인 영동 컨츄리와인과 단양 다누리센터 등을 둘러봤다.

충청북도는 2015년 말까지 여행사를 초청한 성지순례 코스 팸투어를 추진하고

앞서 천주교 순례 상품 성공해

보은 법주사-구인사 등 연결코스

종교방송 · 신문 등 매체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보은 법주사와 영동 반야사, 충주 석종사, 단양 구인사다. 모두 템플스테이 사찰이다.

충청북도 내에는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1명인 난계 박연(朴堧 · 1378~1458)의 고향인 영동의 국악체험촌, 국내 최대의 민물고기 수족관인 단양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 등의 문화요소가 많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충청북도는 성지 순례와 도내 주요 관광지, 먹을거리 등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충청북도는 2014년 가톨릭 성지순례 코스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지난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음성 꽃동네 방문을 계기로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이 결과 지난해 가을 관광주간에 2만 1000여명이 교황 방문지인 음성 꽃동네와 음성 감곡 매괴성당, 진천 배티성지, 괴산 연풍성지, 제천 배론성지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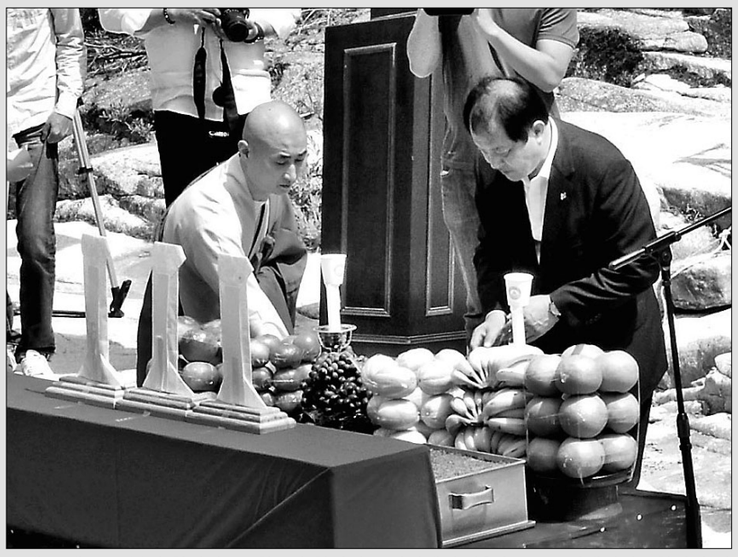
또 이 상품은 필리핀 톱 배우인 제시 멘디올라가 출연한 필리핀 민영방송 ABS-CBN에도 실리기도 했다. 이에 155명의 필리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고, 외국인 744명이 패키지 관광상품을 활용해 가톨릭 성지를 둘러봤다.

이익수 관광항공과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양한 종교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에 성지순례가 인기"라며 "성지순례 관광코스 개발과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서산 부석사 '공양청' 사찰음식 대잔치

서산 부석사가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사찰음식 대축제를 열어 화제다.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는 5월 30일 사찰 경내에서 서산 시민과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제3회 행복한 서산 향기로운 부석사 사찰음식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음식잔치에서는 세계 각 나라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경연대회를 열고 시식을 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경연대회에는 중국과 태국, 몽골, 베트남 등의 전통음식이 만들어졌으며 중국의 탕수완자 요리가 우승을 차지했다. **노덕현 기자**

월정사 "부처님의 가피로 단비를"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6월 9일 월정사 금강연에서 '우순풍조 · 민생치안 · 월정사 기우제'를 개최했다.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자 종교계에서도 가뭄 극복을 염원하는 '기우제(祈雨祭)'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6월 9일 오후 월정사 금강연에서 '우순풍조 · 민생치안 · 월정사 기우제'를 봉행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심재국 평창군수, 유인환 평창군의장을 비롯한 신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독송과 헌화 · 헌다, 봉행사, 발원문 낭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념 스님은 봉행사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메르스 전파 등은 우리의 방일한 환경의식에 대한 공업(共業)의 인과"라며 "오늘 기우제의 간절한 발원으로 모든 대중의 우환과 고통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종교계도 가뭄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역 종교가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강원종교평화협의회(대표회장 신관우 목사)는 6월 11일 월정사에서 제16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종교인들은 결의문에서 "강원종교평화협의회는 극심한 가뭄해갈을 위해 노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물을 아껴 쓰고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과 자연재해, 환경문제 대처 등에 솔선수범하겠다"고 결의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생명 · 평화 모내기 체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 4기 30여 명이 6월 6일 지도교사단과 함께 생명 · 평화 모내기 체험을 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지역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명평화와 사랑의 실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주시 외곽지역에서 진행됐다.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4기 단원들은 이날 힘든 노동과 생명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하고 새참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모를 심었다.

체험행사에 참여한 실천단원들은 모심기 체험 후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하지를 배웠다고 입을 모았다.

김주미(이리여고 1학년) 학생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체험에 논에 벌레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고 망설여졌는데 처음에만 불편하고 나중에는 모심기에 열중하게 되었다"며 "실천단 모심기를 통해 생명평화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엄태호(전북제일고 1학년) 학생은 "체험활동이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논 400평을 다 손으로 모심는걸 보고 기계가 없던 시절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며 "쌀 한 톨도 아까워하고 농부들의 수고와 감사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천단원들은 모심기를 끝내고 모악산 금산사를 찾아 캠핑장에서 식사 후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이 심은 모는 가을 벼베기 체험을 거쳐 시민단체를 통해 연말 불우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단원들이 6월 6일 모내기를 하고 있다.

전북 불교계, 메르스로 종교활동 난항

전북 순창, 김제에 이어 10일 전주에서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전북지역의 불교계에도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11일 현재 전북지역에는 3명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해 총 734명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중 병원격리자 9명, 자가격리자 633명, 능동감시관리자 92명으로 전북 전지역에서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확진환자 발생한 순창 장덕마을에 위치한 장덕사(주지 청암)는 최근 종교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마을 전체가 출입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사찰 운영 자체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와 함께 11일 예정됐던 선운사 선운골 어울림 한마당도 같은 이유로 취소됐다. 또 21일로 예정됐던 외국인 노동자 체육대회도 가을로 연기됐다.

이밖에 송광사의 금산고등학교 템플스테이가 취소되는 등 전북 지역의 템플스테이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13일 금산사와 선운사가 공동주최하기로 예정됐던 전북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주최측은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과 장년층의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불교계, 네팔 지진 피해 돕기 나선다

광주 불교계가 네팔 지진 피해지역을 위한 돕기에 나섰다.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 상임이사 혜공)는 6월 10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부터 모금한 6000여 만원을 네팔지진 피해민을 위한 지원을 진행한다.

광주지역 사찰, 불교단체, 광주전남불교NGO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모금행사는 광주지역 처음으로 단일창구를 이용한 공동모금으로 진행됐다.

혜공 스님은 이번 지원에 대해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인들을 위해 광주지역 많은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주었다"며 "작은 힘이나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소중한 복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지원에 대해 문영배 기획팀장은 "네팔의 현지상황에 맞게 긴급구조의 상황이 마무리 되고 2차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원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지정기탁은 일부단체에서 기부한 금액을 아름다운동행, 지구촌공생회, 더 프라미스, 네팔 고아원 등에 전달되며, 직접지원은 광주지역 불교외국인단체와 공동으로 6월 말에 네팔 고르카와 신두발촉지역을 방문해 피해가구에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한다.

특히 이 두 지역은 광주에 근무하는 일부 네팔인들의 고향으로 이번 지진을 통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실크로드 통해 한국 전래 문화 이해"

아시아의 불교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강연회가 개최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6월 10일 '실크로드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민병훈 前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특별강연은 광주박물관에서 8월 2일까지 진행하는 특별전인 '아시아의 불교미술-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강연이다.

민병훈 부장은 이날 "중국중심의 고대문화가 아니라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 문화교류의 보편적 흐름을 이해하고, 특히 경주를 포함한 한국의 문화의 중심지역에 전래된 문화를 이해해야 고대의 문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소신공양 충담 스님 추모 영산재

1998년 남북통일과 불교계 화합 등을 발원하며 소신입적한 태고종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 17주년을 맞아 추모 영산재가 가평 감로사에서 열린다.

충담 스님은 17세에 북한산 승가사에서 출가했으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중생 제도,불교계 화합 등을 발원하며 지난 1998년 6월 호명산 감로사에서 결가부좌한 채 소신공양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님 재세시 생활했던 곳으로 부도를 이운하는 봉안식도 함께 진행된다.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은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은 화중생연을 피우고 육신등공한 높은 뜻"이라며 "그 뜻을 이어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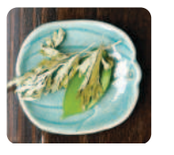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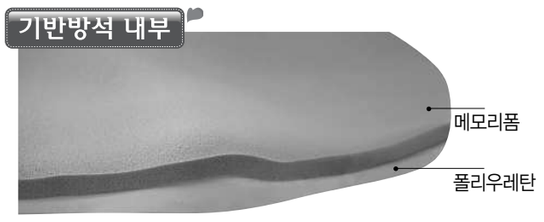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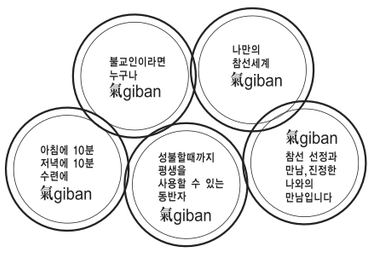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관자재 보살의 마음으로 치료합니다”

정수사 원광 스님, 관자재 재활전문요양병원 개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
최첨단 기술 동원 건물설계
지역민 위한 자비행 서원

환우들을 정성으로 보살피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실천해 포교에 앞장설 불교병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평창 월정사 말사 부산 정수사 주지 원광 스님은 5월 11일 부산 연산동에 재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관자재요양병원을 개원했다.

관자재요양병원 이사장 원광 스님은 6월 9일 “부처님의 자비를 배우고 자비 실천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병원 이름을 관자재라고 했다”며 “현대화되고 차별화된 공간으로 환우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전문 인력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곧 자비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문을 연 관자재요양병원은 연면적 5800㎡으로 지하 1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재활의학, 가정의학,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한방침구과 등 다양한 전문 치료로 재활을 돕는 요양병원이다. 특히 병원 내 규모에 비해 병실 병상을 287개로 한정해 이익보다는 환우들의 움직임 동선과 쾌적함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관자재요양병원은 특히 병원을 찾은 환우들을 위한 전문 치료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 및 우울 방지 등 환우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병실과 휴게시설을 모두 정남향으로 배치해 채광이 뛰어나도록 했으며 자칫 지겨울 수 있는 물리치료를 위해 2층 물리치료실을 통유리를 설치해 외부와 소통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활치료를 목표로 찾는 환우들이 많을 것을 예상해 물리치료실에 종교실을 마련했다. 환우 뿐 아니라 가족들이 부처님을 뵙고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식사를 마련하는 조리실을 병실보다 상층에 두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 금식을 해야 하는 환우들을 배려했다. 식당 옆에는 하늘정원을 마련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휴식을 취하며 직접 상추와 고추를 키우며 어릴 적 추억을 돌아보도록 했다.

이날 원광 스님 무엇보다 환우들을 위한 건강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병원 내 환기에 가장 신경을 썼다.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다”며 “접근이 용이해 가족들의 면회가 편하고 마음을 위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울감을 방지하며 또한 병을 치료하는 전문성 까지 최고로 마련해 정성을 다하는 병원이 곧 포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병원을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 스님은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스님인 자신에게 개종을 권유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다”고 했다. 특히 “그 때 당시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전무해 임종을 앞둔 불자들과 스님들이 타종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지막 모습을 맞이하는 것을 보며 전문화된 불교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효능원을 운영하며 등급에서 제외된 소외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을 줄 창구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5월 11일 개원한 관자재요양병원 이사장 원광 스님이 병상을 둘러보며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

앞으로 원광 스님은 관자재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1층 무료 카페 공간을 지역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정수사 무료급식을 7월 중에 다시 재개하며 또 사회복지법인 효능원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연제구 사암불교연합회 회원들과 포교에 더욱 매진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일체 환자들을 위해 회향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원한 관자재요양병원은 2011년 부산 금정구에 문을 연 관자재요양병원에 이어 두 번째 개원이다. 금정구에 있는 관자재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운영과 치료로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 연산동 관자재요양병원 외부 모습

하성미 기자

대구 · 경북 ‘팔공산 둘레길’ 조성한다

대구 · 경북도 등 8일 업무협약… 108km 숲길 조성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팔공산의 아름다운 자태와 생태환경, 문화,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숲길을 공동으로 조성한다. 경북도와 대구시 등은 6월 8일 대구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앞 분수대 앞 공연장에서 ‘팔공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팔공산 둘레길 조성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황이며 2018년까지 향후 4년간 90억원을 들여 팔공산을 순환하는 총연장 108㎞의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레길은 총 16개 코스로 구성되며 은해사, 팔공산 석굴암, 부귀사, 약사암 등이 둘레길 코스에 포함돼 불교를 알리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7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둘레길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협력한다. 또 기반시설 조성 및 연계협력사업 지속 발굴 지원,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활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협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대구 · 경북 지역 간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구 · 경북의 상생협력은 지역민들의 교류 확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팔공산 둘레길 노선안

구 간	코 스	행정구역	연장(km)
1	팔공문화원~용수교	대구 동구	4.5
2	용수교~내동마을	대구 동구	3.1
3	내동마을~덕곡삼거리	대구 동구	7.9
4	덕곡삼거리~대왕재	대구 동구, 경북 칠곡군	5.4
5	대왕재~가산산성 진남문	경북 칠곡군	6.1
6	가산산성 진남문~윗산당마을	경북 칠곡군	10.4
7	윗산당마을~팔공산석굴암	경북 칠곡군, 군위군	9.5
8	팔공산석굴암~가호2리	경북 군위군	7.3
9	가호2리~치산관광지	경북 군위군, 영천시	8.9
10	치산관광지~부귀사	경북 영천시	7.7
11	부귀사~신원리캠핑장	경북 영천시	5.0
12	신원리캠핑장~은해사	경북 영천시	8.2
13	은해사~약사암입구	경북 영천시, 경산시	6.5
14	약사암입구~우정식당	경북 경산시	5.7
15	우정식당~갓바위 만남의광장	대구 동구	3.8
16	갓바위 만남의광장~팔공문화원	대구 동구	8.5
팔공산 둘레길 총 연장			108.5

권영진 대구시장은 “상생협력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를 아우르는 팔공산둘레길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시 ·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간의 교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천태전법도량 정법사, 중창불사 회향 법요식

6월 8일, 설법보전에서 3000여명 참석

천태종 부산 정법사(주지 도진)가 부산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천태전법 도량으로 거듭났다.

정법사는 6월 8일 정법사 설법보전에서 중창불사 회향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중창불사 회향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덕 스님, 공한수 부산시의원, 이영숙 부산불교연합회 고문(코모도호텔 대표)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해 중창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중창불사 회향법요식에서 도용 스님은 “고해중생 건지시려 부처님은 오셨으니 가람을 건립하여 크나큰 기쁨 속에 맞이하는구나. 다만 깨끗한 마음 지극한 정성으로 거룩한 삼보님께 정례를 올려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은 부산 정법사가 2008년 창건 이래 가장 큰 경사를 맞이했다”며 “장엄한 중창불사가 있기까지 발심과 원력으로 정진해오신 주지 도진 스님과 신도회 간부님,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 드린다”고 격려했다.


천태종 부산 정법사는 6월 8일 설법보전에서 중창불사 회향법요식을 봉행했다.

천태종 부산 정법사는 지난 2008년 10월 부산 서대신동에 위치한 지상 5층의 연면적 3,895㎡(1180평) 규모의 학원 건물을 매입하고 정법사 불사를 추진해왔다. 당시 약 264㎡(80평) 규모의 법당이 들어선 4층을 제외하고 다른 층은 입시학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후 정법사는 2013년 10월 14일 중창불사를 시작으로 부처님 존상 이운식, 2014년 6월 불상 및 상월원각대조사 진영을 3층 관음전으로 이운했다.

2014년 10월 24일 4층 대법당에 3400불을 조성한 정법사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대가람 불사가 진행된 상태로 부산 서구와 중구, 영도구 신도들이 주로 찾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산 대명여고 ‘We Love 내성천’ 퍼포먼스

부산 대명여고 학생들이 지율 스님의 환경 보전의 뜻에 동참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6월 5일 UN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대명여고 전교생은 학교 운동장에서 ‘WE ♡ 내성천’ 문구를 만드는 '제22회 환경축제'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내성천의 환경보존을 위한 서명 운동 및 ‘현명한 소비가 70억의 인구를 살린다 (Seven Billion Dreams. One Planet. Consume with Care)’는 슬로건을 주제로 환경 OX퀴즈 대회, 알뜰장터, 환경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점심시간 및 5, 6교시를 이용해 행사를 진행한 전교생 1000여명은 학교 내에서 진행된 지율 스님의 ‘수그림 전시회’와 ‘내성천 생태도감’의 저자인 박은선 작가의 초청 강연에도 참석해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지율스님은 “낙동강을 맑혀온 내성천이 영주댐 공사와 환경 파괴로 인해 그 역할을 잃고 있다”며 “이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에게도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서운암 ‘제3회 하늘꽃 천연염색 축제’

자연의 색을 담은 천연 염색의 화려함이 산사를 물들였다. 통도사 서운암(감원 동진)가 제3회 ‘하늘꽃’ 천연염색 축제를 6월 6일~7일 서운암 장경각에서 진행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노천문도회장 성파 스님, 이수성 전 국무총리, 윤영섭 국회의원과 서운암 천연염색반 회원 100여명 및 전국에서 찾아 온 동회회 및 사진작가 회원 1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염색장인 정관채가 진행하는 천연염색 퍼포먼스 진행 후 1000여명의 관객들이 함께 동참해 포퍼먼스를 재연하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어 특별공연으로 백성스님의 전통무 오방춤이 선보였다.

서운암 감원 동진 스님은 “천연염색 축제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허위나 가식 없이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며 “자연과 색감의 어우러짐을 통해 새로운 맛을 연출해내는 축제에 오심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

복지

한국불교 복지 70년

1990년대부터 폭발적 증가세…

복지(福祉)는 국어사전에서 '행복한 삶'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복지의 영역(英譯)인 'Wellfare' 의 역시 '잘(Well)' 과 '살아가다(Fare)' 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가 탄생하면서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가지는 의무가 됐고,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진다.

근대 이전인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국가가 백성에게 구휼하는 형태로 복지가 이뤄져왔다. 특히 한국으로 전래돼 삶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불교도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복지를 진행했다.



불교계 최초 공익기부재단인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2008년 9월 출범했다. 불교 사회복지 사업은 2000년 이후 기부문화 활성화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성과를 보였다.



장애인 복지의 선두주자 승가원의 떡국 나눔 모습. 불교계 복지사업은 편중성이 심해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

고려시대 사찰은 적극적으로 빈민 구제 사업이나 이를 예방하는 사업, 여행자를 보호하는 사업까지 다양했다. 〈고려사〉에는 연복사와 개국사 등에서 구호사업을 전개한 사례들이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 불교는 조정과 사대부로부터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사찰의 사회적 기능이 점차 축소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사찰이나 승려 개인적 차원에서 활동한 사례들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태종 6년(1406)에 천노 출신이었던 장원심(長願心) 스님이 있었다. 〈태종실록〉에 나타난 장원심 스님의 활동 기록을 살펴보면 스님의 자비행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장원심 스님은 기근자를 보면 꼭 먹을 것을 빌어먹이고, 자기의 옷을 벗어 입혀 주었으며, 앓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힘을 다하여 구휼했다고 한다. 또한 도로와 교량을 만드는 사업에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는 갈 곳 없는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을 사찰에서 보호하는 형태로 명맥이 이어진다.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불교는 근대식 복지를 구현하기 시작하며, 불교복지시설의 설립 시도도 이뤄진다.

특히 아동 보호 시설이나 청소년 강습소 등이 주류를 이뤘다. 1925년 능인포교당은 능인유치원(원아 62명)를 설립했고, 월정사 영월포교당은 금성유치원을 설립 · 운영했다.

의료 복지를 위해 1923년 불교중앙포교소에서 불교 최초 의료기관으로서 불교제중원을 만들었으나 재정난으로 1925년 폐쇄되기도 했다.

해방 혼란과 불교복지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한국 사회는 크게 혼란을 겪는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과 고아 등 요보호자와 빈민이 급증했다. 미국 등 외국의 원조가 이어졌으며 복지기관들도 진출했다. 실제 1950~60년대 내한한 기관은 모두 96개로 당시 복지기관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시기 불교계의 복지 사업은 재정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한다. 다만 원력있는 스님과 사찰이 나서서 복지 기관을 운영하면서 명맥이 유지된다. 특히 전후 상황에서 고아들을 수용하는 아동복지가 두드러졌다.

해방 이후 최초로 설립된 불교아동복지시설은 1946년 설립된 혜명보육원이다. 이어 1947년 자선원(천안 금주사), 1949년 자혜원(수원 용주사), 1954년 장흥 광명보육원이 설립됐다. 1960년대에는 서애원(1960), 경주대사원(1963), 의정부 쌍암사 보육원(1968), 대한불교보현회 파평자애원(1968), 대각사보육원(1969)들이 개원해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았다. 1970년대부터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불교 관련 아동 복지시설 설립은 잠시 주춤한다.

80~90년대 복지사업 성장과 불교

1950~60년대가 전후 혼란을 수습하는 시기였다면 1970년대는 경제 발전의 시기였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정책적으로 이뤄진다. 1981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 4대 지표를 내세웠고 복지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수정 · 제정하게 된다. 1988년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으로 빈부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제6공화국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상당 수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켰다.

고려 · 조선 사찰, 구휼 중심 복지
일제 당시 근대 복지 구현 힘써

현대 들어 국가가 복지 정책 주도
민간 복지기관 · 법인 등 설립돼
불교복지, 20년 간 빠른 양적 성장
생명나눔 출범… 장기기증 '새 장'
국제구호 · 기부 활성화 영역 넓혀

복지시설 다수 노인 분야에 치중
다양한 소외계층에 관심 가져야

당시 개정된 복지 관련 법률은 모자복지법을 비롯해 영유아보호법, 의료보호법,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교계의 복지사업도 활성화된다. 실제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불교 사회복지시설 958개를 시기별로 분류했을 경우 1970년대까지 설립된 복지시설은 2.2%에 불과하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6%로 증가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2000년 이후 설립된 복지시설은 현재 복지시설의 60%이상으로 조사됐다.

굵직한 복지관련 불교 법인들이 설립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복지영역을 개척하던 스님들이 1989년 범종단적 불교복지 추진기구인 '불교사회복지회' 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故노천당 월하 대종사는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 법인인 '통도사 자비원' 을 1991년 교구본사 최초로 설립했다. 대종사의 원력은 당시 취지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발기인들 명의의 취지문에는 " 불교의 자비 이념을 바탕으로 널리 이 땅에 고통받고 버림받은 이들을 종교적 환경 속에서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경노효친 정신과 불교 효자경 및 부모 은중 사상의 실천도량이며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의 사회복지 시책에 부응하여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보다 널리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국민복지 증진사업에 주력하고자 한다" 고 기술돼 있다.

이 같은 대종사의 자비 사상은 지난해 열린 '월하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세미나' 에서 발표된 이혜숙 금강대 교수의 발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교수는 '월하 스님과 불교 복지, 그 회고와 전망' 이라는 논문을 통해 "복지에 일찍 눈뜨지 못했던 불교계의 상황에서도 월하 스님은 일찍이 복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아낌없는 후원을 해 왔다" 고 평가했다.

스님의 개인 원력으로 세워진 복지 법인들도 하나둘 출범했다. 1989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1994년 삼천사 성운 스님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 한국 사회복지계를 선도하고 있다. 1994년 3월 생명나눔실천본부도 설립돼 장기기증 캠페인을 사회적으로 확대했다. 1995년에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1998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문을 열고 불교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한 복지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종단들이 복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95년 이후다. 조계종의 경우 1994년 종단 개혁이 그 시발점이 됐다. '종단개혁불사 백서' 에 따르면 개혁회의는 각종 공익단체, 문화예술진흥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사업, 승려노후복지원, 불교사회복지법인 등을 설치할 것을 종헌에 명시했고 개혁종단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취임과 동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을 전개했다. 당시 월주 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기금으로 20억 원을 조성해 노동 · 인권 · 복지 · 통일 사업 등에 투입했다.

1995년 2월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최초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복지사업에 뛰어들었다. 복지재단은 1995년 6월9일 창립법회와 함께 '지방자치시대와 21세기를 대비한 불교계 사회복지' 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운영과 복지활동이 미진한 이유를 사회복지 전문가 부족 때문으로 진단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까지 복지재단은 187개소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5200여명의 사회복지활동가와 10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양성돼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종단 개혁이 가져온 순기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진각종은 1998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을 출범시켰다. 현재는 노인 · 장애인 · 한부모 가정 · 아동 보육 시설 등 40여 개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천태종은 1999년 천태종복지재단이 설립됐다. 사업으로는 단체지원사업, 결연사업, 특별지원 및 자비의 이웃돕기사업 등을 하고 있다. 4곳의 노인복지시설과 5곳의 노인요양시설, 2개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10곳의 아동보육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불교계의 복지 사업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조계종은 자체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시설 위탁을 적극 추진해왔다. 1980년대까지 개신교, 가톨릭에 못 미쳤던 복지 사업 역량이 20여 년만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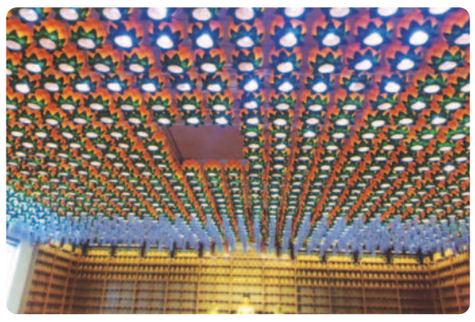
실제 2012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불교계의 복지시설은 1995년 95곳에 불과했으나 20년 만에 1065곳으로 증가했다. 약 11배가 증가한 것이다. 개신교는 1633곳, 가톨릭은 1043곳, 원불교 190곳을 운영 중이다. 단순히 복지시설 숫자만으로 종교별 수평적 비교는 어렵겠지만, 불교계의 짧은 사회복지 참여 기간을 참조할 때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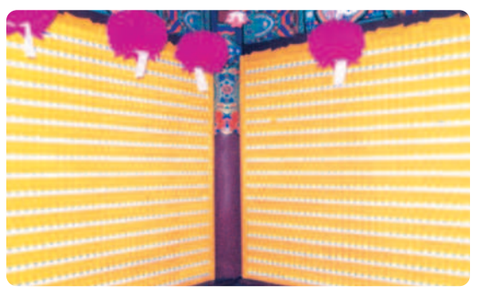
기부 · 스님 연수로 이어진 자비원력

2000년대에 오면서 불교 복지 역량은 기부 문화와 국제구호로 이어진다. 기부문화 활성화에서 가장 큰 족적은 전문 기부 모연 기관의 설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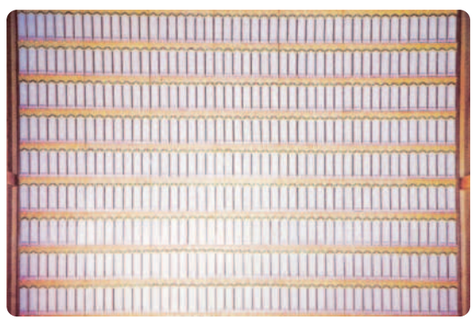
조계종은 2008년 3월 '아름다운동행' 발기인 총회를 갖고 설립 절차에 들어가 9월 30일 창립법회를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제 월

제 월



월



불 불 불

복지
한국불교
복지 70년

보시·동체대비 실천 '자비나눔'



2007년 로터스 월드의 BWC 다목적 센터 기공식. 불교계 국제 구호는 1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지지만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긴급구호봉사단이 네팔 대지진 현장에 투입돼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이 공로자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 기증이라는 새로운 복지 분야를 개척해왔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이 법인산하 어린이집 원아를 안고 웃어 보이고 있다. 인덕원은 삼천사를 설립주체로 법인을 설립해 20여 년동안 노인 · 아동 · 지역복지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왔다. 현재 인덕원 산하에는 각분야 28개 시설이 운영중이다.

봉행했다. 아름다운동행은 기부 문화 확산을 확산시키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소외 계층과 각종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진행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이같이 기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불교계에서 설립된 것은 아름다운 동행이 처음이다.

초대 이사장인 故지관 스님(당시 총무원장)은 창립법회에서 "그동안 조계종은 종교와 이념, 인종과 국가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하고자 사회 공익활동을 펼쳐왔다"며 " '아름다운 동행' 을 시작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공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상임이사였던 세영 스님도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불교에는 보시라는 기부문화가 있음에도 체계적인 기부시스템이 없었다. 보시문화가 기부문화로 자리잡는 데 주력하겠다"고 원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같은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현재 아름다운동행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조사, 정책 연구 △사회복지모금사업 △재난 구호 등 인도적 지원사업 △민족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소외 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고고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스님들의 연수 교육기간 동안 봉사 등 복지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자비를 실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조계종의 경우 승려 연수과정에 자원봉사활동 과정을 넣어 최소 12시간 이상을 자비실천에 진력하도록 했다. 이런 좋은 취지 때문인지 여기에 참여하는 스님들이 매년 7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교육원이 발표한 참여 현황을 보면 2010년 74명을 시작으로 2011년 189명, 2012년 249명, 2013년 35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스님들은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100여 곳 이상의 각 지역 복지시설서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 아동 · 청소년 등에 자비행을 실천중이다. 특히 이 · 미용을 비롯해 쑥뜸, 상담, 염색체험 지도, 선무도 등 스님들이 출가 전후에 익혔던 재능을 기부하는 등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자비의 복밭 가꾸기, 세계로 세계로

글로벌 시대라 말하는 요즘 불교의 자비나눔도 제3세계 국가의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을 뻗치고 있다. 10여년 안팎의 시간이지만 불교계 국제구호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현재 교계 대표적인 국제구호 단체로는 JTS(이사장 법륜),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등)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등 불교 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999년부터 국제구호 활동을 시작해온 JTS는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인도와 북한을 비롯해 필리핀 민다나오 · 스리랑카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파키스탄 ·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교육사업 △의료지원 △마을개발사업 △재난시 긴급 구호 활동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지원사업은 종교간 갈등으로 가장 열악한 민다나오 지역의 원주민, 무슬림, 장애자 등 소외 계층을 돕고 있다.

2003년 설립된 지구촌공생회는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아프리카 케냐 등에 식수지원 교육지원 지역개발사업을 해오고 있다.

불교의 자비와 평등사상 전파를 목표로 한 로터스월드는 2002년부터 캄보디아에 아동센터와 초등학교 설립, 빈곤아동 복지와 교육사업 의료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프라미스는 2008년 창립해 티베트 인도 미얀마 동티모르에서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학교 건립 △동티모르 수로 사업 △마을 개발 사업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재가자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자비를나르는수레꾼' (대표 남지심, 이하 수레꾼)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09년 캄보디아 오지마을 뙙뽀디봉에 초등학교를 세우며 지원사업을 시작한 수레꾼은 3년간 학교 운영지원과 14개의 우물을 파서 기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 구호 사업 자체가 동남아시아에 국한돼 이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용권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은 '한국불교의 국제구호활동' 특집으로 마련된 〈불교평론〉 61호에서 '한국불교의 국제구호활동 현황과 과제' 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관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는 1990년대 5개에서 2010년 이후 35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이 동남아 지역에 국한돼 있다. 이 관장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의 활동은 대부분 의식주 해결 수준의 자선사업에만 머물러 있다.

이 관장은 "한국불교계는 대부분 국내복지사업의 부가활동으로 국제구호를 병행하고 있다"며 "자선행사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장은 "이는 많은 불교계 구호단체들이 국제구호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초기 재정확보나 프로그램 구성 등에 있어 현장 기관과 파트너쉽을 맺고, 또 국내 단체들 간에도 연계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이를 위해 (가칭)' 불교 국제개발 협력협의회' 구성을 가시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장은 "2011년 더프라미스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제개발협력 주민운동과정' 을 공개하고 2013년 더프라미스와 로터스월드가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 를 구성, '현지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을 진행한 것이 좋은 예"라며 "불교 구호단체들의 역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체간 협력과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적 · 질적 성장을 동시에

빠른 성장세를 보인 불교계 사회복지사업은 양적 성장면에서는 매우 성공한 사례이다. 하지만 질적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표적인 예가 복지 사업 영역의 편중이다.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을 주제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개최한 창립 15주년 세미나에서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일반 현황과 과제' 를 살피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불교계 복지시설의 40%가 노인복지시설이었고 영유아 시설은 20.6%, 지역사회복지시설은 11%, 장애인 복지시설은 9.1%로 집계됐다.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숙인(1.3%), 이주민(2.8%), 여성(1.1%)에 대한 복지 시설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연구위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중심의 시설 편중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 다문화 가정 관련 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의 과반수가 서울, 경기, 경북에 집중돼 있다. 지역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영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위탁시설로 복지 시설이 편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은 정토학연구 19집에 게재한 '한국불교와 사회복지' 제하의 논문에서 직영시설 건립과 운영 다각화를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성운 스님은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직영시설이 39.9%, 위탁시설이 60.1%로 2배 가까이 위탁시설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따라서 불교계가 정부의 위탁 시설 운영에 치중할 경우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는 위탁기관에서 불교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따르지만 직영 시설을 운영하면 자유롭게 불교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성운 스님은 "직영시설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을 불교적 소양을 가진 전문가들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직영시설의 건립과 운영의 증가는 더 이상 탁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화돼야 한다. 이것이 복지 포교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체 해체 시대에 맞춰 새로운 지역복지와 대안가족 복지공생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경구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교평론〉 51호에 게재한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과 불교계의 대응' 논문에서 "불교복지의 새로운 대응 방향의 하나는 새로운 지역복지와 대안가족의 복지공생체를 위하여 진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미래는 가족구조가 바뀌는 시대이다. 1인 가족 수가 2인 가족 수를 능가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은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규모 아파트가 아니라 소규모 거주 공생체 단지를 만들되 세대별 거주가 독립적으로 가능한 공간을 만들되 취사와 보육과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인간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노인이 더 늙은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도 가능하고, 노인과 젊은 부부, 청소년, 아동 등이 필요에 의해 상부상조하는 새로운 대안가족 복지공생체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이라며 "지역화폐의 사용이나, 자원봉사 점수의 저축, 또는 재능기부와 같은 방법으로 이런 환경을 촉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3자 : 1판
■2자 : 4판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5m, 10cm) / 가격 : 90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3772-316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56-1008-993643 (예금주 : 김판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

길 떠난 원숭이, 무위진인이 될 수 있을까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④ 원숭이 왕, 출가를 결행하다(2)



그림 · 최주현

우리 원숭이 왕은 무상을 느끼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 출가를 결행합니다. 우리가 늘 구석으로 밀어 놓고 마주보기 싫어하는 죽음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것이죠. 바로 이 정신! 근본문제와 정면으로 승부를 하려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서유기에서는 이를 '보리심'이며 부처의 씨앗이라고 찬양하고 있지요. 제가 돌원숭이 왕이 네 대문을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일을 보았다고 슬며시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를 끌어들였습니다. 그건 부처님의 출가와 원숭이 왕의 출가를 전혀 다른 것으로 보지 말아 달라는 주문입니다.

덧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떨치고, 근본적인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신, 바로 이것이 출가의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싯다르타 왕자는 그 출가를 통해 부처가 되셨지요. 우리 원숭이 왕은 어떻게 될까요? 살짝 귀띔해 드리지만 역시 부처가 됩니다. 사상 최초의 원숭이 출신 부처?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따져 말하자면 그렇지도 않네요. 우리가 사람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참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람 비슷한 원숭이와 다름없겠죠?

서유기에는 염라대왕의 관할을 벗어나는 존재를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선인(仙人)과 부처와 신성(神聖)이라고. 그 가운데서 선인과 부처는 잘 알겠지만 신성은 무엇인지가 좀 불분명하죠? 아마 위대한 인격을 이루어 불후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자, 예수 같은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공자와 예수 같은 분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렇지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면 죽었지요. 부처님 역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을 돌아가셨다고 하지는 않지요?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격을 이룬 분들은 이미 우리들과는 존재의 의미가 다를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같은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영역에 들었기에, 또한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을 우리 존재와 똑같은 죽음을 했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가 죽어서도 계속 고통의 윤회를 계속한다던가, 소멸된다는가 하는 식의 변화가 아닌 다른 변화가 진행된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다고 하고, 예수님은 부활로서 그 죽음이 죽음 아님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염라대왕의 관할을 벗어난 세 종류의 존재, 그 가운데서도 서유기에 주로 나오는 것은 부처와 선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지요. 불교는 깨달음에 의해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몸이란 것은 형태 있는 것이요, 무상한 것이니까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대로 산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잘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엘리어트가 지은 '황무지'라는 시의 머리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폴론 신 신전의 무녀가 아폴론 신의 사랑을 받았지요. 아폴론 신은 그 무녀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때 그 무녀는 생각 없이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죽지는 않는데 끝없이 늙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쪼그랑 바가지로 늙어서 몸까지도 쪼그라 붙어 조그맣게 되어 버렸지요. 얼마를 살았는지도 모를 쪼그랑 바가지 모습이 희한해서 결국 조롱 속에 갇혀 서커스단의 구경거리로 끌려 다니게 됩니다. 서커스 구경 온 아이들이 놀리며 묻습니다.

"무녀야, 넌 뭘 원하니?" 이에 무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난 죽고 싶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예요? 죽지 않게 해 달라던 소원과는 정 반대의 소원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죠? 늙어 볼품없이 되고 고생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라고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데에는 당연히 여러 조건이 덧붙어야 하는 겁니다. 우선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겹기 짝이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가장 멋있는 대표 모습(?)은 가지더라도 여러 모습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여러 재미있는 짓을 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군요. 여러분도 한번 어떤 조건을 붙여야 영원히 살더라도 지겹지 않고 재미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이런 우리의 가장 소박한 소망,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소망이 모여져 이루어진 것이 신선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도교(道敎)와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지요. 우화등선(羽化登仙)은 존재를 뛰어넘어 선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도교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도교에서는 연단술 등을 통해 이런 경지를 이루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교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가기로 하죠.

우선 도교는 도가(道家)사상과는 조금 구별해야 합니다. 도가(道家)라고 하면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 흐름을 말하지요. 그러한 사상을 한편으로 이어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신선사상과 민속신앙 등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 도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을 모시는 신앙도 그 가운데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고

> **부처 · 신선 · 신성, 죽음 벗어난 존재**
> **미후왕의 출가도 무상함에서 비롯**
> **도교 · 불교적 영향 복합적으로 담겨**
>
> **이루지 못할지 모르는 험난한 길**
> **그 길을 가는 존재 자체로 '감동'**

재앙을 없애며, 궁극적으로는 신선이 되어 늙지 않고 영원히 살려는 목표 아래 주술, 부적술, 연단술 등의 다양한 종교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도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도 큰 줄기를 말하라면 내단(內丹), 외단(外丹)의 술이 있고, 곁가지로는 방중(房中)의 술도 도교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내단이란 호흡수련 등을 통해 몸속에 금단(金丹)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단학(丹學) 바람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내단의 방법입니다. 몸속에 단약(丹藥)을 만들어 우화등선을 추구하는 방법이죠. 외단은 여러 신기한 약재(수은이나 납 같은 금속재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자 주)를 제련하여 금단을 만들어 먹어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좋은 약도 있겠지만 위험한 금속재도 섞어서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중국 역대 황제의 뼈를 조사해보면 많은 경우 납중독 수은중독의 자취가 있대요. 아마도 오래 살려고 도사들이 바치는 금단 많이 먹어서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 방중은 남녀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민망하지만 남녀 간의 성행위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행위이면서도 음양의 화합을 이루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우주 자연의 이치에 맞게 일정한 법식에 따라 하면 무병장수, 불로장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방중의 술의 의미입니다.

원숭이 왕이 죽음을 넘어서겠다는 결심으로 떠나는 것은 일단 도교적인 길을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겠다는 생각은 바로 신선을 추구하는 것과 가장 쉽게 연결되니까요. 서유기에서는 술법을 배워 그 신통력으로 염라대왕의 손길을 뿌리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그것도 도교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결국은 불교적인 깨달음에서 완전한 해결책을 구하지만 역시 시작은 소박한 인간의 욕망과 가장 잘 연결되는 도교적인 방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숭이왕은 모든 신하와 백성 원숭이들과 크게 한판 환송의 잔치를 벌이고 망망대해에 뗏목을 띄웁니다. 일엽편주(一葉片舟)도 안 되는 일엽뗏목입니다. 망망대해에 뗏목,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이 옵니다.

이룰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큰 뜻을 품고 떠나는 그 길. 일상의 삶에 편안히 머무는 쪽을 택하는 우리들과는 달리 보장도 없는 험한 길을 택한 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그랬을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도 무수히, 아니 성공한 사람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무수한 용기 있는 분들의 덕으로 우리는 진리의 한 조각이나마 맛보면서, 덧없고 덧없는 이 세상에서 한 줄기의 빛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실 웃으면서 헤매고는 있지만 이 시간도 조금은 우리 삶을 돌아보는 뜻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시 한수가 갑자기 생각나 소개드리면서 오늘은 마치지요. 이섭(李涉)이란 중국 당(唐)대 시인의 '등산(登山)'이란 시입니다.

終日昏昏醉夢間
종일토록 몽롱하게 취한 꿈결 사이에
忽聞春盡强登山
문득 봄이 지나간다는 소릴 듣고 산에 올랐지.
因過竹院逢僧話
대나무 우거진 암자 지나다 스님 이야기를 듣네.
偶得浮生半日閑
뜬구름 같은 삶에 모처럼 얻은 반나절의 귀한 시간.

※ 법화경 · 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 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 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동남영가옷 정가 1,000원 동녀영가옷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성스럽고 싶은가, 성스럽게 행하라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8. 인간 형성(形成)의 원리 ㊤

賤한 것은 누구인가

붓다 설법가운데서 다시 두 세 개의 경전을 열거해 볼까 한다. 그 하나는 '경집(經集 · Suttanipata)' 속에 기록되어 있는 〈천민경(賤民經)〉이라는 제목이 붙은 경전이다.

그것은 붓다가 기원정사(祇園精舍)에 있었던 때의 일이다. 평상시처럼 이른 아침에 의발(衣鉢)을 정리하고 슈라바아스티(사위성)의 거리에 들어가서 어떤 집 앞에 그는 발길을 멈추었다. 그것은 어느 바라문(婆羅門)의 집이었으며 집안에서는 이제 막 신화(神火)를 켜며 공양(供養)의 물건을 바치려는 때였다.

"사문(沙門)이여, 멈추어라. 천(賤)한 자여, 멈추어라. 이 신성(神聖)한 장소에 가까이 오면 안되느니라."

그것은 이 새로운 길을 설명하는 사문이 제단(祭壇)에 접근하는 것을 더러운 일로 생각한 그 바라문의 노여운 음성이었다. 그러나 붓다는 온화한 얼굴색을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 바라문에게 물었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천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어떻게 하여 사람은 천한 자가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받은 바라문은 생각하여 보니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원컨대, 사문이여 나를 위해서 설명하여 주시오' 하면서 간청하였다. 그때 붓다가 그를 위해서 '천한 자는 누구인가' 에 관해서 또 '어떻게 하여 사람은 천한 자가 되는가' 에 관해서 말한 것을 이 경전은 서른일곱 가지의 게(偈)로써 기록하고 있다.

그 설명은 매우 구체적인 예로써 이루어져 있다. 사견(邪見)을 품는 자나 아첨의 마음이 있는 자도 천한 자의 예로써 설명되어 있다. 모든 생명에 대해서 자애(慈愛)의 마음이 없는 자도 천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자기는 부유(富裕)하게 살면서도 늙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도 천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또 진실한 성자(聖者)가 아니면서도 거짓으로 성자라고 공언(公言)한다면 그것은 가장 천한 것이라고도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생각이 차츰 정돈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붓다는 이러한 사례(事例)에 일관하는 원리를 제시한다. 그 원리는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게(偈)로써 표현되어 있다.

사람은 그 출생에 따라서
천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 출생에 따라서
성(聖)스러운 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 업(業, Karma, 행위)에 따라서
천한 자가 되며
또 그 업에 따라서
성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게(偈)가 말하는 바는 소극적으로는 종래의 바라문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바라문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모습은 그 출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바라문의 올바른 계보(系譜)를 등에 업고 태어난 자는 나면서부터 바라문이며 성스러운 것으로서 사회의 최상층에 있는 것이다. 만일 수드라(노예)의 계보 밑에 태어난 자는 나면서부터 수드라이며, 평생동안 '오직 위의 삼족(三族)에 봉사한다' 는 운명을 걸머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사고방식이 견고하게 제도화(制度化)된 것이 소위 카스트(종성제도, 種姓制度)이며 오랫동안 인도 민족을 해(害)쳤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인도의 가장 큰 병폐(病弊)로서 존재하고 있다.

붓다는 이러한 바라문적인 원리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행위여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불교의 용어로써 말한다면 업(業)이야 말로 인간 궁극의 결정원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 게(偈)의 후반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성스러운 자는 누구인가

같은 뜻의 게(偈)는 다른 경전에서도 여러 번 설명되어 있다. 그 하나는 이미 인용한 〈경집(經集)〉속의 〈파사타경(婆私吒經)〉에서 볼 수 있다. 거기에서는 붓다는 파세타라는 젊은 바라문학생을 위해서 진정한 바라문 진정한 성자(聖者)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여 63게(偈)에 이르는 간곡한 설명을 펴고 있다.

그 설명의 방법은 퍽 흥미 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붓다는 먼저 초목과 동물에 있어서의 그 있는 모습에 관해서 말한다. 잣나무의 씨앗은 어디까지나 잣나무이며, 소나무의 씨앗은 언제까지나 소나무이다. 개미새끼는 언제까지나 개미이며, 귀뚜라미의 새끼는 언제까지나 귀뚜라미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출생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별이 있다' 라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붓다는 가르치신다. 여기에서는 그 차별을 지배하는 원리는 벌써 그 '출생' 이 아니며 그 '행위' 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예를 들면 땅을 갈며 그것으로써 생업(生業)을 삼는 자를, 사람들은 농부라고 부르지 않는가. 또 매매(賣買)를 생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商人)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혹은 훔치며 그것으로써 생활하는 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도적이라고 부를 것이다. 혹은 또 제사(祭祀)를 담당하며 그것으로써 생활을 하는 자는 그것을 사제자(司祭者)라고 부를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성자(聖者)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붓다는 인간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그 '출생' 이 아니며 그 '행위' 임을 차츰 차츰 그 젊은 학생에게 납득시킨다. 다시 또 진정한 성자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자인가를 설명하면서 아름다운 게(偈)를 전개하는 것이다.

지혜 깊고 현명한 생각이 있어서
길과 길아님과를 구별하며
최상의 도리(道理)에 도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나는 성자(聖者)라고 부른다.

거칠은 말은 하지 않으며,
도리와 진실의 말을 말하며
말에 의해서 누구이건 성나게 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나는 성자라고 부른다.
악의(惡意)있는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악의 없으며
칼과 막대기를 든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온순하며
집착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집착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나는 성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그러한 것의 구체적인 사례에 일관하는 원리로서 "사람은 그 출생에 따라서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출생에 따라서 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 행위(업)에 따라서 성스러운 사람이 되며 또 그 행위(업)에 따라서 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된다"고 설명한다.

앞에서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 천한 사람이 되는가를 말하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 이다. 라고 결론지었지만 여기에서도 또 붓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 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인도 뭄바이의 도비가트. 빨래터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마지막까지 손빨래꾼으로 살아야 한다. 출생에 따라 지위가 나눠지는 카스트 제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부처님은 이 같은 카스트 제도를 반대했고 출신이 아닌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을 귀천을 결정짓는다고 설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열린 불교, 닫힌 사찰

어느 대학이 있다고 하자. 그 대학 출신이 아니면 교수를 할 수도 없고 교직원도 될 수 없으며 학과장이나 학장, 총장 또는 이사나 원장이 될 수 없다 하자. 그런 대학이 지구촌에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런 곳이 존재한다. 그것도 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큰 사찰에 버젓이 존재한다.

그 사찰의 출신 승려가 아니면 승가대학의 총장도, 율원장도, 선원장도 될 수 없다. 주지며 조실이며 방장 또한 될 수 없다.

문중(門中)이라는 이름의 튼튼한 뿌리가 해방 이후 조계종단에는 흔들림없이 그 세력을 키워왔다. 자비문중하면 불교 종단을 떠올릴 만큼 불교는 트인 종교요, 열린 종교요, 벽이 없는 종교이다. 거기다가 세속의 애착도 저버리고 부모와 형제의 정마저 멀리하고 떠나오신 스님들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출가(出家) 이후 문중의 그늘에 안주(安住)한다. 파벌 비슷하게 말뚝을 박고 울타리를 겹겹이 친다. 하여 우리 절 우리 스님으로 끼리끼리 세력을 굳히려 한다면 지극히 세속적인 희극이 아닐 수 없을 터이다. 불교의 육화(六和) 정신과 원효의 화쟁(和爭) 사상에도 어긋나는 행위일 테니까.

불교는 열려 있으나 사찰은 닫혀 있다.

부처님은 진리의 상징으로 큰 스승님이 분명하나, 종단의 승려들은 졸아든 모습으로 나날이 세속화 되어가고 있다. 물론 종단에는 스승으로 만인이 모실만한 선지식도 많고 문중에 자유로운 수행승도 많은 게 사실이다.

종단의 미래를 염려하여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실천하는 승려들도 숱하게 많이 널려 있다. 그러긴 하나 문중 사찰의 보호담장이 너무 견고하고 철옹성처럼 튼튼하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한다.

제발이지 문중을 보호하는 빗장이 하루 속히 열리기를. 하여, 내 절 네 절 가리지 말고 열린 교육으로 인재를 육성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종단, 그런 사찰이 되기를.

한국불교는 神불교인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불교는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종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국 불교의 현 주소는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의식(儀式)불교로 크게 기울고 있다. 스님의 설법 내용이 경전 중심으로 짜여야 한다. 그런데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영험 설화 쪽으로 쏠리고 있다.

사찰의 법당은 무당의 불당과는 다른 것이다. 법당에서는 향내 나는 설법이 끊임없이 울려퍼져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불교의 스님들은 세계 17개국 불교를 신행하는 나라 중 목탁치는 챔피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불교에는 구원을 약속해주는 메시아가 없다.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 있을 뿐. 부처님은 스승이요, 불교도들은 그의 제자일 뿐이다.

불교에는 섬겨야 할 신(神)이 없는데도, 사찰의 현주소에는 섬겨야 할 신도 많고, 영험있는 불보살도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

세계의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체유신조(一切唯神造)의 종교요, 또 하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종교다.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로서 후자 쪽이다.

하물며 스님들이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메신저일 수 없고, 길흉화복을 해결하는 구세주일 수 없는 것이다. 목탁치는 농도에 따라서 액운이 소멸되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돈에 의해 목탁치는 시간이 짧고 길어진다면, 이것은 숫제 순수 신앙이 아닌 거래 신앙으로 막 내려야 할 연극이다.

마치 대리운전 하듯 돈 받고 대신 목탁을 치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효험도 약효도 더디 올 난세스에 불과하다.

한국불교는 신(神)불교는 아니어야 한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열린 진리의 세계로, 부처님 가르침 중심 불교로 와야 한다.

문중 빗장 열고 열린 승가교육해야
불교엔 神 없어… '거래 신앙' 막 내려야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색칠로 '힐링' 각광… 컬러링북 애용자 증가

불교미술치료 만다라 등 색칠공부 인기

"벌써 2시간이 지났나요? 너무 집중하느라 시간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네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사는 펀더버크(여 · 27)씨는 복잡한 패턴의 컬러링북을 하늘색, 핑크색, 보라색 등으로 색칠하며 즐거워했다.

애틀란타주 일간지 애틀란타저널컨스티튜션(The Atlanta Journal-Constitution, 이하 AJC)은 6월 8일 미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컬러링북에 대해 조명했다. 'AJC'는 "현대인들은 게임, SNS 등에 시간을 쏟으며 마음이 쉴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이 휴식과 안정을 위한 최신 유행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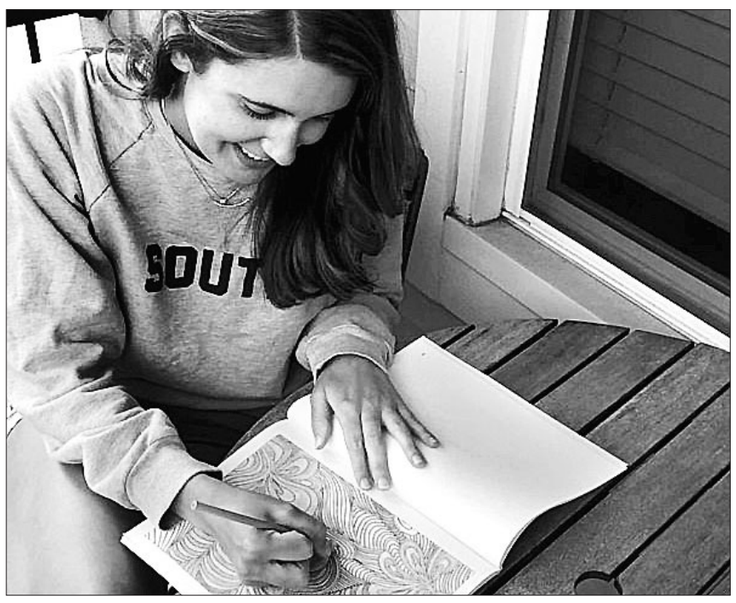
또 "펀더버크씨는 처음에 컬러링북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완벽히 매료됐다"며 "테이블에 앉아 컬러링 하는 동안 그녀의 표정에서 어떤 잡념과 스트레스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AJC'는 오랫동안 컬러링북 열렬한 팬으로 자녀들과 함께 컬러링북을 애용한다는 아만다베넷씨를 소개했다. 아만다씨는 "아이들을 위한 헬로우키티 컬러링북 등을 함께 이용하다 어른용 컬러링북을 발견했다"며 "아이들과 컬러링을 즐기기도 하지만 주변 어른들에게 컬러링을 권하고 있다. 노인공동거주생활관에도 컬러링북을 선물해 어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컬러링은 모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며 "복잡한 패턴의 만다라 컬러링은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게 한다. 마치 선 수행과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불교미술치료기법에 기반을 둔 컬러링북은 미국 청 · 장년층 사이에 꼭 가져야만 하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Must-have Item)'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음챙김 명상과 함께 지친 마음을 치료해줄 방편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특히 〈Adult Coloring Book: Stress Relieving Patterns〉(BlueStarBooks)와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King, Laurence)는 각각 인터넷 서점 '아마존' 베스트셀러 10위와 25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게임 · SNS 여가 대안 떠올라
'선 수행' 일종으로 인식
아이들과 함께 취미 공유
대형 인터넷서점 베스트셀러 기록도

이 책들은 다소 어지러운 문양이나 불교 만다라 문양, 우주를 나타내는 상징 등 복잡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인들은 이 그림에 색칠하며 창의적으로 스트레스를 발산 해소한다.


애틀란타주 일간지 애틀란타저널컨스티튜션(The Atlanta Journal-Constitution)은 6월 8일 미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컬러링북에 대해 조명했다. 사진은 애틀란타저널과 인터뷰에 앞서 컬러링북을 체험하는 펀더버크(여 · 27)씨 모습. 사진출처=AJC

한편 가장 최근 발간한 〈The Mini Mandala Coloring Book〉(Shambhala)을 비롯해 5권 어른용 컬러링북을 펴낸 예술치료사 수잔느 핀쳐씨는 중병으로 입원해 있는 동안 컬러링북으로 평안을 찾았다. 수잔느씨는 "어른용 컬러링 북은 창조적 활동을 시작하는 가장 쉬운 길"이라며 "컬러링을 통해 평안을 되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기 기분을 통제할 수 있다"고 'AJC'를 통해 전했다.

이어 수잔느씨는 "직원들에게 만다라 컬러링북을 선물해 틈틈이 그리게 한다"며 "직원들은 군것질이나 흡연하는 대신 쉬는 시간 마다 만다라 색칠로 독창적 공간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나눔의 미학 '카르마 마케팅' 주목

라우카이쿨 박사, 함께 나누는 마케팅 전략 발표

코카콜라 · 이베이 등
글로벌기업서 관심

마케팅 전략이란 흔히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해,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

'가디언' 지는 브랜드 전략가 시리쿨 라우카이쿨(Sirikul Laukaikul) 박사의 강연에 주목하고, 4일 "탐욕을 좇는 마케팅 전략 속에서 '밝은 미래'를 찾기란 힘들다"며 "그것은 시장을 점유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나누고 함께하는 정신문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카르마 마케팅(Karma Marketing)' 전문가인 라우카이쿨 박사는 미국의 지속가능한 브랜드 연구소(Sustainable Brand Institute) 초청으로 산디에고, 캘리포니아 등지를 순회하며 카르마 마케팅을 주제로 '불교적 자족 경제 철학'의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다.

'가디언' 지에 따르면 산디에고에서 3일 열린 강연회에서 "기업이나 개인 모두 자신의 욕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 목적을 이루면 행복해 한다"고 지적한 라우카이쿨 박사는 "카르마 마케팅에서는 욕구 충족보다는 함께 나눌 '충분한 자원'에 더 주목한다"며 "나눔이란 동시대에서 나와 타인 간의 나눔이기도 하지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나눔도 포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마케팅 전략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더(more)'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라우카이쿨 박사는 "더 많이 만들어내고 소유하려는 과정이 반복 될수록 우리 내면에는 '탐욕'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탐욕 뒤로는 불만, 분노, 무지 등이 따르기 마련인데, '나눔'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이라면 친절, 만족, 선행 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제는 욕구보다는 욕구의 대상이 '자원'에 대해 이야기 할 때"라고 주목한 라우카이쿨 박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원을 충분히 나누기 위해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마케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디언' 지에 따르면, 라우카이쿨 박사는 이런 노력의 방편으로 '카르마 마케팅'을 주장한다. 즉, 부처님 가르침인 중도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 책임 있고 사려 깊은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우카이쿨 박사는 "나눔에 주목하자는 것이 기업의 수익을 좇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카르마 마케팅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현재나 미래에 구애 없이 자원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 즉 '자족경제철학'에 주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우카이쿨 박사의 산디에고 강연에는 코카콜라, eBay, BBMG 등 글로벌 기업의 영업 전략 책임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동양의 정신이라고 할 불교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던 자리"라며 라우카이쿨 박사의 강연에 의미를 둔 리카르도 카세레스(Ricardo Caceres) 코카콜라 마케팅 이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자각과 함께 나눔에 관심을 돌리는 마케팅 전략에 관심이 크다"며 "카르마 마케팅이란 매우 단순하지만,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마케팅 전략인 것 같다"고 말했다.

라파엘 벰포에드(Raphael Bemporad) BBMG 글로벌 마케팅 이사는 "자족경제철학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라며 "본사 마케팅 전략에 카르마 가르침에 근거한 일명 '공유 경제', '순환 경제' 등을 가져와, 마케팅 현장에 적용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로리 듀발(Lori Duvall) 이베이(eBay) 마케팅 이사는 "카르마 마케팅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찬 방법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마케팅 현장이란 각 케이스별로 제한적인 상항에 있기 마련"이라며 "카르마의 가르침 속에서 한 기업 또한 한 개인의 지속 가능성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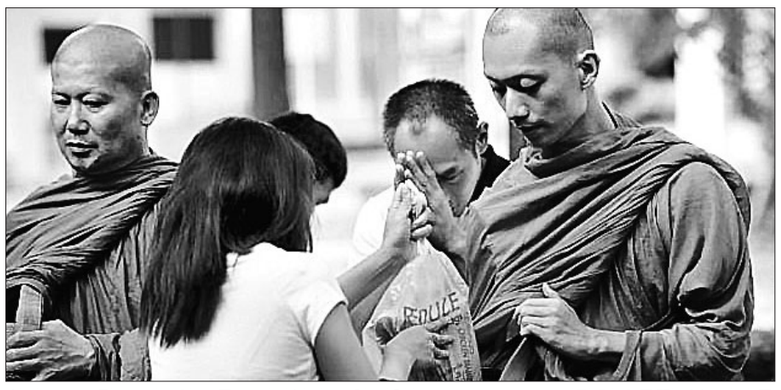
오종욱 편집위원


카르마 마케팅(Karma Marketing) 전문가 라우카이쿨(S. Laukaikul · 태국) 박사가 '지속가능한 브랜드 연구소(Sustainable Brand Institute · 미국)' 초청으로 산디에고,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카르마 마케팅'을 주제로 '불교적 자족 경제 철학'의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싱가포르 청년 출가, 어렵지만 늘어날 듯

싱가포르 일간지 고 스님 특강 보도

발심과 출가 사이 고심 "'화해와 이별' 밟아야"


싱가포르 부킷 뷰 학교의 고등부 여학생이 고 천 키앙(Goh Chun Kiang · 사진 맨 오른쪽)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다.

출가란 어느 나라에서라도 어려운 모양이다. 출가 서원을 세우더라도 가족을 설득해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세속의 직분을 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올해로 출가 6년째를 맞은 싱가포르의 고 천 키앙(Goh Chun Kiang, 이하 '고') 스님 역시 그런 과정을 밟고서야 자신의 서원을 실천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Straits Times'는 출가 서원을 처음 세웠던 부킷 뷰(Bukit View) 학교를 방문해 고등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한 고 스님의 출가 스토리를 보도했다.

이날 강연에서 고 스님은 부킷 뷰 재학생들에게 "인연이나 욕심 따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 마음은 언제나 고요한 상태"라며 자신의 후배들에게 '수행자'를 설명했다.

'Straits Times'에 따르면, 고 스님은 '부킷 뷰' 재학 시절부터 스님이 되고 싶었다. 당시 스님은 부친의 서가에 꽂혀 있는 불서를 탐독했는데, 그 책들 속에서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았던 것이다.

고 스님은 부킷 뷰 학교의 고등부 과정에 들어가자 모친에게 '출가 의사'를 밝혔다. 당시 모친은 중국불교계 사찰을 다니며 '가족의 안위를 기원'하며 기도했던 독실한 불자였다. 그러나 모친은 자녀의 출가를 반대했고,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한 고 스님은 "그러나 불서 읽기는 결코 시들어지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폴리테닉(Singapore Polytechnic)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명상 수련회에 참가할 정도로 신행에 적극 나섰다"고 말했다.

고 스님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기 위해 싱가포르 공무원으로써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말레이시아 조호르(Johor) 주의 산티 숲 사원(Santi Forest Monastery)에서 상좌부 불교를 수지했다. 그때가 23세였다. 스님은 현재 싱가포르 동부에 위치한 베독(Bedok)에 있는 파레라이(Palelai) 사원에 주석하며,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강연 말미에서 "우리의 삶이란 싸움과 분쟁의 연속"이라고 지적한 고 스님은 "그래서 우리는 수행과 신행을 통해 그것을 다스려 나가가야 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과 신행, 바로 그 여정에 있고, 그 가르침에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Straits Times' 지는 "2010년도에 실시된 '싱가포르 종교 통계'에서 출가 적정 연령인 15세 이상 응답자 중 자신의 종교를 '불교'라고 응답한 수는 943,369명으로 33.9%였다"며 "싱가포르 불교는 미래에도 다른 종교보다 여전히 앞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능인 로즈마리 / 능인 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 인 라 벤 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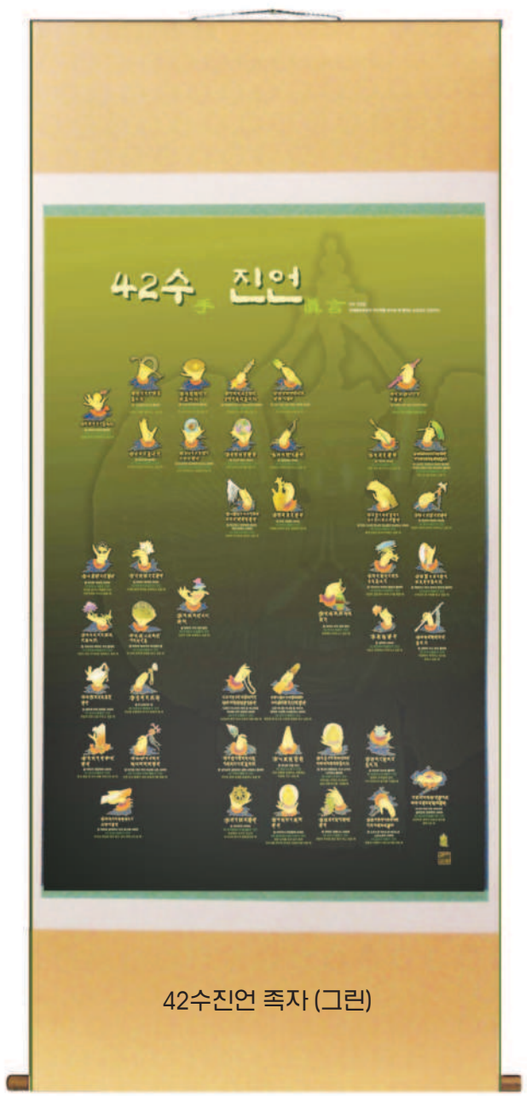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발레서 승무까지 부처님 말씀 춤으로 되새긴다

제 1회 불교무용대전 참가팀 확정… 7월 3일~26일 스튜디오 SK서



불교무용대전 포스터

현대불교신문사가 후원하고 불교문화단체 (주)구슬주머니 · (사)한국춤예술센터가 주최하는 제 1회 불교무용대전(고문 김복희 · 프로듀서 이철진)의 참가팀과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7월 3일~26일 매주 금 · 토 · 일 대학로 소극장 스튜디오 SK(성균소극장 2관)에서 열리는 불교무용대전은 4주에 걸쳐 10개 팀이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넋전춤-전 아리랑(한국전통넋전춤 연구보존회)△세 가지의 업 (심현주-dance with us) △쌍승무(정우정연 무용단) △태평사자놀이(우리소리연구회-솟대) △무애행 (강용기, 라온댄스컴퍼니) △승무(홍은주) △다비(댄스컨템포러리 Joon-mo) △반조(in us move) △천개의 공(空) (임선영 Im dance project 10) △관무량수경 (댄스컴퍼니 마묵)등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정우정연 무용단의 '쌍승무' 는 조선의 마지막 궁중 춤의 선생이었던 이장선 명인으로부터 남원의 조갑녀로 이어진 승무를 쌍승무로 재구성 그 어떤 것도 확정 짓지 않는 자연스러움의 몸체를 보여준다. 하나가 둘이 되고, 다시 둘이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을 호흡에 집중해 내면의 균형을 찾아 우주의 기운과 내가 하나 되는 의미를 담아낸다.

홍영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춤 한영숙류의 '승무'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를 보여준다. 염불로 시작해 느린 도드리에서 타령, 빠른 도드리에서 굿거리장단으로 변화하는 민속음악에 맞추어 안무가 진행되다가 북을 치며 마무리되는데, 이는 인간의 번뇌를 장단의 전개 속에서 풀어내는 과정이다. 긴 장삼의 여운은 희노애락을 녹아내리며 진정한 기도의 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댄스컨템포러리 Joon-mo' 의 '다비' 는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길' 을 주제로 인간의 모든 업장을 흙과 물, 불, 바람의 사대 지수화풍에 내주어야 그 업장은 소멸되고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는 '다비' 의 철학을 몸짓 언어로 옮겼다.

'임선영 Im dance project10' 의 '천개의 공' 은 불교 '천도제' 를 춤으로 승화시켜 삶과 죽음은 늘 우리와 함께 존재함을 보여준다. 천번의 비움, 몸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 세계를 몸짓으로 보여준다.

쌍승무-이장선 명인 춤 재구성
천개의 공-죽음의 의미 되새겨
관무량수경-자유 이르는 길 제시

마묵무용단의 '관 무량수경' 은 불교 수행을 통해 자유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 이 공연은 〈관무량수경〉의 스토리를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무자 스스로가 16관법을 행하고 관하면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을 작품화해 주목된다. 경전에 근거해 16관법을 행하면서 일어나는 일체의 안무 행위가 곧 '관 무량수경' 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번 대전에는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공연이 대부분으로 불교를 소재로 하는 전통춤에서부터 발레 현대무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불교문화단체 (주)구슬주머니 이철진 대표는 "첫 대회인데 이렇게 큰 반응을 보여줘 매우 만족한다. 4주 동안 세 팀이 한 조가 되어 단독공연과 단체 공연을 펼친다. 발레 현대무용 전통무용이 모두 포함되어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불교무용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라며 불교무용대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무대를 통해 잠재적인 불자를 양성하고 문화 포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불교무용대전은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새로운 창작작품도 공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아직 어려운 점이 많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02)747-503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제 1회 불교무용대전이 7월 3일~26일 매주 금 • 토 • 일 대학로 소극장 스튜디오 SK(성균소극장 2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전에서는 4주에 걸쳐 10개 팀이 공연을 펼친다. 사진은 정우정연 무용단의 '쌍승무' .

제1회 불교무용대전 일정

날 짜	공 연 명	단 체
첫째주 7월 3일 ~ 7월 5일	넋전춤 - 넋전 아리랑	한국전통넋전춤 연구보존회
둘째주 7월 10일 ~ 7월 12일	세 가지의 업 쌍승무 태평사자놀이	심현주-dance with us 정우정연 무용단 우리소리연구회-솟대
셋째주 7월 17일 ~ 7월 19일 무애행	강용기 , 라온댄스컴퍼니 승무 다비	 홍은주 댄스컨템포러리 Joon-mo
넷째주 7월 24일 ~ 7월 26일	반조 천개의 공(空) 관 무량수경	in us move 임선영 Im dance project 10 댄스컴퍼니 마묵

서양화법 도입한 근대 불화 눈길

부산시립박물관 지운영필 관음도 공개


지운영필 관음보살도

부산시립 박물관이 '신수유물소개전' 을 8월 30까지 연다. 부산박물관이 최근 입수한 기증 · 수탁 유물이나 보존처리가 끝난 유물들을 소개하는 전시로,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 보존처리를 완료한 '지운영필 관음보살도' 등 총 3점을 공개한다.

'지운영필 관음보살도' 는 관음보살이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연꽃잎 위에 서 있는 관음도이다. 사녀(士女) 도상의 머리형을 하고 있으며 화불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왼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받치고 있는 잔에 살짝 담그고 있다. 육신부는 먹선 위에 붉은 색을 더하여 신체의 생동감을 살리는 전통적인 인물화의 묘법이다. 그러나 안면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콧망울과 인중 등 요철부에는 서양화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작품을 조성한 백련 지운영(白蓮 池雲英, 1852~1935)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활동했던 근대의 대표적인 지식인 중 한 사람으로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의 친형이다. 이 작품은 지운영이 남긴 유일한 불화이다. 형식 및 화법적 특징을 종합해 볼 때 근대기 김은호(金殷鎬, 1892~1979)등이 즐겨 그렸던 미인도의 특징과 일치하며, 사진술에서 착안한 서양화법을 인물의 안면 묘사에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051)610-7137 정혜숙 기자

제주의 산 · 바람… 찰나 순간 화폭에

이종송 작가 개인전 6월 28일까지 류미재갤러리서


이종송 작가는 제주의 풍경을 명상을 통해 그려냈다.

흙벽화 기법에 천연안료라는 흔치 않는 기법으로 히말라야의 수천미터 높이 계곡들의 넘치는 강렬함을 화폭에 담아내던 이종송 작가(건국대 회화과 교수)가 이번에는 제주를 찾았다.

이종송의 개인전 '움직이는 산 · 바람' 이 6월 28일까지 경기도 양평 류미재에서 열린다. 작가는 40일 동안 제주에 머물며 작업한 30여 작품을 통해 모진 역경의 바람과, 때로는 눈물나는 감동의 햇살과 신비한 생명력을 가진 제주의 자연을 선사한다. 그리고 그 속에는 명상을 통해 자연과 내가 하나되는 과정을 담아낸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걸어서 여행지로 가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순간에 집중하다보면 그것이 또한 명상이죠." 인도 등을 여행하며 명상법을 익혔다는 작가는 "저에게 있어 여행이 곧 작업이요 작업이 곧 여행입니다. 그리고 늘 작업 전에는 고요히 명상에 들죠. 주로 호흡명상을 하는데 마음을 조용히 맑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자연과 대화를 하죠. 그 찰나를 화폭에 담아냅니다"라고 말한다.

작가는 제주의 모습을 자연이 만든 감성적 창작물처럼 여긴다. 더 나아가 바람의 흐름에 따라 누워있는 나무들이나, 오랜 세월을 지내며 둥글고 신비롭게 형성된 지형들을 보며 바람 자체를 생명의 존재로 표현했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제주의 바람이 만들어 준 소리가 노래처럼 들릴 것 같은 것도 작가의 감동과 명상적 직관이 담겼기 때문이리라. (031)774-8868 정혜숙 기자

20주년 기념공연 '사랑은 비를 타고'

8월 30일까지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서


'사랑은 비를 타고' 20주년 기념공연이 유니플렉스 2관에서 펼쳐진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이하 사비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다. 20주년 기념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는 '사랑은 비를 타고' 는 제 2회 한국뮤지컬대상 음악작곡상을 수상한 최귀섭 작곡가와 제 1회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을 수상했던 오은희 작가가 다시 뭉쳐 신화를 이끌어 간다. 특히 이전의 사비타가 가지고 있는 유쾌함과 감동은 물론 초연 되었던 1995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살리며 세 주인공인 동욱, 동혁, 미리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캐릭터적 해석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 '사비타' 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김성기와 독보적 코믹 연기로 자리를 굳힌 임기홍, 조유신을 비롯, SS501의 김규종, 크레용팝의 웨이와 개그맨 문세윤, 장도연이 합류했으며, 수 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을 통과한 김종선, 임정한, 양동원, 손예슬, 박현지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한편, '사랑은 비를 타고' 는 1995년 남경읍, 남경주, 최정원이 출연하며 초연된 당시, 순수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1996년에는 제2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음악작곡상, 남우주연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다. 그 후 2011년까지 3,000회 이상 공연, 매회 객석 점유율 80%를 상회하는 등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았다.

공연은 8월 30일까지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에서 열리며 R석 50,000원 S석 40,000원이다. (02)543-7727

정혜숙 기자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청정지역 거제멸치
여름철 입맛이 떨어질 때...
불자님 밑반찬으로...
멸치 하나로 칼슘을 섭취
당일 즉석 건조하여 신선도 유지
직거래 유통으로 가격이 저렴
청어 멸치는 거제 가조도(섬)에서만 잡힘(청정지역)
※ 불자님과 사찰스님께서 필요하신 신도님이 함께 구입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10박스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멸치에는 일반멸치와 청어멸치가 있음
※ 주의 : 가격은 시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멸치의 크기도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 박동열)
구입문의 :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금룡정사 대정 스님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고려 철불서 백남준까지 鐵 역사 망라

포스코미술관 개관 20주년 '철이 철철' 전

고려철불에서 백남준의 작품까지 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포스코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철이 철철' 전을 7월 7일까지 연다.

전시 제목인 '철이철철' 은 포스코가 소장하고 있는 백남준 작품 '철이철철– TV 깔대기, TV나무' 라는 제목에서 따왔다. "포항제철은 철 만드는 회사이니 철(鐵)이 철철넘쳐나라"며 포스코의 무궁발전을 기원한 작가의 위트어린 메시지다.

특히 이번 전시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고려철불, 사천왕상, 철탑 등의 불교문화재는 물론 추억의 만화 영화 속 영웅인 로보트 태권브이까지 '철' 혹은 '금속' 을 사용한 작품을 한데 모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려 철조 유물부터 현대미술,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철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조망해볼 수 있는 전시다.

특히, 전시 도입부는 통일신라 사천왕상 4점과 고려 철조불상 1점, 백남준의 '붓다 킹' 등이 소개된다. '철제여래좌상' 은 고려시대 초기 철불(12세기)로 같은 시기 장신계열의 대표적 불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려 철불의 형식적 특징과 그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불자 작가 백남준(1932~2006)의 '붓다 킹' 은 서양의 왕과 동양의 부처님이 교차하고 샬롯 무어맨의 영상이 상영되는 작품





포스코갤러리는 개관 20주년을 맞아 '철이 철철' 展을 개최한다. 고려 철제여래좌상(좌)과 고려시대의 철조탑

철조유물 현대미술 등 한데 모아

7월 7일까지 포스코 갤러리서

으로 현실과 추상적 세계가 교차되면서 유희적이지만, 관념적인 심오함을 담고 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이자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업했던 예술가 백남준의 작품을 철의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밖에도 쌍사자철등(통일신라), 철조탑 2점(고려), 철조십이지신상 8점(고려), 철조탑(고려) 등도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특히, 철조탑은 사각형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방형다층누각(方形多層樓閣) 형태로 고려시대에 특히 많이 제작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다. 박승모의 '연기'(緣起)는 철망을 여러 겹 겹쳐서 형태와 이미지를 표현한다. 얇은 철망들이 한 겹 두 겹 겹치고 겹쳐서 연필 소묘처럼 만들어진 인물의 환영들은 실재와 허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의 찰나를 더욱 섬세하고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철이나 금속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현대 미술작가들의 회화 조각 인터렉티브 등을 '인간' '자연' '기술' 세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참여작가는 송영수, 한영욱, 김경환, 정용진 등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무산 허회태 작가, 동국대에 작품 기증 '화제'

'108번뇌불' '억만 부처 佛' 등 전달



허회태 작가(왼쪽)가 기증한 '억만 부처 佛' 을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오른쪽)이 감상하고 있다.

서(書)와 화(畵)를 접목해 글자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이모그라피(emography)를 창시한 무산(茂山) 허회태 작가가 동국대에 작품을 기증했다.

허회태 작가는 6월 8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을 찾아 '108번뇌불' '억만 부처 佛' 등 2개의 작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허회태 선생을 비롯해 이사장 일면 스님, 법인사무처장 종민 스님, 이관제 대외협력처장, 김형중 동대부중 교감 등이 참석했다.

동국대가 기부 받은 '108번뇌불' 과 '억만 부처 佛' 은 작품 크기가 8m× 2m에 달하는 대작이다. '108번뇌불' 은 108개의 '佛' 자가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으며, '억만 부처 佛' 은 '佛' 자를 수천수만 번 덧칠하여 거대한 '佛' 자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허회태 선생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담았다. 특히 '억만 부처 佛' 의 경우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매진, 장장 6개월에 걸쳐 완성했다"며 "이사장 스님과 총장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종립 동국대가 도약 발전하고 한국불교 융성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기부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멀리서 보았을 때는 일필휘지(一筆揮之)한 듯 웅장한 느낌이 들었으나, 가까이서 보니 세필로 여러 차례 덧칠한 엄청난 정성과 공력이 느껴져 다시 한 번 감동이 일었다"며 "귀한 작품을 종립대학에 희사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말씀하신대로 동국발전의 원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57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한 허회태 선생은 1975년 광주 금호고등학교 학생신분으로 초대개인전을 열어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1995년 대한민국서예대전에서 출품작 '목간체' 로 대상을 수상하며 서예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2005년에는 감성을 의미하는 'Emotion' 과 그림을 뜻하는 'Graphy' 의 합성어인 이모그라피(Emography)를 창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스웨덴, 미국, 독일 등에서도 독창적인 현대미술가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정혜숙 기자

특별기고

내재한 원력 진실히 전달…"현장서 가슴 뜨거워져"

일운 스님의 북 콘서트를 보고

지난 6월 6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일운 스님 저 〈산사에 홀로 앉아〉 북 콘서트가 열렸다.

30년 이상 글 쓰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지만 북 콘서트에 가 본 건 처음이었다. 흔히 출판기념회, 하면 지인들이 참석해 책을 사주고 몇 사람이 돌아가며 축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북 콘서트는 말 그대로 책과 공연을 합성한 문화행사였다. 불교적인 색깔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 북 콘서트도 훌륭한 불교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충분히 느껴졌다.

정목 스님의 세련된 진행으로 장내는 화기애애한 열기로 가득했고 청중들은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무대 위에 오른 일운 스님과 정목 스님을 바라보았다. 정목 스님이 질문하고 일운 스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나는 일운 스님의 답을 들으면서 차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일운 스님 안에 내재한 원력이 진실하고 간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찾고 있는 스님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것은 진실하면서도 유능한 스님, 구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의식이 깨어 있는 스님, 삶의 중심에 원력이 굳건히 자리한 스님, 불법의 정수를 꿰뚫어 아는 스님, 이런 스님상일 것이다. 나는 이쯤에서 스님도 불자도 불교도 법(부처님 가르침) 앞에서 좀 더 진실하고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스님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내가 일운 스님 북 콘서트에 가서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일운(一耘) 스님은 봉녕사 학장이셨던 묘음 스님 상자다. 일운이라는 법명도 묘엄 스님이 내리신 것이다. 운(耘)자는 김매다, 없애다, 제거하다, 라는 뜻이니 속기를 다 없애고 오롯이 불성에 안주한 스님이 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일운 스님은 과거생에도 스님이셨던 것 같다. 17살 어린 나이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일체 만상은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공부를 하려면 절에 가서 스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교복을 입은 채 청도운문사 강원을 찾아 갔다니 말이다. 그 당시 운문사 강원에는 묘음 스님이 강주로 계셨는데, 묘음 스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해서 맺어졌다. 그로부터 18년의 세월이 흐른 1987년 일운 스님은 대만으로 유학을 가 중화민국 중화불학연구소 불교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고, 유학간지 4년 만인



일운 스님은 6월 6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관중들은 콘서트를 통해 진실하고 간절한 스님의 큰 원력을 느낄 수 있었다.

정목 스님 질문, 일운 스님 답 형식

"시대 필요한 스님상 조명" 인상적

1990년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그리고 2년 후인 1992년에 은사스님인 묘엄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비구니계의 강사스님이 된 것이다.

일운 스님이 울진 불영사에 첫 발을 디딘 것은 대만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 다음 해였다. 문중어른 스님들이 대만까지 찾아 와 불영사를 맡아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일운 스님은 그 당시 비구니스님으로는 최고의 엘리트그룹에 속했다. 그리고 은사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니 강사스님으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돼 있었다. 하지만 스님은 안정된 생활을 택하지 않고 경상북도 오지인 울진 불영사로 내려왔다. 일운 스님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이다.

울진 불영사는 진덕여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산 위에 있는 부처님 모습을 한 바위 그림자가 연못에 비친다고 해서 절 이름이 불영사(佛影寺)다. 일운 스님이 처음 불영사에 올 때만 해도 불영사는 몰락한 양반집 같은 모습으로, 고찰이라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비구니스님이 몸담고 있기에는 너무도 피폐해 있었다. 그러나 스님은 피폐한 도량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서 불영사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세월이 흘러가자 불영사 도량에는 천축선원, 무위당, 황화실, 청운당, 청풍당, 반야당, 설선당… 같은 이름의 당우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스님이 불영사에 머문지 25년이 된 지금 불영사 도량에는 25채의 당우가 새로 들어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축선원에는 영동제일의 비구니선원이 개설돼 결제철이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비구니스님들이 모여 들어 안거에 들어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과거와 미래의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집중적으로 투사해 쓰는 일운 스님 특유의 생활철학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일운 스님은 해마다 불영사에서 사찰음식 축제를 연다. 이 기간에 참석하는 사람은 약 7천명에서 8천명 정도. 울진군 내에서 가장 큰 문화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2011년 6월부터 만 일염불결사를 시작해 2038년 10월에 회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이 만일 결사를 추진하다니! 스님 가슴속에서 유유히 흐르는 원력의 강물을 보는 것 같아 숙연해진다.

지금 현재 만일 결사에 동참한 회원은 약 3천 명, 스님은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통해 회원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회원들이 보내 온 보시금으로 제 3국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아침마다 법을 전하고 대신 음식을 공양 받는 탁발순례를 실천에 옮기고 계신 셈이다. 원력은 아름답다. 원력을 실천하는 삶을 지켜보는 것은 더욱 아름답다. 진실하면서도 유능한 스님, 구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의식이 깨어 있는 스님, 삶의 중심에 원력이 굳건히 자리한 스님, 불법의 정수를 꿰뚫어 아는 스님, 이런 덕목을 갖추고 계실 것 같은 일운 스님과의 만남은 나를 행복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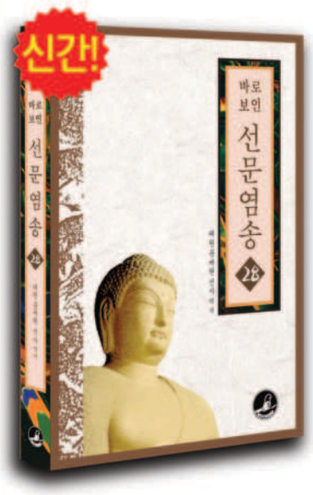


남지심 작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KW-BS200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제수 운반
고소 연등 설치
전지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써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장!"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1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신간!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제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낱낱이 설하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31~6/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심심한생각채우기(엽서컬러링북)	아름다운인연	누똥바
2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여백	법정,최인호
3	아잔브람명상론(1)-알아차리기	북투더바이블	아잔브람
4	안부(산승이마음으로전하는)	(주)조계종출판사	지안스님
5	꿈을깨면 내가부처	정토	서암스님
6	불교기독교를논하다	모과나무	이제열
7	남을위해기도합시다	장경각	퇴옹성철
8	불설아미타경소초	불광출판사	운서주굉
9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효림	우룡큰스님,김현준
10	스님의 일기장	담앤북스	현진지음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나와 함께 있어 보지 못하는 진짜 나 인 ‘참나’를 발견하라”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1972년 경기도 안양에 한마음선원을 세운 대행 스님〈사진〉. 스님은 2012년 입적하실때까지 40여년간 불법의 진리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수행법을 전파하는데 매진했다. 스님이 베푸신 수많은 법문 중 핵심을 짚어내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나”일 것이다.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보지 못하는 내안의 진짜 나, 그 참나를 발견해 당당하고 싱그럽게 살기를 바라는 중생을 위한 스님의 바람이다.

이번에 출간된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6권~10권〉과 〈我心是金佛〉(내 마음은 금부처 중국어 간체자본) 등은 정기법회때 스님이 설하신 주옥같은 법문들을 한글과 영어, 중국어 등으로 재편집한 것이다. 특히 〈Touching the Earth〉는 대행 스님 법문을 한영 합본으로펴낸 〈생활 속의 참선수행〉시리즈 제 6권서부터 제 10권까지의 영어 번역부분만을 묶어서 한권으로 만들었다. 이 시리즈를 발간한 한마음국제문화원측은 머리말을 통해 “누구에게나 내면에는 만물만생을 다 먹여 살리고도 되남는 마음 속 한 점의 불씨가 있다. 그 영원한 불씨를 찾아 광대무변한 마음법의 이치를 체득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당당히 그 역할을 해나가길 바라는 대행 큰스님의 간곡한 뜻이 이 책을 통해 모든 이들의 마음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Touching the Earth〉=〈생활 속의 참선 수행〉시리즈 제 6권서부터 제 10권까지의 영어 번역부분만 묶은 것이다. 대행 스님이 설한 법문은 생과 사, 건강, 교육, 질병, 돈, 수행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벌어진 다방면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며,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번에 출간된 〈Touching the Earth〉에 들어 있는 법문들은 특히 지구가 현재 직면하는 생태환경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췄으며, 우리의 마음 수행이 어떻게 지구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더 나아가서 인류가 살아가기에 알맞은 집으로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지진발생, 화산폭발,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과 같은 지구 차원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보다 조화롭고 부드러운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방편서부터, 지구 밖의 우주로부터 다가오는 문제도 마음공부를 통해 막아낼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

얼핏 생각하면 지구 보존이라는 거시적인 영역과 우리 마음의 평안과 인생문제를 해결키 위해 시작하는 마음수행이라는 미시적인 영역서 우리는 어떤 연관성이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대행 스님은 법문을 통해 상상의 한계를 뛰어 넘는 큰 마음의 역량을 알려준다. 스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실천하다보면 개개인 삶의 향상은 물론 온갖 오염과 이상기후로 고역을 치르는 지구의 존망 문제까지도 마음 계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김을 느낀다. 심화된 마음공부가 영향을 미치는 반경의 외연은 우주를 넘나드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까지 확장된다. 일체가 하나로 연결된 그 전체의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을 돌려놓음으로써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계, 더 나아가 우주까지도 돌볼 수 있음을 깨우치게 된다.

그 무한한 힘을 밖에서 찾으려 애쓰지 말고 우리들 속에 그 갈증을 풀어줄 엄청난 청량수가 들어 있음을 깨닫고 마음공부에 전념하라는 것이 이 책서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가르침이다.

▲제 6권 〈온 우주를 살리는 마음의 불씨(The Spark that Can Save the Universe)〉=대행 스님이 1995년 12월 17일 정기법회 때 설한 법문 내용이다. 이 법문서 스님은 그 자체는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힘을 배출해주는 우리들의 근본마음, 그 근본자리에 마음을 내는 것, 그 마음 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자성삼보(自性三寶)이고 불법승임을 일러준다. 각자 자기 내면에 어마어마한 삼보가 들어있으며, 따라서 자성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온 세상 만물만생을 영원토록 다 먹여 살리고도 되남는 에너지를 품은 자신의 근본마음 자리에 귀의하는 것을 뜻한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제 7권 〈한마음의 위력(The Infinite Power of One Mind)〉=대행 스님이 1986년 4월 20일 정기 법회 때 설한 법문이다. 이 법문서 대행 스님은 우리의 근본마음이 지닌 역량의 무궁무진함과 끊임없이 흘러 돌아가는 진리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밝혀준다.

우리의 근본마음에는 진화력, 창조력, 타심력, 숙명력, 천이력, 천안력, 신족력 등을 포함한 모든 능력들이 내재돼 있다. 우리들 자신의 ‘한마음의 한 점’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자 태양의 근본, 천지의 근본이니 위대하고 성스러운 것이다. 마음수행을 통해 모든 것을 이 한 점의 마음 안으로 잘 굴려 넣어 일체를 한마음 속에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스님은 말한다. 뿐만 아니라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혹성의 에너지를 지구로 끌어올 수 있는 등 우주도 개발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인다. 내 근본마음을 발견해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돌아간다면, 남의 마음을 알고, 우주의 섭리를 알고 대천세계의 근본도 알게 된다는 것이 스님의 핵심 가르침이다. 대행 스님은 이번 법문에서 강조한다. “이 광대무변한 도리를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고 다스려서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유권을 얻게 되니, 여러분도 마음공부를 하여 부처님과 같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라고.





〈Touching the Earth〉
〈생활 속의 참선수행 6권~10권〉
〈我心是金佛〉
대행 스님 지음 | 한마음국제문화원 펴냄

▲제 8권 〈일체를 움직이는 그 자리(In The Heart of A Moment)〉=이 책은 대행 스님이 1997년 7월 6일 법형제회법회 때 설하신 법문을 담고 있다. 이 법문에서 대행 스님은 우리의 근본마음은 이 우주 천하를 움죽거리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녔으니, 오로지 내면의 뿌리, 그 근본마음에 일체를 믿음으로 맡겨 놓으라고 설파한다. 우리가 가진 습과 착과 욕심과 같은 모든 것을 내면의 그 자리에 놔서 없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마음을 갈고 닦아 차원을 높이고, 누구나 갖춘 근본마음의 큰 권리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진화시키라고 말한다.

대행 스님은 또한 중생들에게 일러 주신다. “마음 작용은 빛보다 더 빠른 한 찰나에 온 누리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일상의 소소한 문제 해결도, 오존층 파괴와 같은 자연계의 재앙을 막아내는 처방전도 모두 우리의 근본마음 깊은 곳에서 일으키는 한생각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 정기법회 법문 韓中英어로 재편집
> 참선수행 시리즈 6~10권까지 발간
> 〈Touching~〉, 영역부분만 한데묶어

▲제 9권 〈한마음 한 뜻이 되어(One With The Universe)〉=대행 스님이 1996년 11월 3일 법형제회법회 때 설하신 법문이다. 이 법문서 대행 스님은 마음공부의 중요성과 마음 계발이 해 낼 수 있는 일의 범위에 대한 우리들의 시야를 확연히 넓혀 준다. 마음공부는 개개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스님은 강조한다. 마음공부는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특정한 지역에 갇히거나 묶인 영령들의 집단을 풀어줘, 그들이 가야할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문제와 같이 지구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거나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자연계의 재앙도 방지 할 수 있다고 스님은 설명한다.

“세세생생 사라지지 않는 지극히 밝아진 마음차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인 우리 지구를 한마음 한 뜻으로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마음공부에 매진해야 합니다.” 스님의 이 가르침은 뇌리서 떠나지 않는다.

▲제 10권 〈지구보존(Protecting the Earth)〉=대행 스님이 1991년 8월 4일 법형제회법회 때 설한 내용이다. 이 세상, 우주 전체는 모두 둘 아니게 한마음으로 돌아가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고 나면서 흐르고 있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이런 이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한마음 속에 흐르는 에너지를 활용 할 수 없어, 우리는 마치 지키는 주인이 없는 빈집과 같아 항상 에너지를 뺏기게 된다고 스님은 덧붙인다. 그러면 내 몸이 쉽게 망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며 가정의 화목도 가져올 수 없으며, 마음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삶을 위한 에너지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의 에너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말씀하신다. “에너지가 충만한 내 한마음 속에 일체를 놓아, 참나를 발견하고,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감지하십시오. 세상을 조절하며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류의 집,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음공부를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我心是金佛(내 마음은 금부처)〉=이 책은 한글본 〈내 마음은 금부처〉의 중국어 간체자본이다. 이 책은 대행 스님이 쓴 지혜와 유머가 담긴 이야기 33편을 모았다. 이솝 우화나 불교의 자카타 이야기를 떠올리는 짧은 이야기들 속에서 스님은 어떻게 해야 내면에 지닌 근본마음의 무한량의 에너지를 꺼내 쓰게 되어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일러준다. 언제나 마를 줄 모르는 끝없는 부모의 사랑,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확연한 깨우침을 주는 스승들의 통쾌한 일갈,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천차만별의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돌려 놓으며 악연을 선연으로 바꿔가는 도리, 인생서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통찰들을 가르쳐 준다. 대행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대를 내 자신으로 보라” “일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단순하게 보이는 이 몇 마디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숨어 있는지를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다.

이 책 머리말을 쓴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이자 중세일본문화연구소 소장인 바바라 루크(Babara Ruch)는 “한국불교문화의 심연(深淵)으로부터 솟아나오는 풍부한 지혜가 배어 있는 이 책이야말로 언제나 우리곁을 지키며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함께 가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평했다.

▲저자 대행 큰스님(1927~2012)은?
1927년 서울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당신이 증득(證得)한 바를 완성키 위해 산중서 수행했다. 1950년 대 말, 치악산 상원사 근처 한 움막에 머무르시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런 호소를 듣고 도움을 주었다. 스님은 자비를 물 마른 웅덩이서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리는 방생에 비유했다. 그래서 집세가 없어 셋집서 쫓겨난 사람들에게는 집을 마련해 줬고, 학비가 없는 학생들에겐 학비를 대주었지만, 스님의 자비행(慈悲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남몰래 보살행을 펼쳤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때뿐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면 속수무책이 되는 사람들을 보며, 스님은 중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생각은 1972년 경기도 안양에 한마음선원을 설립하면서 실천에 옮겨졌다. 이후 40여년 동안 한마음선원에 주석하며, 불법의 진리를 전파했다. 또한 스님은 6개국에 10개의 해외지원과 한국 국내에 15개지원을 세웠다. 이외에도 스님의 가르침은 영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이태리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번역 출간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대행 큰스님은 2012년 5월 22일 세납 86세로 입적하셨으며 법랍 63세셨다.

진귀(眞歸) 수행자와
마주앉아 차한잔의
친견만 해도
각종 말기암 환자의
암성 통증 및
고통들이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법력이
과연 가능한가?
답은 화엄경에 있다.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인터넷 강좌 개설 준비중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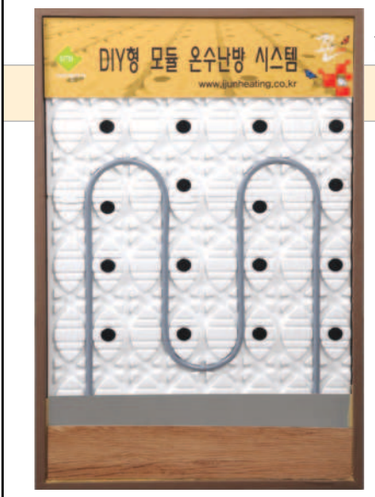
■ 진귀 수행자가 직접 편저한 화엄경 책은 전국서점에서 판매중이며 수행센타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화엄경 책값 15만원임 》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각종 종교적 방편및 천도재 등은 일체하지 않으며 특히 유사 의료행위 및 대체의학 등은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한잔의 친견만 합니다.
■ 진귀 수행자의 친견은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1일 2명만 친견 합니다.

화엄경 수행센타 문의 ☎ 1899-9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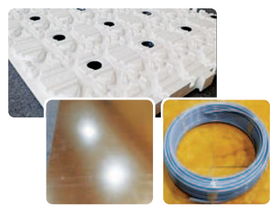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01 02 03 04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진정한 기도, 미워하는 사람위해 하는 것"

마음꽃을 줍다

덕조스님 글 사진 | 김영사 펴냄 | 1만 2900원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서 작은 산길로 50분 정도 올라가 대나무 터널을 지나면 불일암(佛日庵)이 나온다. 경내에 들어서면 텃밭과 아담한 절집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고려시대에 지어져 1975년 법정 스님이 중건한 도량이다. 법정 스님은 이곳에서 수많은 책을 집필했다. 〈마음꽃을 줍다〉의 저자 덕조 스님〈사진〉은 송광사로 출가해 불일암서 법정 스님을 처음 모시며 시봉했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신 뒤 생전 아끼시던 불일암 후박나무 아래 모셔졌고, 수십 년 동안 법정 스님의 곁을 지켰던 첫째 상좌인 덕조 스님은 조용히 불일암을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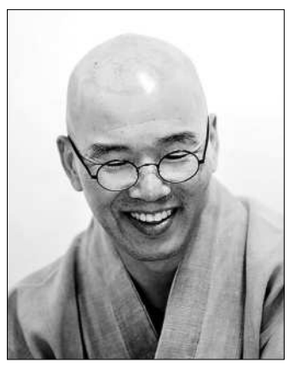
이 책 〈마음꽃을 줍다〉는 前 길상사 주지이자, 현재 송광사 승가대학장인 덕조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집으로 산골에 살며 느끼는 일상의 기쁨과 자연의 숭고한 아름다움, 그 속에서 정리한 삶의 사유를 정감나는 사진들과 함께 들려준다. 글은 간결하고 담박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고, 사진은 꾸밈없이 진솔하다. 섣불리 위로를 하거나 급히 손을 잡아주진 않지만, 편안하고 따뜻하게 미소 짓는 100편의 글과 사진을 보다보면 시나브로 그 속으로 빨려들어 읽는 이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킨다.

"꽃이 피는 봄날에는 풍경을 새로 고쳐 달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감사함을 느낀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시절인연은 항상 거기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듯 자연 속에서 영성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며 발견한 진리는 단순하기에 더 오래 마음에 머문다." 우리도 한번쯤은 생각해 본 것들이지만 바쁘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묻어두고 살았던 삶의 진리들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말한다. 삶은 시간속에 잠시 존재할 뿐이라고.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찾아오고, 어둔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듯 삶의 공식도 어찌 보면 단순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고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모든 것은 시간 속에 잠시 존재하고 안개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우리 삶도 그러하다"

매일 부지런히 기도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 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행복과 평화가 있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유효하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미안하다고 말하자. 진정한 기도란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다. 선한 삶의 자세 앞에서는 종교의 경계조차 무색해진다. 산속에 살아서 유유자적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좋든 싫든 관계가 생기고 타인에 대한 견해가 생긴다.



덕조 스님의 첫번째 에세이집

100편 글과사진… 따뜻한 울림 전해

홈페이지 연재글 중 가려뽑아 실어

그 견해를 바라보는 시선은 각자 다르고, 해결법도 모두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다툼이 생긴다.

이 책은 이렇듯 95편의 짤막한 단상과 5편의 에세이, 71개의 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덕조 스님이 자신의 홈페이지(http://simplemind.org)에 연재한 글과 사진 중에서 가려 뽑고, 새로 에세이를 추가했다. 도심, 산골, 여행길 등 어디서 머물든, 12년 동안 하루하루 마음을 담아 적어 많은 사람들의 지친 일상에 청량한 바람이 돼준 작지만 섬광 같은 글들을 모았다.

곁에 두고 삶이 힘들거나 맘이 흐트러질 때마다 펼쳐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글들 중에서도 특히 법정 스님과의 만남 부분은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수행으로서나 글로서나 무소유의 표상이신 스승, 법정 스님의 곁을 지키며 "은사스님의 그림자에 누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시퍼런 칼날 위를 걷는 마음"이라는 저자의 술회에서 스승을 존경하고 염려하는 제자의 깊은 마음이 느껴진다.

일찍이 법정 스님께서 행자 시절 저자의 됨됨이를 알아보시고, 상좌를 두지 않겠다는 원칙을 깨고 저자를 첫 상좌로 맞아주셨다는 대목에서는 저자의 기쁨이 어떠했을지 생생하게 전해져 가슴이 먹먹해진다. 여행을 다녀오실 때마다 면도기와 만년필 등 선물을 살뜰히 챙기셨다는 스승, 산과 같은 스승이 계시기에 그 그림자에 누가 될까 자신의 글을 세상에 내놓지 않겠노라 다짐한 제자의 아름다운 인연은 스승이 떠나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귀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도 다르다. 얼굴이 다르듯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우리 앞에는 삶이라는 똑같은 주제가 놓여 있다. 저자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도 자신의 몫이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서툴러도 힘들어도 내 마음의 꽃은 내가 피우는 것이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각자 자신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달리면서도 명상 할 수 있을까?

마음에 대해 달리기가 말해 주는 것들

사콩 미팜 지음 | 강수희 옮김 | 불광 펴냄 | 1만 4천원



스님이 달린다

저자는 전 세계에 걸친 명상 공동체 '샴발라'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이다. 한마디로 수많은 제자를 둔 티베트 스님이라는 얘기다. 이 스님이 얼마나 달리기에 푹 빠졌느냐 하면, 해외에 나가 하루 16시간이 넘게 행사를 진행할 때도 새벽에 1시간 먼저 일어나 달리고, 발바닥에 11cm짜리 물집이 생겼어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번개가 내리치고 우박이 쏟아져도 달리고, 해발 3.9km에 달하는 고산지대에서 달리다 고산병에 걸리고, 눈이 허리까지 쌓인 날에도 눈밭을 헤치고 나가 달릴 정도다. 다만, 달리되 그냥 달리지 않고, 자신의 전공인 명상을 적용하며 달린다.

부드럽게 '저스트 두 잇!'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때 무리해서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저자 역시 마찬가지다. "공격적으로 임하면 일부를 성취할 수 있지만 부드럽게 임하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부드러운 몰입'을 권한다. 털을 고르는 호랑이처럼 순간을 만끽하며 부드럽게 달리라는 뜻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달릴 수 있을까? 미리 정해 둔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잘 지켜보며 그에 맞게 미세한 조정을 하며 달리면 된다. 그러한 능동적인 변화는, 러너로 하여금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재미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달리기에 빠져들게 만든다.

대체로 공격성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발현하며,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에게도 관대하지 못해 일과 인생을 그르치곤 한다. 이에 반해 부드러움을 갖춘 사람은 인생이 끝없는 관심이 필요한 여정임을 이해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저스트 두 잇' 한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달리기

이 책에는 네 단계의 달리기가 소개된다. 호랑이의 달리기, 사자의 달리기, 가루다의 달리기, 마지막으로 용의 달리기. 호랑이의 달리기는 앞에서 말한 부드러운 몰입의 달리기다.

사자의 달리기는 부드럽게 몰입하여 달리는 경험의 생생함을 누리는 것이다. 볼을 스쳐 지나는 바람, 새벽의 차가운 공기, 화사한 햇살, 싱그러운 초록을 알아차리며 기쁨을 만끽하는 황홀한 달리기다. 그 아름다운 세계와 자기가 이어져 있음을 자각하며 자기에 대해 조금씩 알아 가는 단계다. 가루다(사람의 팔을 가진 상상 속의 새)의 달리기는 도전이다. 우리는 자기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몰라 두렵고,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를 희망한다.

모두를 위한 달리기

용의 달리기는 상상력의 힘이 발휘되는 달리기다. 이 단계에서 달리기는 개인적인 행위에서 사회적인 행위로 변화한다. 달리기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이뤄 내는 상상력의 힘. 용이 비를 내리듯 달리기는 세상에 공감과 사랑을 퍼뜨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에 '바람의 말(windhorse)'이라는 기운이 있기 때문이다. 호랑이, 사자, 가루다, 용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확립된 이 기운은 부드럽고 생기 있으며, 명철하고 자비로워서, 우리로 하여금 자아라는 좁은 껍데기를 벗고 더 크고 넓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저 달리는 순간에 충실하고 자기에게 관대한 태도로 꾸준히 달린 러너들은 결국 이 기운을 공유하고야 만다.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참여한다. 자기를 위해 시작한 달리기는 모두를 위한 달리기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한다. **김주일 기자**

"공덕의 통장 계좌 늘어야 삶도 행복"

승만의 꽃다발을 당신에게

이란 지음 | 사유수 펴냄 | 1만 7천원





이 책의 저자 이란 회장〈사진〉은 여여원을 설립해 지난 사반세기 동안 가정법회를 운영해 오며 여성불자의 위상과 역할을 극대화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오랜 세월동안 자신의 아파트집을 가정법당으로 개방해 왔다. 계기는 생각마저 단조로웠다. 불교를 접하기 전에는 시서화와 차를 공부하고 남편을 섬기며, 아이들 키우는 일에 치중하고 살던 이 회장이 집을 방문한 한 스님의 말을 가슴에 새긴 것이 계기였다. 그 스님은 이 회장의 집을 보며 "보살님 집이 불자들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이 회장은 20여년 동안 한달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가정법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 회장은 이 책에서 "인과와 윤회를 알고는 인생의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된다는 자각이 들었고, 그것이 인생을 바로보고 잘 살게하는 묘약이란 생각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처럼 좋은 가르침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집에서 법회를 연 것"이라고 가정 법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처음엔 도반들과 함께 집에서 1년에 한번씩 법회를 가졌다. 언젠가는 100여명이 넘게 모이기도 했다. 3년 정도 지나면서 이들끼리 자연스럽게 정기법회를 열자는 서원을 세웠다. 공부하는 모임도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의 '여여회(如如會)'였다.

저자는 "한 달에 한번씩 법사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열면서 20년 동안 내가 부처님 법에 물들면 가족이 물들고, 가족이 물들면 이웃이 물들고, 이웃이 물들면 사회가 물든다는 생각으로 신앙띠잇기 운동을 펼쳐왔다"며 "이 운동을 모임의 이름처럼 여여하게 여법하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격려와 응원 덕분이었다"고 회고했다.

저자 교리공부 뿐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다.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펼친 다양한 보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선방대중 공양을 비롯해 운주사, 연흥사, 거조암 등 여러사찰의 불사동참, 경전이 필요한 사찰에는 한글대장경, 티베트대장경 등을 봉헌하고 전국에 불교서적 1만여권 이상을 법보시하기도 했다. 저자는 "퇴락했던 절이 불사 후 새로 태어난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뿌듯했다"며 "은행통장은 숫자로 보이지만 공덕통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공덕통장이 쌓여야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겠는가"하고 술회한다.

저자의 말처럼 이 회장은 공덕통장의 계좌 잔고가 많이 쌓여서인지 난소암 진단을 받았던 죽음의 위기앞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행복해 했다.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한쌍이다.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했다. 과거에도 행복했고, 이 순간도 행복하다. 그 어떤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었다. 순간순간 즐겁게 살아왔기 때문에 죽는다해도 미련은 없었다"고 당당히 밝혔다.

저자는 특히 현대불교신문과 인연이 깊다. 오랜 장기독자임과 동시에 20년전 현대불교신문서 주최한 신행수기 공모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 책에 나온 글도 지난해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한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불자로서 여성으로 또한 어머니와 한 지아비의 아내로 살았던 기억의 편린들을 털어놓았다. 이어 4장에서는 그동안 저자와 인연을 맺었던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인연담을 소개했다. 특히 이 책서 인상적인 것은 에필로그다. 유서를 미리 써놓았다. '행복했던 세 남자와의 인연, 그리고 굿바이'란 제목으로 그동안 두 아들과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과 고마움을 글로 표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박경리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심정도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고백한다. 그리고 불교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는게 어려웠을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감사함도 밝힌다.

20여 년간 가정법회 운영 회향

'여여회' 조직해 신행활동 활발

화려한 글솜씨나 미사여구가 들어 있진 않아도 책장을 넘기면서 진한 감동을 전해주는 비결은 바로 진실함일 것 같다. 책장을 다 덮고 나면 진실한 참불자의 고백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지며 초발심이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저자 이란 회장은 현대불교신문 제 1회 감사편지 공모 시상식장에서 이번에 출간된 〈승만의 꽃다발을 당신에게〉를 50권 법공양해 참석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 문제는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

불교로 읽는 古典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



신승철
시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 그의 '개인 심리학' 이 요즘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기시미 이치로(岸見一郎)의 책 〈미움 받을 용기〉가 서점에서 조용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덕분이다. 이 책은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 저자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전공자로 알려졌는데, 아들러 심리학을 만나게 되면서 상담 경험도 쌓았다고 한다. 그의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이유는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철학적' 문제를 일상적인 대화의 형식을 빌려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며, 그런 가운데 아들러 심리학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는 매력이 있어서일 것이다.

아들러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신분석 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사실 당대에 그는 프로이트의 제자였고, 융과 더불어 정신분석학의 거두였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면, 그 갈래에서 융은 분석심리학을 체계화시켰고, 아들러는 스스로 명명한 '개인 심리학' 을 건립시켰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이해가 그리 어렵지가 않다. 일반에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상의 말로 쓰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표현. 그것은 아들러의 의도이자 특징이기도 하다. 앞의 우화는 아들러 심리학의 인상을 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다. 물론 지나친 단순화다. 그러나 아들러는 인간 심리에 대해 복잡한 방정식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상 용어로 풀이하여 보통 사람도 알아듣기 쉽게 했다는 점에서 프로이트나 융과는 그 차이가 뚜렷하다.

아들러는 프로이트 학파와 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는 당대의 주류 프로이트식의 '질환에 대한 원인 해석론' 에 대해서는 물론 그 치유 방식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프로이트 식의 치료는 아마도 너무 '복잡' 하고,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지나치게 성욕에 초점을 둔다는 게 그의 마음에 안 들었지 싶다. 아들러 심리학에 천착을 한 바 없지만 나름 아들러의 저술을 통해 들여다 본 그의 치료 방식, 그리고 그가 직접 토로한 지론에 의거해서 내린 결론이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그 차이의 주요 내용에 대해 훑어보자.

첫째, 아들러는 프로이트 학파의 결정론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결정론이란 하나의 환원론적 해석이기도 하다. 아들러는 자신의 임상체험을 토대로 프로이트의 '가설' 을 부인한다. 한 마디로 그는 결정론이 아니라 목적론을 지향했다. 인간은 주어진 조건, 그 너머를 추구한다고 그는 믿었다. 결코 결과를 원인으로서만 환원을 시켜, '해석' 하는 일만으로는 만족을 할 수 없다고 봤던 것이다.

그럼 그의 목적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가령, 사람이란 인과관계에 얽매여 살아가지만 동시에 인과관계를 넘거나 '극복' 을 하여, 계속 '위로' 향해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말을 뜻한다. 그의 인간심리 해석에 있어, 남다른 특징적 이론으로 여겨지는, 열등 · 우월 콤플렉스를 갖고 말하면 보다 이해가 쉬워지겠다.

참고로 그는 프로이트가 강조한 범성욕설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이는 응석받이로 자란 특별한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콤플렉스라 여겼다. 그는 외려 인간 성장 과정에서는 열등의식이라는 것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이트 심리학에 반기 든 인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보편성 부정
목적론 중시한 '개인 심리학' 완성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가 부여한다"
'마음서 비롯된다' 는 불교와 상통해
Ego 실상을 알아야 온전한 삶 영위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진. 그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개인심리학' 을 수립하였으며, 인간의 행동과 발달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존재에 보편적인 열등감 · 무력감과 이를 보상 또는 극복하려는 권력에의 의지, 즉 열등감에 대한 보상욕구라고 생각했다.

둘째, 아들러는 개인적 '증상' 이든, 성격이든, 주어진 현실이든 그 모두가 '자신이 만든 것' 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어느 경우가 됐든, 인생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정한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나 행복에 있어서, 외적인 조건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말뜻이다. 사실 거개의 인간들은 외부 조건이나 과거에 얽매여, 그리고 집안이나 제 운명을 탓하기도 하며, 주어진 '현실' 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만일 불행의 원인을 외부 조건 탓이라며 한탄을 일삼는다면, 매정한 논리라 여길지는 몰라도, 분명 그건 그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

셋째, 아들러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요건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적 자립, 홀로 서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고, 만약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적극 도움을 요청해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도 자립 정신에 속한다. 어느 경우엔 주어진 조건을 흔쾌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자립을 위해 때에 따라 존재에의 용기를 발휘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넷째, 행복을 원하거든 평범해지려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아들러는 힘주어 말한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행복을 찾으려 하는데도 행복을 끝내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 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행복에 대한 장애임을 깨닫지 못해서다.

하지만 아들러는 그 전에 먼저 인간은 모두 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평등 정신이란 곧 상대가 아이가 됐건, 노인이 됐건, 적대자가 됐건, 피부색이 다르든, 상관없이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이 정신에는 또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함부로 내지 임의적으로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내포돼 있다. 이런 마음 자세라면 '사사로운 인정 욕구' 는 그런 (평등의)마음 씀 가운데 자연스레 누그러지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들러 개인 심리학에 대한 불교적 관점에 대해서다. 먼저 아들러의 목적론적 인생관이다. 실상 주요 종교는 다 목적론이지 않은가. 불교 역시 '깨달음' 을 소중한 양식으로 삼으니, 목적론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입장에서, 이른바 이 삶에 목적이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본래 갖춰진 자성 · 불성, 곧 행복의 원천을 체득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성숙된 그 마음의 안팎으로는 자비 ·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행복 · 지복에 이르게 된다는 맥락일 것이다. 온전히 자성을 깨닫는 일이란 일련의 수행과정을 요구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실현과는 그 층위에서 차이가 난다. 불교적 수행이란 자아실현을 포함해 그 수준을 넘어선, 일종의 '의식혁명' 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알다시피 상담심리학의 영역이 불교 수행과 유사한 것은, 양자는 모두 '밖' 이 아니라 '안' 을 깊이 비추어려는 공통의 지향의식이 있다. 심리학은 자기 경험의 분석과 더불어 '괴로움' 의 원인인 핵심의 애응지물(碍膺之物)을 깨달아, 이를 제어하는 힘을 키우게 함이 목적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불교적 수행은 명상 · 참선 · 염불 같은 수단을 통해, 보다 근원적으로 에고(Ego, 오온의 가화합)의 실상을 깨달아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게 그 지향하는 바다. 그 깨달음에는 일체가 평등하다는 앎, 그 어느 것에도 '나' 라고 지칭할 만한 것은 없고, 에고란 것은 환영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앎이다. 깨달아야 할 궁극의 앎이 있으니, 불교는 목적론적 입장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결정론적 입장에서 보는 인과의 관계성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연기적 · 인과적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실' 을 있는 그대로 수용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인과에 얽매여 '이치' 를 그르치지 않게 보는 게 불교적인 세계관이라 여겨진다. 연기(緣起) · 공(空)의 참뜻이 아니겠는가.

참고로 이런 선문답 일화가 있다. 예전에 인과의 '진리' 에 눈 밝은 한 학인이 어느 선사에게 도에 대해 물었다. 선사는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말로 응수 했고, 이에 그는 크게 깨우쳤다고 한다. 우주 내에 벌어지는 인과 · 과학적 법칙을 수용하되, 그 작용 안에 머물지 않는, 향상일로의 마음을 단적으로 가리켰다고 봄이다.

아들러의 인생관은 불교에서 보는 세계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가 인생은 자기가 만든 것이고, 인생의 의미도 자기가 부여한 것이라는 말. 해서 인생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자기뿐이라고 한 말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던 당시 유럽 사회에 꽤나 큰 충격을 주었으리라.

이 말은 〈화엄경〉에서 이른,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란 말과 상통하는 말이 아닌가. 일체가 마음이 만들었다는 말은, 바로 이 마음 안에 세상이나 우주에 대한 앎이 있다는 것이고, 이 마음 말고,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세상이나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뜻이다. 이 마음, 곧 자신이 인생 · 현실을 만든 것(自業自得)이라 봄이니, 이를 바꾸는 주체도 자신의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들러가 '인생의 거짓말' 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고 한 말은 바로 에고의 실상을 알아차리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다. '인생의 거짓말' 이란 이 에고가 누리는 삶에 '진실' 이란 것은 없는 것이며, 삶은 하나의 꿈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는 함의이기도 하다. 육근(六根)을 갖춘 에고는 하나의 물건, 이 삶을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훌륭한 수단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 아들러가 말한 자립정신에 대해서다. 실상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란, 진정한 자립정신의 화현으로, 곧 나르시시즘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도 있겠다. 곧 '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제 삶의 에너지를 타자를 위해, 즉 타인을 위한 공헌을 하게 될 때, 자연 보살도에 들어서게 된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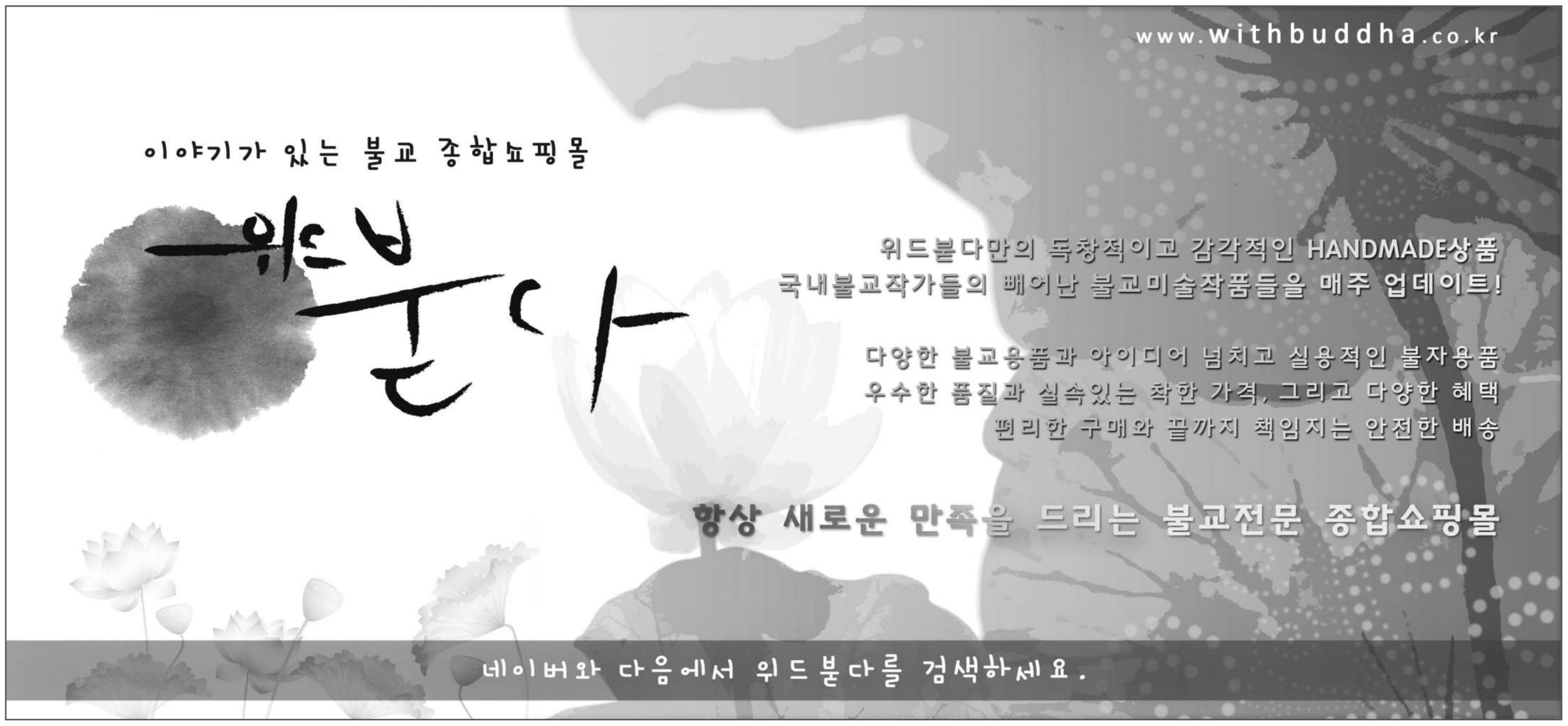
열등의식은 '나' 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의 산물이다. 열등의식을 극복하려는 우월의식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육바라밀을 통해서이지만, 그 중 보시를 으뜸으로 삼는 이유는, 진정한 보시를 행함에 나머지 다섯 바라밀이 다 녹아져 있기도 해서일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먼저 진심에서 보시를 행하는 자라면, 꾸준히 그 선근 종자를 심은 결과, 번뇌의 원천인 나르시시즘의 감옥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자립은 물론 홀로 있음의 정신이 뒷받침돼야 온전해지겠다.

불교에서는 선정(禪定)의 체험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제 몸과 마음을 '자율적으로' 다스리기 어려울 거라 내다본다. 하지만 아들러는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제대로 챙기려는 자세가 긴요하다고 말한다.

일상의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 자립의 정신은 싹틀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구별을 명료히 한 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는 태도. 이게 자립의 기반이요, 행복의 열쇠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 행동이 타자를 위한 공헌이라면 자기에게도 매우 유익하게 돌아옴이다. 자리가 이타요, 이타가 바로 자리가 된다는 말이다. 열등의식을 우월의식으로 전변시키게 되면, 연민의 마음이 스며들기 마련이고, 해서 여러 방편의 자비행도 자연 우러나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범해지려는 용기에 대해서다. 아들러는 자신의 인생 · 임상 체험에서 우러나온 실천적 의미의 평등정신이었다. 사실 일체가 평등하다는 말은 '진리' 다. 제법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인 이치를 깊이 이해한다면, 모든 게 오온(五蘊)이 가화합(假和合)하여 형성됐다는 앎에 이른다. 일체는 본래부터 평등한 입장에 서있음이 자명하다. 불교에서 무분별지나 평등성지란 말이 있다. 제7식의 전식이기도 하다. 문수보살은 선문답에서 "前三三, 後三三" 이란 멋진 말도 남겼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 · 분별지 · 현실적 '차이' 를 알아야, 주어진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 실상 이런 일은 내면의 진정한 힘인 평등정신 · 무분별지 · 차별의식을 두지 않는 마음이 뒷받침 돼야 순탄하게 이뤄질 것이다. 평등정신은 아들러가 말했듯이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앎과 실천의 병행' 이 진정 행복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불교평론 5월 열린논단에서 발표된 글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발췌 · 수록했습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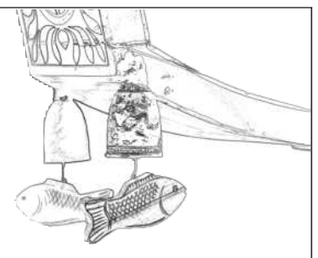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잘 알아 시행하기 때문에 바다에 강물이
끊임없이 모여들 듯 재물은 나날이 늘어나리라.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명리첩경의 저자 -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분
010-4482-4684
010-3054-3345



범패의식 교육도량

의식을 쉽게 개인지도
일반의식 바라, 작법무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점안식,불교행사
(보현사)
011-482-2091
051-557-1130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육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관 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얼굴손금만 봐도 어떤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다
  암질병,선소문제재판가족,교통사고운을 알 수 있다
- 관상, 손금, 성명학, 타로, 사주
  (개인지도, 단체)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책 출간 (판매 중)

010-4014-8822

침술, 뜸, 부항, 한약,역학 (명리)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요법)전
문학원. 외국한의사,
침구사 자격시험대비반.
수강생 수시모집
www.macsj.kr
네이버 검색 「맥승정」 클릭
010-8862-1908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54-286-1182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515-0664

공부하면서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0-9340-3921

비구니 기도 스님 모십니다

(경북 성주군 성주사)
010-6506-4059

-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 하실 기도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태고종비구니스님환영)
- 불심깊은 공양주 보살님 도 모십니다
  (경남 거제, 옥녀산 자락)

010-7169-9878

적은 보시금 받고 남은 여생을 같이 지낼 수 있는 세수 55-63세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499-372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공주, 계룡산)
042-825-1724

여름에 시원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산내암자, 기도하며 공양주할 불심 있는 불자 공양주 구함

(경북 예천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특수하고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불교수련원, 사찰 명당 터 (경기 양평)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685-1 산음캠핑
- 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하여 드립니다.
- 18,000여평에 캠핑장 15동 / 수영장, 체육시설 완비
- 캠핑장 운영으로 조경시설 완벽
- 가액 : 38억

문의전화 : 010-6335-069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염불,기도소리 들리는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3-474-8228, 010-8582-7034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사단법인 종단 인수하실 분

종단명 : 사단법인 0000조계종
복지사업 병행가능함. (필요시 종단명칭 변경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문의전화 : 070-7717-2276 (영의스님)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뭇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오온(육신,감각,지각,의지,분별)의 집착은
그 뿌리를 갈망에 두고 있느니라.

- 잡아함경 -

사 찰 안 내

▶ 청정지역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각종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1억 8천

▶ 관광 사찰 안내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1,900여평
- 건물 : 법당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15평 세계불교박물관 (5,400여년 전 벼락 맞은 대추나무화석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은행 5억 별도)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김천시 사찰 부지
- 임야, 토지 포함 약 6,500㎡
- 산속이며 도로접 계곡접 최고 요지
- 양도금액 : 3억 5천만(융자가능)
- 위치좋음,청정수계곡토목공사완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800평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2평
- 가액 : 3억 2천만원

010-8034-8309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인법당 20평 요사채 60평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가액 : 2억 6천만원

010-2060-279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60평 ◎ 법당 : 30평, 교통편리 ◎ 요사 : 60평, ◎ 양도 : 9억2천
◎ 위치 : 수도권 ◎ 종교용지 : 1300평 ◎ 목조법당 : 500평 ◎ 요사 : 100평 ◎ 양도 : 16억2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천안시 사찰 급 양도
* 목조 법당 60㎡, 황토요사채 90㎡, 산신각 등
* 토지 5,000㎡ 접근성 좋은 산쪽 사찰
* 양도가 : 4억 3천만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한 옥 주 택

산자락 예쁜한옥 비움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주인께 드립니다
- 위치 : 경남 창녕 부곡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 30평
- 목조, 기와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 (황토방, 정자)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주거지역 위치
- 내용 : 대지 139평, 건평 140평, 3층건물 법당 30평
- 삼존불, 신중 지장단 영단 법단 단청, 방6개
- 공양간, 창고, 차고, 다용도실, 화장실 3개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8m 도로접, 초등학교 100m 버스 전철역 200m
- 가액 : 14억 (학업관계로 급 안내)

051)754-3375

사 찰 안 내

- 위치 :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980번지 (칠서 IC에서 5분거리)
- 대지 330평, 삼신각 5.2평, 대웅전 15평 요사채(가건물) 30평
- 가액 : 4억 5천

010-4819-8690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옥과설산, 적송림 7부, 사자앙천혈
- 산 : 1만 2천평, 종교부지 650평 : 약사석불 12자
- 건물 : 경량철골 3동, 합 52평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암반수, 초중고 대학교 유
- 가액 : 3억 7천 (장난전화사절)

010-8224-168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화장실 1칸 사무실겸 스님방 욕실 9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 1억 3천만원

010-9183-065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도심 작은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장한평(5호선 5번출구 5분) 자동차시장 끝 쪽
- 건물 : 도시형 오피스텔 170실의 10층 건물에 2층 15평
- 시설 : 아미타불, 관세음, 소불 30불 대세지, 지장보살, 탱화 일체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결정

010-9105-002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6천만원

010-4564-81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큰도로변 버스정류소 옆 2층
- 약 60평, 큰법당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공양간, 샤워실 큰방1개, 작은방 2개
- 위치 환경 특 A급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조절불가)

010-7337-172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신정동
- 6층 건물중 2층 90평
- 법당, 요사채, 공양간, 친견실
- 시설 특 A, 시설비 답사후 절충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010-5292-1090

포교원 안내

- 위치 : 춘천시 동부시장 내
- 2층 50평, 삼존불, 산신각
- 살림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010-9235-75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용호동(230평)
- 건물 : 5층 건물중 5층, 엘리베이터사용
- 구조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지장단 방 5칸, 공양간, 종무실
- 가액 :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 시설비 5천만원(답사 후 절충가능)

010-9688-2254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영광군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6평
- 연못 차고 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235-111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동
- 2층에 2층, 약 60평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2개, 화장실겸욕실 2개
- 보증금 2000만원, 월12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5497-766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121, 1121-1, 1125번지
- 종교부지 : 302평, 과수원 390평
- 전기, 토목공사 완료
- 지관이 추천한 명당
- 가액 : 1억 5천만원

010-7156-9687

현장 답사후 연락주세요

법당,포교원 안내

- 위치: 안산IC,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진입 위치좋은역세권
- 교통편리,유동인구, 유동차량 많은 대로변에 위치
- 법당, 포교원, 수련원으로 아주 적합
- 상가형성 잘되어 입지조건좋고, 일체 종교행사 민원없음
- 전철, 농수산물시장10분거리
- 4층독채(엘리베이터있음), 실평수 60평, 법당, 주거 겸용 풀완벽 리모델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 90만원 시설비 4000만원, 가격절충가능

핸드폰 010-5913-7239
010-3145-86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부전시장 서면역5분거리 포교원 최고의 위치
- 5층건물에 4층 47평(엘리베이터)
- 법당(20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후불탱화 108호신불, 완벽시설.
- 강의실(명리학, 불교대학, 불교의식)겸 공양간(17평), 종무실, 주지실 (10평)
- 가액: 보증금 2,000만원월 월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
- 명리학 공부하신 스님 최고의 조건
- 현재 수강생 30명, 천도재 상담 많음

010-3711-5072

명당사찰 및 별장 터 안내

- 위치 : 포천 왕방산 대진대학 우측 중앙 위치
- 군신동조 혈자리 금시발복 거부장자 문무겸전 터
- 대지 300평, 1층 100평 / 2층 100평
- 가액 : 8억 5천

010-9292-31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5층건물 중 2층, 약 65평
- 법당, 산신각 방4, 최고시설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401-40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포교원
- 2층 건물 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 사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추후 결정
- 시설완벽, 즉시법회

010-8725-3196

사 찰 전 세

- 위치 : 서울 근교 수도권 위치
- 총부지 200평 위에 산세수려하고 목조단청 전통사찰로써 포교 30년된 사찰
- 공찰소임관계로 비구니스님 원함
- 가액 : 전세 3억 이상

010-5466-332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 주변에 주택가 밀집지역
- 금정산 자락을 등지고 있음
- 전철역 도보 10분. 버스정류장 3분
- 대지 208평, 건물 146평(2개동) 넓은 대웅전 법당(45평), 공양간
- 요사채 140평, 참선방 30평, 샤워실2
- 가액 : 9억

010-5645-5577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임법당 30평, 대지 250평
- 삼존불 모셔져 있고 산신각 별도로 있음
- 모든 집기류 사용가능함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양도도 가능함
- 산세수려하고 조용하고 수양지로 최적합

010-2271-5811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 용흥동 구포항역 도보5분
- 평수 25평, 법당, 방한칸, 주방
- 집기류 일체 두고감
- 가액 : 보증금 5백 월 20만원 시설비 7백만원

010-7788-3320
010-3290-6699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 도심 사찰 의창구
- 교통, 경치, 생활방편 양호
- 슬래브지붕, 토기와 올렸음
- 6층 전체사용, 상가빌라 2채
- 도시가스, 수도직수, 지하주차장
- 전유면적 많음
- 건평 : 종교시설 601호 33.56평, 법당, 단청 602호 요사채 26평, 주택
- 가액 : 3억

010-4548-7662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2차선 대로변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합 1천 5백만원, 절충 없음
-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053-651-1514
010-2500-151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 구합니다

- 위치 : 경기도 지역
- 창건주 승계도 가능함
- 부동산 중매인 사절

010-4415-0788

아름다운 집

- 위치 : 경북 영덕 창수 한적한곳 지목대지
- 456평, 건물 55평, 개축완료
- 남향 대형차 진입 다목적
- 가액 : 반값 8,500만원 일부 후불 가능

010-8899-8899
054-682-88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4층 중 3층
- 32평, 법당, 방 2, 베란다, 도시가스, 주방
- 가액 : 전세 150만원 월세 36만원 시설비 약간(절충가)

010-9342-9794

비구니 수행관 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뒤는 산, 앞은 근린 생활권인 공기 좋은 곳)
- 특이사항 : 비구니스님들의 주거 및 수행공간
- 방평수 15평
- 가액 : 추후 연락주시는 분에 한해서 알려드림

010-6468-306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초목이 가득한 암자
- 유실수, 정원수 가득, 넓은 공간
- 가액 : 보증금 5,000만원 1년 350만원

※ 양도도 가능

010-8826-8373

마 산 암 자 안 내

- 위치 : 마산 무학산 입구 주차편리
- 2층 건물 1층 법당, 2층 방 2칸, 친견실 별도
- 특징 : 37년간 암자로 사용
- 삼존불, 용왕당
- 건물 깨끗함(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 월세(8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7169-9878

암자 및 종교부지 안내

- 위치 :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쑥골)
- 지목 : 토지임야(계획관리지역+보존임야)
- 평수 : 약 2200평(진입도로 포장완료)
- 특징 : 서울에서 약1시간대 거리, 평당 10만원
- 위치 :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 지목 : 생산관리지역(토임)
- 평수 : 약 333평 • 향 : 동향 ~ 동남향
- 평당 : 30만원 • 진입도로폭 6M 포장완료

주인직접 010-2215-3657 합장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
- 주차편리, 도로변(태화강변)
- 완벽시설(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2259-363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 ~ 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지묘동 파계로
- 대지 300평
- 법당, 방 9개
- 석불 다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년 선불 30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9735-8032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공유지 포함 약 20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후원 9평,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답사후 절충가능,시설비 포함)

010-3895-2258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요지
- 평수 50평, 3층 건물 중 1층 법당 장엄함, 쏙찜질방2칸, 쪽방2칸, 거실 부엌
- 주차시설 완벽
- 몸만 오시면 법회즉시 가능함
- 보증금 8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 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 5억 7천만원 (대출 3억 안고 양도금액 2억 7천)

010-5019-5385

별장 토굴 안내

- 위치: 양산 원동면 화제리 성지골마을 대양산, 물금 IC에서 20분
- 대지 150평, 건평 40평, 2층 양옥 별장주택(2층 : 큰방1, 큰거실, 욕실)
- 정남향에 조용하고 탁트인 시원한 전망 수행하기 좋은 명당터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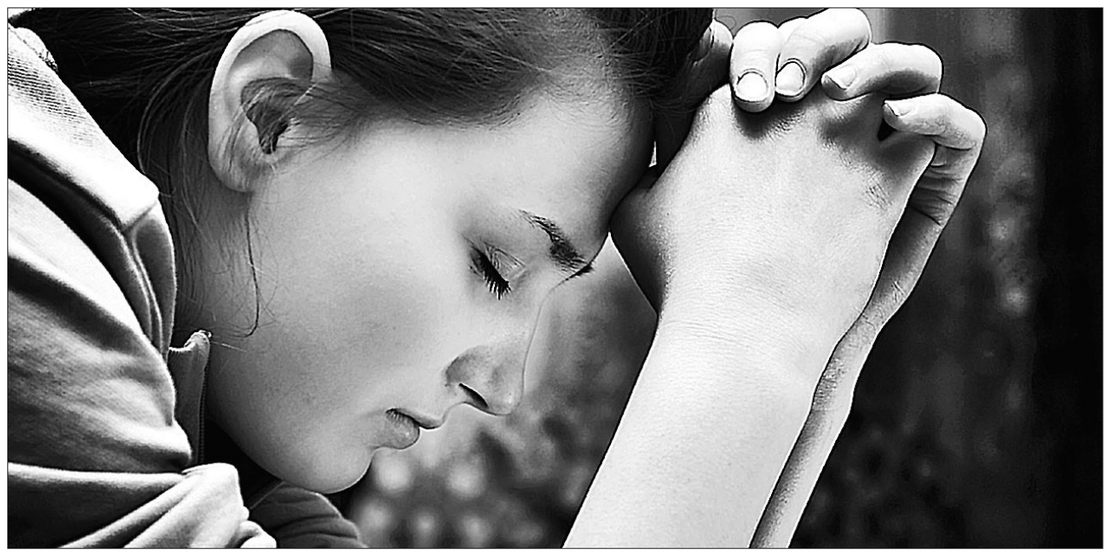
주인직접 010-6525-3817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3〉 아픈 나를 받아들이기 ㊤

타인 기쁨 '공감' … 내적 행복 가져온다



붓다는 공감 능력을 키우라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6장 도입부에 있는 스즈키 순류(일본의 선승. 미국에 명상센터를 세움.《선심초심(禪心初心)》 저자) 선사의 말을 바꿔보자면, 공감은 나로 하여금 완전한 존재를 발견하게 해 주었다. 비록 내 육신의 건강은 완전함과 거리가 멀지라도.

몸은 깨달음의 도구

자애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마음가짐이며 자애 수행은 기도문을 하나 정해서 그것을 거듭 암송하는 것이다. 이 기도문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전체, 혹은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자애 수행을 하기 위해 내가 정한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편안한 행복을 얻기를
내가 고통의 끝에 이르기를
그리고 자유로워지기를."

이 네 구절에 마법 같은 것은 없다. 그 리듬과 의미가 나에게 잘 맞았을 뿐이다. 나는 '편안한 행복' 이라는 이 구절을 좋아한다.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자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샤워를 할 때 내가 편안한 행복을 얻기를…… 이 밥을 먹을 때 내가 편안한 행복을 얻기를…… 낮잠을 자려고 누울 때 내가 편안한 행복을 얻기를…… 아픔과 피로와 고통을 느끼는 동안에도 내가 편안한 행복을 얻기를."

몇 가지 기도문들을 스스로 시도해 본 뒤에 한 가지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주제가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기만 하다면 선택한 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관없다. 이 기도문들을 반복하면서 그것에 귀기울이고 그 의미에 대해 명상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몸과 마음과 가슴이 부드러워지고 위안을 받는다. 실제로 이제는 "내가 평화롭기를"만 조용히 되뇌어도 그것이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준다. 내 몸과 마음은 그다음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다.

질투는 평화와 고요 몰아내는 독
타인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
'공감' 은 내적 행복 가져와

이룰 수 없는 것 원하면 고통
편안한 행복 구하는 '자애' 가 해답
나에게 먼저 자애 베풀어야

"평화, 편안한 행복, 고통의 끝, 자유."

'고통의 끝' 은 첫 번째 고귀한 진리에서 들었기에 이미 익숙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붓다는 두카와 두카의 종말 두 가지를 가르쳤다. 건강이 나아지지 않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나 자신을 대상으로 자애를 연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고통의 끝에 이르기를' 부분에 가서 깨닫게 되었다. 아픔을 그만 느끼기를, 다시 말해 몸의 불편함이 '사라지기' 를, 그리고 이제 '그만 아프기' 를 내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히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 그때 나는 대부분의 고통이 병으로 인한 몸의 불편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며 반응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내가 바라는 마음의 고통의 끝은 '마음속 고통' 의 끝이 되었다. 이처럼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붓다가 말한 '두카의 종말' 의 의미와 일치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문을 반복하다 보면 몸이 아픈 사실에 대해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된다. 내가 아픈 것은 내 몸의 잘못이 아니다. 내 몸은 내 삶을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애 기도문은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뒤, 자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가 가장 쉬운 사람부터 가장 어려운 사람까지 대상을 계속 옮겨 간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그 기도문을 말한다. 이것은 그 수행을 하기 위한 마음을 열어 준다. 자신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애심을 키우기가 어렵다. 얼마 후에는 그 기도문을 무척 고마운 사람, 자신에게 매우 너그러웠던 사람에게로 향한다. 그런 다음 좋고 나쁜 감정을 번갈아 느끼는 대상에게,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옮겨 간다. 그 후 특별한 감정이 없는 대상에게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분노나 비난, 고통의 근원인 마음 상태를 만들어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자애 수행의 목적은 이런 식으로 자애의 마음가짐을 키워서 그것이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살아 있는 존재를 다정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이 점차 자연스러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수행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자신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사람을 자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거나 당신의 병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의사이거나 당신이 지지하지 않는 유명인일 수도 있다. 눈엣가시 같은 사람이 평화로워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애 수행을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으로 변화시킨다.

2008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세라 페일린(버락오바마의 경쟁자였던 존매케인이 지명한 부통령 후보. 다섯 아이의 엄마로, 값비싼 명품 의상 등으로 선거 기간 중 구설수에 올랐다)은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도 자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되었다. 일생 동안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나는 2008년 대통령 선거도 침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나는 세라페일린의 정치적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보여준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싫었으며 야당 사람들을 인신공격하는 모습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곧 깨닫게 되었다. 그녀를 향한 분노가 근원이 되어 이미 아픈 내 몸이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그래서 나는 과거에 심하게 혐오감을 느꼈던 사람에 대해 여러 번 시도해 보았던 방법을 썼다. 내가 만든 자애 기도문을 곧바로 이용한 것이다.

"세라 페일린을 향한 나의 혐오감이 불러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그러고 나서 그녀에게로 옮겨갔다.

"세라 페일린, 당신이 평화롭기를. 편안한 행복을 얻기를. 고통의 끝에 이르기를. 그리고 자유로워지기를."

물론 이것은 붓다가 자애 수행을 통해 의도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계속 그렇게 했다. 이윽고 그 기도문은 진정성을 띠게 되었다. 이윽고 나는 내 몸과 마음과 가슴에서 독이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자애 수행이 해독제가 된 것이다.

아픈 몸과 문제 있는 마음, 굳어진 가슴을 자애 수행보다 더 잘 달래는 것은 없다. 당신이 애정과 자애로 삶의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이 글은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문학의 숲)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오정암

• 법 명 : 정수

• 주 소 : 경북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72-4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투자 주주님 모십니다

■ 위치 : 충북 음성군 〈이천시, 안성시〉 경계 인접
■ 허가득 신축 공사중 242 베드 대형요양원
■ 최고 수익성 안정적이고 전망있는 (복지) 노유시설
■ 사업 뜻 있는 불자님
■ 경영이사 (종교사회복지재단)
■ 2억 투자시 월소득 1,000만원 보장
■ 투자금 : 2억 ~ 10억

문의 전화 02) 849-7080
010-3634-7080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광덕 스님 ㊦

존재감 분명한 인상… 신비감 경외심 마저

광덕 스님은 "깨닫기 전에는 너 자신도 의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준수하셨다.

깨달은 자의 모든 말씀은 그 자체가 경이라며 평생 동안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실천하신 분이셨다.

스님의 정신적 깊이는 화가의 눈으로 감히 알 도리가 없지만 광덕 스님을 떠올리면 우선 머리 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다. 어질고 친근했으며 항상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생활이었다. 도심 대중 포교에 전력하였고 유머와 배려심이 몸에 가득 했다.

스님의 자태는 순일하다. 특히 앉아 계실 때 모습을 보면 얼굴은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어께는 오른쪽이 내려가 있어 수줍은 듯 단아하다. 여기에 손과 발까지 가지런하여 자기 근신의 생활화가 읽혀진다.

스님의 얼굴빛은 투명하고 맑다. 얼굴에는 작은 점이나 검버섯이 거의 없다. 심지어 주름조차 없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흔한 고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귀티가 느껴진다. 치열한 자기성찰의 힘일 것이다.

우선 스님의 얼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불쑥 솟아 오른 정수리이다. 이마와 정수리 색은 밝고 광채가 났다. 동양에서 지혜로운 모습을 상징하거나 높은 경지에 오른 인물 그

스님의 눈은 선과 형태
그리고 명암이 뚜렷하다.
'눈부처' 와 같다.
눈빛은 맑고 파랗고 깊다.

리고 신선 등을 표현하는데 머리 위를 길게 하거나 강조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동양회화사에서 작품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이상미를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스님의 눈썹은 짙고 굵다. 따라서 평소 느낄 수 있는 스님의 다소곳한 자세와 달리 골기와 기백이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눈썹 속엔 야취가 숨어 있다. 스님의 어린 시절에 어떤 부잡스러움이나 장난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호기심 많고 집중력 없는 시절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유일하게 스님의 고운 자태와 다른 반대의 야성이 눈썹에 숨어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눈썹에 있는 다수의 상처는 좌우 눈썹의 방향과 형태에 변화를 준다. 눈썹의 구성은 조밀함과 여백이 혼재되어 있어 깔끔함이 덜하다. 그러나 힘 있게 자란 긴 눈썹에 가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런 점은 스님의 구도행위가 결코 순탄하지만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는 스님의 모습은 오랜 수행의 결과로 형성된 후천적인 모습으로 생각되어지는 이유다.

스님의 눈은 선과 형태 그리고 명암이 뚜렷하다. 눈부처와 같다. 눈빛은 맑고 파랗고 깊다. 자기 긍정과 향상의 정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스님의 눈 형태는 좌우가 다르다. 왼쪽 눈이 더 크고 홍채도 뚜렷하며 외부를 향하고 있지만 오른쪽 눈은 작고 깊어 내부로 스며들어 있다. 이런 형태는 내면과 외면 그리고 자기와 타자의 이중적인 가시거리를 제공한다. 때문에 보는 자에게는 신비감과 동시에 경외심마저 느끼게 하는 존재감이 분명한 인상이다.

스님의 코는 우뚝 솟아 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코와 턱선이 살아있는 것은 남성미의 특징적 요소이다. 이런 점은 스님을 잘 생긴 분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스님의 자세는 항상 낮은 곳에 위치하여 대중의 곁에 계셨다.

나는 이렇듯 스님에 대한 인상과 느낌을 정리한 뒤 밑그림을 그려 나갔다.

어느 정도 작품을 위한 이미지가 구체화 되어 가는 즈음 불광사 주지스님으로부터 모델을 할 스님을 구해 놓았다는 전갈이 왔다.

다시 불광사를 찾았다. 광덕 스님의 상좌스님이셨다. 그 스님은 광덕 스님과 체형이 유사함은 물론 입는 옷 크기까지 같은 분이셨다. 그러면서 맑고 선한 인상도 비슷하였다. 스님께 자초지종을 말씀 드리고 모델을 서 줄 것을 요청 드렸더니 단호히 거절 하셨다. "자신은 은사 스님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어떤 자세든 스님께 누가 된다"는 것이었다. 거절의 표정에 진심이 묻어 나왔다. 나는 되려 광덕 스님의 인성까지 닮은 제자스님의 모습에서 큰스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더 욕심이 생겼다. 나는 제자스님께 제작 과정에 대한 엄밀성을 말씀 드리며 장삼과 가사의 모양을 참고하는 선에서 겨우 허락을 얻었다. 모델을 세우면서 주지스님과 나는 그림 속 진영이 취할 자세에 대해 면밀히 토론하며 상의했다.

스님의 전체적인 이미지 구현은 설법을 듣기 위해 많은 이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지만 모든 이들의 마음을 자신의 품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 있는 모습을 담기로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가부좌를 하며 앉아 계신 모습으로 그리기로 했다. 스님의 시선은 사람을 다정하게 맞이하며 눈을 맞추는 순간의 자세를 담기로 했다. 다음으로 얼굴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보통의 경우와 달리 스님의 표정은 오른쪽 뺨이 보이며 좌측을 바라보는 모습이 더 스님 같게 보였다. 이런 형상은 콧날과 턱 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었다. 스님의 모습은 가장 낮은 자세까지 내려 와 사람을 귀히 여긴 인간적인 풍모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진영 작업을 진행하면서 월간 〈불광〉의 남동화 편집장은 주지스님의 뜻을 전하는가 하면 나의 요구에도 충실히 응해 주었다. 스님에 대한 사진 자료는 물론 평소 스님의 이미지를 구체화 하는데 의미 있는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관조 스님의 말씀도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스님의 진영 작업을 하면서 스님께서 발간한 책을 읽으며 정신세계를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이때 가까이 했던 책은 여러 권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죽창수필〉과 〈선관책진〉이다.

초본이 완성될 즈음 지정 주지스님께 보여 드렸다. 초본을 본 스님께서는 입술을 반듯하게 바로 잡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정성을 다해 잘 그려줄 것을 재차 부탁하셨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쪽지를 건네주었다.

'광덕 큰스님 영정, 가로 82cm 세로 110cm, 2003년 8월 30일 완성요, 3월10일 불광 지정'



스님의 자태는 순일하다. 특히 앉아 계실 때 모습을 보면 얼굴은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어께는 오른쪽이 내려가 있어 수줍은 듯 단아하다. 여기에 손과 발까지 가지런하여 자기 근신의 생활화가 읽혀진다.
'금하당 광덕 대선사 진영, 170X124cm, 종이에 수묵 채색, 2003년, 불광사 소장'



배추를 본다. 김장이 끝나고 남겨진 배추는 추운 겨울을 나면서 마르고 썩어 볼품없이 버린 물건이 되었다. 그러나 그 썩은 배추 속에도 생명의 가치는 빛을 발하고 있다. 살아있는 가르침이다.
'배추, 70X70cm, 종이에 수묵 담채, 2015, 작가소장'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구성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4GB불경SD카드+1200AM베터리+USB충전케이블+충전아답터+불경목록+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불자 세상보기

투명 행정·시민 협력이 메르스를 이긴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일전에 사스(SARS)라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 홍콩과 중국을 기점으로 세계를 위협하더니 이제 사촌격인 메르스(MERS)가 중동지역으로부터 국내에 유입되어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메르스와 관계없던 한국이 전 세계 2위의 발생국이 되었다. 해외학술지에 초확산(superspreading)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우리 일상생활도 변하고 있다. 여러 집회나 행사의 취소, 휴교마저 증가되고 있고, 해외 관광객 감소는 물론 주변국에서 한국 여행에 대한 경고까지 있다.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어찌 보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생각되던 메르스가 이처럼 국내에서 확산되고 이에 수반된 사회적 혼란은 결코 놀라운 모습은 아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시대 흐름 속에 인구 이동과 교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활발해지는 세계화는 특정 지역 질병이 쉽게 전 세계를 누비게 한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신종플루도 북미대륙으로부터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오는데 몇 달 걸리던 과거와 달리 일주일 정도에 도달했다.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단지 야생지역의 감소만이 아니라, 사람과 야생 간의 접촉 확대와 이에 따른 새로운 질병의 발생을 불러온다. 평균수명이 늘어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도 사회의 집단 면역 저하를 의미하기에 여러 질병의 창궐 위험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경고에 대한 검토나 대책은 국제기구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기에 메르스가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그리고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발표를 들었을 때, 지금과 같은 국내 상황을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인류는 유사한 사스라는 질병을 경험했고, 3년 전 등장한 메르스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유행 가능성을 이미 경고한 상태이기에 정부가 국제 기준에 따라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상황은 WHO 공식 조사단이 내한하여 역학 조사를 할 정도가 되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유를 보면 무엇보다 정부의 안이한 준비태세다. 메르스에 대한 WHO의 권고 사항을 무시했고, 전염병 확산 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만의 하나라는 작은 위험성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는 유비무환의 사전예방원칙(precutionary principle)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질병 발생과 유행은 달리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 속 전염병의 유행은 철저히 사회적 요인이 관여된다. 질병 발생은 원인 병원체 등의 생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면, 확산과 유행은 사람들의 개인 생활양식이나 습관과 더불어 해당 사회의 생활환경, 문화, 산업구조, 의료

메르스로 인한 사회불안 증폭은 무능하고 불투명한 행정서 기인

역병 창궐한 베살리에 직접 가서 護經의식으로 치유한 붓다 본받길

체제 등과 같은 총체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염병 유행이라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발생균이 어떻고 특징이 뭐고 등의 생물학적 정보보다는 유행 현장의 통합 정보가 담긴 역학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질병 확산에 기여했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무엇보다 정보 비공개는 질병의 확산과 더불어 시민 불안의 증폭과 확산을 가져옴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에도 메르스가 지닌 실제 위험성에 비해 사회적 불안이 더욱 증폭된 것에는 담당 부처의 무능 및 불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정부의 적폐가 크게 작동했다.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심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숫따니빠따 라따나경(보배경)〉에는 리차비족의 상업도시 베살리에 있었던 심한 가뭄으로 기근과 역병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 찼고, 그 악취가 많은 악귀들을 불러들여 사람들은 악귀의 공포에 떨었다는 내용이 있다. 붓다는 직접 방문하여 깨끗한 물을 뿌리며 보배경과 같은 피릿(pirit)의식의 경전들을 암송하여 이 지역의 사람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심시켰다. 피릿은 보호, 안전, 수호를 위한 주문으로서 '호주(護呪)' '호경(護經)'의 뜻이다. 중생의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이 시대의 피릿,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역병에 대한 성찰과 질병 현장에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담당부처와 시민의 상호 협력이 아닐까 한다. 이를 탐·진·치에 대한 성찰과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상호의존이라는 연기실상으로 풀어본다면 너무 불교적 표현일 수도 있겠다만.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한일국교 정상화 50년 불교계 과제

6월 22일은 1965년 한일국교가 정상화 된지 50년이 되는 해다. 정치권을 비롯해 각 계에서는 한일불교 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 불교계 출재가 인사들에게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정치권 적극적 행보, 불교계가 요구해야"



홍파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근대사의 한일 합병 후 30여년 동안 일제시대를 겪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많은 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다. 특히 경제와 문화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예로부터 한국은 일본에 불교를 전해줬고, 일본은 이를 수용해 자국의 전통문화를 일궈갔다.

최근 일본에서는 우경화 바람이 일고 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자국민의 정서만을 신경 쓰다보니 이웃나라와의 관계, 역사 등을 부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과거 일본에 대한 한국 기여를 배척하고 근현대 일본이 자행한 부분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 또한 이러한 우경화가 일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국내 인기를 규합하기 위해 양국관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양국 정치인들은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하며 이러한 물꼬를 불교계가 터야 한다.

과거사의 아픈 상처를 양국이 대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 교류의 폭을 적극적으로 넓혀야 한다. 가장 먼저 청소년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교계가 주축이 돼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일본 종립학교와 교류를 진행해 먼 미래 이들이 동아시아 교류의 주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더 이상 역사인식문제로 인한 양국간 갈등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상업주의, 혐한·반일주의를 자제해야 한다.

"일본 내 양심세력 조명하는 기회 늘었으면"



원영상 학회장
한일불교문화학회

몇 년 전의 일이다. 일본에서 학술교류가 있어 출장을 갈 기회가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지금 한국과 같이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였다. 당시 힘들게 일본에서 만난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와중에도 한일불교 교류가 계속돼야 합니다. 한일 간의 불교교류가 일본 우경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불교교류는 양국 역사의 호혜적인 관계의 핵심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사명대사의 포로 송환 등도 불교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관계 개선에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가장 먼저 양국의 우경화에 대응해 양국 양심세력들의 교류를 주도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일제시대 일본인들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제국주의 아래 고통받은 일본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혜택을 받는 이들은 기득권인 일부다. 수많은 한일의 민초들은 모두 고통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부 최근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일본 내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일본 지식인 281명이 아베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분명히 인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제 새로운 50년 역사의 물꼬를 트느냐 마느냐는 양국 정상의 양심과 결단에 달렸다.

社說

동국대 일심동행은 환골탈태 계기

동국대가 6월 11일 제 38대 황일면 이사장 스님과 제 18대 한보광 총장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그 어느때보다 이번 취임식이 남다르게 느껴진 것은 그동안 총장 선출 문제로 앓아온 내홍 때문일 것이다. 이제 그동안 상처입은 갈등을 봉합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두 CEO 스님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일면 스님은 취임사에서 합리적 방법에 의한 시스템 운영을 지향하고 모든 구성원이 권리와 의무 책임을 똑같이 균등히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고히 해서 학원내의 엄한 기강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광스님도 취임사를 통해 우리 동국대가 경쟁력 있는 배움의 장이자 가장 대학다운 대학의 모범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지난해 12월 총장후보로 등록하면서 구성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화합하며, 의견을 통합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도덕적인 총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런 각오를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동국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일심동행(一心同行)'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동국발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고, 오는 8월에는 'VISION2020' 선포식을 개최하려 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동국대의 교훈은 섭심(攝心), 도세(度世), 자애(慈愛), 신실(信實)이다. '마음을 닦자, 세상을 구원하자, 만물을 사랑하자, 신실하게 살자는 의미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이다.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할 삶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이사장과 총장 취임을 계기로 동국대의 환골탈태를 기대한다.

불교계 '인성교육진흥법' 관심가져야

인성교육을 국가 정책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시행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오는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소 포괄적인 법이기는 하지만 인성교육이라는 특성상 불교 등 종교계의 역할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3년마다 각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학·읽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올해부터 '협업 문제 해결능력'이 새로 추가된다고 한다. 즉 혼자 문제 풀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팀을 이뤄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성을 강조하는 흐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성 교육과 종교 교육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가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 종책 연찬회에서 주장했듯이 인간성 상실과 이로 말미암은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현대에 '종교적' 차원의 인성교육 도입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 전략을 보편성과 다양성,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교를 종교라는 틀에 가두지 말고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인성프그램은 일반 대중들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함의도 담겨있다.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의 제안대로 템플스테이와 연등축제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진흥센터'를 불교계에서 지정받아 운영하는 것도 빠르게 진행돼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법의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인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비판도 있지만 미래의 인재들이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교가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의 문제이다. 피폐한 현대사회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불교계 관심이 요구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사)세계불교법왕청 법왕 추대패 봉대

Buddhists Of The World King



승려 60만명의 나라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Dr 우꾸마라 종정 큰스님

世界佛教徒 法王의 자리에 추대

Dr. Bhaddanta Kumarabhivamsa Bhamo Sayadaw
Agga Maha Saddhammajotika
Agga Maha Pandita
Chairman of the State Sangha Maha
Nayaka Committee



(사)세계불교법왕청 법왕에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Dr 우꾸마라 종정스님 추대

(사)세계불교법왕청 대승정 목탁스님과 각료 일행, 국제붓다봉사단 30여명은 6월 2일 미얀마 연방승가회를 방문하여 연방승가회 회장 Dr 우꾸마라 종정 스님을 예방하고 세계불교법왕 추대증서를 봉정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사)세계불교법왕청의 법왕 추대는 세계불교도의 하나 됨을 위한 공식적인 출발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성대한 의식으로 진행됐다. Dr 우꾸마라 종정 스님의 법왕추대는 법왕청 내의 엄정 심사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승려 60만의 최대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연방승가회 종정스님을 선정하고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결정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세계불교도를 하나로 모아내자는 3년여의 결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회장 목탁)는 2009년 온 지구촌 불교도를 하나로 모아내자는 원력의 기치 아래 창립되어 불교도의 오랜 숙원인 법왕청 건립을 위해 준비하여 왔으며, 2013년 (사)세계불교법왕청을 정식 등록하여 국내는 물론 각국 불교도의 규합을 위해 매진하여 왔으며 그 노력의 결실로 2015년 6월 2일 세계불교법왕청 임시각료와 미얀마 연방승가회가 동참한 가운데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Dr 우꾸마라 종정 큰스님을 世界佛教徒의 法王의 자리에 추대하고 추대증서를 봉정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및 부회장단과 47명의 원로, 31명의 승가지도자가 참석하였으며 추대증서 봉대의식, 법왕기 증정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함께 동참한 국제붓다봉사단은 추대의식이 신중 가호속에 이뤄지기를 염원하며 부처님의 감로수로 모든 중생들의 업장을 씻어주는 의식도 봉행했다. 장엄한 추대의식 봉행을 마치고 Dr 우꾸마라 세계불교법왕은 마련된 법왕 직무실에서 임시각료 의장인 목탁스님에게 부처님 치아사리를 내려주시고 동참한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임원들과 일일이 기념촬영을 하시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세계불교법왕청 향후 일정

(사)세계불교법왕청은 세계불교법왕이 추대됨에 따라 향후 각국의 승가 대표인 승왕 및 종정스님(상임수석 법왕청 장로)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왕 및 장로 선서식과 법왕이 직접 임명하는 각 부 장관 정식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일정 논의에 들어갔다.

법왕 취임의식 진행 상황

(사)세계불교법왕청은 태국, 라오스 승왕은 열반하신 이후 후계자 선정이 미루어져 있는 상태로 향후 해당 불교국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며 스리랑카는 승가대표이신 종정스님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먼 거리 이동이 불편함을 고려하여 여러 경로의 취임행사를 준비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어 법왕추대를 여법하게 봉행함에 따라 불교를 위해 헌신 희생하고자 하는 지도자들로 재구성하여 중앙정부 각 조직 및 각부 장관들을 재정비 할 것이며 이론과 말로만 논하고 불만과 불평만을 논하며 입으로만 살아가는 스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행할 생각도 없고, 책임과 의무를 모르는 자칭 지도자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붓다봉사단 일행
미얀마 현지 자비나눔 봉사활동 실천

세계불교법왕 추대 행사를 마친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소속 구달스님과 국제붓다봉사단(회장 정영숙)은 자비나눔의 실천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양곤 인근 흘라잉따야 지역의 빈민촌을 찾아 모금된 성금으로 추진한 생명수 우물파주기 행사에 참가해 우물공사 완공을 함께했다.







사단 법인 : 세 계 불 교 법 왕 청
종교 법인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법왕청.com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大韓佛教 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국제붓다봉사단.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 팩스 02-733-5615 | H.P : 011-229-6061

아픈이들 고통 치유의 교량역활…

수상 스님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장 · 반야사 주지)



수상 스님은 … 1984년 용담 성광사로 출가해 1985년 보림사 금강계단서 유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 한 이후, 1990년 조계종 봉선사 금강계단서 무진장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1993년 범어사 금강계단서 일타 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2004년 봉원사 금강계단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 4월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를 창립하고, 9월에는 제주도 병원내 최초로 제주의료원에 불교법당을 개원했다. 이어 2009년 6월에는 제주대학병원에도 불교 법당을 개원했다. 스님은 불교 장례의 정착화를 위해 임종환자를 위한 시다림기도와 입관 기도를 한글화된 불교의식으로 진행중이며, 불교장례문화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지난 2011년 4월 제39회 보건의 날을 맞아 제주도지사 표창패를 수여했고, 국제라이온스협회 제주지구와 제주 MBC가 주관한 제6회 제주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병환의 고통으로 생과 사의 막다른 길목에 있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길목이 바로 병원이다. 그래서 늘 멀리하고만 싶고, 솔직히 말해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심신이 나약해진 환자들에게 힘이 돼주고자 병원을 찾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 회원들이다. 그 중심에는 회장인 수상 스님(제주 반야사 주지)이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주대 병원에서 환자들의 쾌유를 발원하는 자비의 연꽃등을 나눠주었다. "부처님께서는 아픈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공덕이 가장 수승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연꽃에 새겨 병마로 고통받는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에게 연꽃등을 건네는 것조차 머뭇거리던 바라밀호스피스회원들이 이제는 환자를 가족같이 스스럼없이 대할 정도로 거리가 자연스러워 졌습니다."

수상 스님이 특히 빠짐없이 들리는 곳은 바로 암병동이다. 기자가 함께 동행한 6월 2일도 40대의 젊은 환자가 생사의 고비에서 힘들어 하고 있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환자의 업장소멸 기도를 했다. 환자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일심으로 기도 했다. 환자도 두 눈을 꼭 감고 함께 발원했다. 기도의 원력이 나타난 것일까. 환자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그려진다. 이제는 모든 업을 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부인과 어린 아이들은 그 미소를 보며 한없이 오열하며 눈물을 흘렸다.

수상 스님은 "꿈같은 우리의 삶,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할 길이기에 먼저 가시는 길, 부처님 품안에서 편안하시고 업의 그림자에 유혹되지 마시고 자비광명의 빛을 의지해 정토에서 왕생하길 바랍니다"며 축원을 올렸다. 회원들도 스님의 뒤에서 함께 간절한 업장소멸의 기도를 올렸다.

수상 스님은 "누구나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지요.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생로병사를 보며 출가를 결심하셨듯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평상시 건강한 몸으로 살 때는 이 건강의 소중함과 생로병사에 대해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기에 살아가는 동안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즉 어떻게 삶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잘 회향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라고 웰다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호스피스 활동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제주에 수상 스님이 원력을 펼치기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지만 호스피스라는 단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민들에겐 낯선 단어였다. 그렇다면 수상 스님이 호스피스를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자신도 아파봐야 남의 아픈 심정을 안다고 저 역시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19세 때 간 절제수술을 받고 병마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보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스님은 요양차 들어간 산사에서 부처님의 법(法)이 너무 좋아 이듬해 출가를 했다. 병과 출가, 어찌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인데 수상 스님의 인생에 큰 획을 긋는 운명적 만남이 됐다.

그리고 수상 스님은 결심했다. 아픈이들을 위해 법음을 전하며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삼겠다고 말이다. 이후 30여년 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수상 스님은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마다 않고 간병과 임종기도를 묵묵히 해왔다. 수상 스님과 호스피스와의 첫 인연은 이랬다. 스님이 서울 충정사에 있을 때 신도중 암환자가 있어 병문안 차 우연히 병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타종교 성직자와 신자들이 환자에게 쏟는 정성과 간절히 기도해 주는 모습을 목격하고 불교 수행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

"그 때 육체의 병은 의사에게 맡기더라도 환자가 겪는 마음의 괴로움 만큼은 종교인들이 어루만지고 위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 확신했지요. 이후 호스피스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또

사회복지 · 호스피스에 원력 세워

2005년 제주 바라밀호스피스회 창립
매주 목요일마다 회원들과 환자찾아 기도
카페 '바라밀 실천도량' 개설 온라인 활동

바라밀법당 불사에 힘쓰다

바라밀 실천도량 '반야원' 2007년 개원
제주의료원에 병원법당 최초 개원
제주 도지사 표창 및 봉사상 등 다수 수상

한 선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살면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후천적 장애도 주변에 많음을 알게 되면서 장애인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저에게 호스피스는 수행입니다. 생노병사를 몸소 부딪히며 깨닫는 과정입니다. 우리 불교도 이제 더 이상 혼자만 알고 닦는 불교가 아니라 저 깊숙한 곳에서 무한대의 자비심을 끄집어내 밖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를 정성으로 간병하는 동안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수상 스님은 불교호스피스를 단순한 봉사가 아닌 수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불자들은 흔히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 말하지만 그 무량한 자비심을 끊임없이 일구어 쓰는 데는 서툰 것이 또한 불자들이라고 스님은 아쉬워했다.

불교가 아직도 다른 종교에 비해 호스피스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스님의 지적은 진지한 참회와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불교 포교라는 1차원적인 문제에 앞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깨달음의 수행이고,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실천의 방편이라고 호스피스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런 강한 원력때문인지 스님은 중앙승가대서 불교학을 공부한 뒤 다시 한성대 대학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과의 인연으로 2003년 고향인 제주에 내려온 스님은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복지관 내 춘강정사를 개원했다. 제주에서 장애인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 손길이 가장 필요한 병원과 복지관 등에서 간병 및 임종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부처님 법으로 보듬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펼친 수상 스님은 제주도내 불교호스피스 모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10년 전 도내 불자들과 뜻을 모아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 를 출범하게 된다.

지난 2005년 4월 불교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모임인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 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3층서 창립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그 결과 그해 10월 노인전문병원인 제주의료원에 병원 법당을 도내 최초로 개원하는 결실을 맺는다.

수상 스님은 "제주의료원에 천주교와 개신교 예배공간은 있었지만 불교실은 종교실 내 한 구석에 방치돼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를 병원측에 건의해 여법한 법당으로 고쳐서 개원하게 됐습니다. 비록 7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그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여법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법당은 불교호스피스의 메카로 제주불교 사회복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수상 스님과 바라밀호스피스 회원들은 매달 교계 복지시설인 제주양로원과 제주요양원, 제주태고원 등의 복지시설과 제주의료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등 도내 의료기관서 간병기도와 임종기도, 환자 말벗 봉사 등의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다음카페 바라밀실천도량(http://cafe.daum.net/susangbaramil)을 개설해 온라인상에서도 호스피스 정보를 교환하고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있다.

이외에도 수상 스님은 좀 더 체계적인 호스피스 활동 전개를 위한 원을 또하나 세운다. 바로 부처님 품안에서 보다 편안하게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바로 '불교 호스피스 쉼터' 이다. 이미 천주교와 개신교의 경우 호스피스 전문 병원과 호스피스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원력을 모아 지난 2007년 7월 호스피스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한 제주지역 불교호스피스 구심점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바라밀실천도량 반야원' 을 제주시 아라동에 개원한다. 반야원 법당 불사는 병실과 노인복지시설을 찾아가 환자의 심적 안정을 심어주는 기도 봉사 형태의 기존 호스피스 활동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호스피스를 펼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후 반야원은 애월읍 신엄리 '반야사' 로 이전했으며, 2010년 8월부터는 불교호스피스쉼터인 '상락원' 을 준공해 그 원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에 또 하나의 경사 생겼다. 제주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지리산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60팩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

“호스피스 활동이 곧 수행”


수상 스님은 매주 목요일 마다 환자를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준다.



2005년 4월 바라밀 호스피스회 창립법회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수상 스님.



수상 스님이 2012년 11월 김녕중학교에서 템플라이프 강의를 하고있다.



수상 스님은 2013년 5월 웰다잉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도 최대 규모 병원인 제주대학병원이 아라동으로 확장 이전을 하면서 병원 지하에 불교법당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병동에서는 몸의 병을, 법당서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됐다. 불자 환자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제주대학병원 법당이 호스피스 활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해 나갔다. 특히 제주바라밀호스피스 회원들은 제주대학병원 내 제주지역암센터서 실시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했고, 절반 이상은 심화과정까지 수료할 정도로 이제는 전문성도 갖췄다. 회원들 중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10여명이 넘었고, 미술원예치료 전문가, 국악인 등이 포진해 있어, 다양한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펼치는 원동력이 돼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6월에는 제주도로부터 의료분야 전문봉사단 인증까지 받았다. 각 개개인의 원력으로 시작한 호스피스 활동이 이제는 명실공히 공인 기관들의 검증까지 받게 된 것이다.

아직도 호스피스에 부족함이 많다는 수상 스님은 “호스피스는 봉사가 아닌 부처님을 닮아 가는 길이자 깨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제주지역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펼친 지 10여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같은 고통의 과정들이 오히려 큰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교 호스피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게 시급히 해결 할 과제이지요. 기도 역시 자신이 체험했을 때 참된 가피를 알게 되듯 호스피스 활동도 동참을 통해 스스로 체화될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호스피스는 수상 스님’이라는 인식이 도내 불자는 물론 도민들에게까지 각인됐다. 그동안 피와 땀은 공적으로 이어졌다. 수상 스님은 지난 2011년 4월 제39회 보건의 날을 맞아 제주도지사 표창패를 수상하는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 제주지구와 제주MBC가 주관한 제6회 제주사회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안았다. 수상 스님은 “개인의 영광 보다는 불모지고 도외시됐던 불교호스피스 활동이 불교계 뿐 아니라 도내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상 스님은 또한 지난 제주사회봉사상 수상금 300만원과 더불어 지난 2014년 1월 태고종 제주교구 신도회가 주관한 제 5회 불자봉사대상서 단체부문 수상 금액 100만원 전액까지 총 4백만원을 어려운 환자들에게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대부분 병원비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을 안 스님이 상금 이외에도 개인 돈까지 보시한 것이다. 수상 스님은 “자비 정신으로 생과 사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이 밖에도 스님은 매년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

수상 스님의 봉사행은 호스피스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입식 교육에 찌든 청소년들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김녕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나선데 이어, 반야사서 매년 2회에 걸쳐 ‘청소년들의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 템플라이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상처받은 청소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고 있다. 여기에 수상 스님은 호스피스서 한발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이들이 죽는 그날까지 열정적인 후회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길을 제시한다. 바로 웰다잉 교육이다. 수상 스님은 지난 2013년 5월 제주 교계 최초로 웰다잉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총 15회 강좌를 통해 배출된 웰다잉 지도자만 20명. 강좌를 수료한 이들은 사찰이나 불교계 시설에 전문 인력으로 파견돼 웰다잉에 대한 인식 확산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폐암 투병 중인 한 교육생은 교육을 이수하며 유언장을 쓰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후회없는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기도 했다. 이어 수상 스님은 반야사서 이듬해 7월 두 번째 웰다잉 강좌를 마련했고, 올해는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지원사업자로 선정돼 제주불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원력을 펼치고 있다.

이제 수상 스님이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를 창립한지 올해로 10년째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주바라밀호스피스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제 2전시실에서 지난 10년의 흔적을 사진으로 구성해 도내 사부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아직도 이뤄나가야 할 게 많다는 수상 스님은 마지막으로 재가불자들에게 그 권리를 찾을 것을 당부한다.

“불자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그 권리로 재적사찰 주지스님에게 간병과 임종기도가 필요할 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를 통해 병원 포교에 대한 스님들의 시야가 넓어지면 간병과 임종기도 등 호스피스 활동도 불교계에 점차 확산 될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 · 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전법일기

문화포교는 7전 8기 정신으로

지난 6월 2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인쇄문화의 꽃-고판화특별전’이 열린 것이다. 이 특별전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의 유물 100여 점을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일반시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한 기회였다. 문화부가 K-pop과 같이 박물관 문화를 한류문화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K-Museums사업의 일환으로 K-Museums사업은 전국의 공 · 사립박물관 중 매년 1곳을 선정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를 열고 동시에 낙후된 전시실 리모델링도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며 많은 감회가 북받쳐 올랐다. 최근에는 문화사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고판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격려와 후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다. 천년고찰로 사찰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때 ‘더욱 고칠 점은 고치고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고판화를 이용한 콘텐츠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갔으며 기존의 체험프로그램도 더욱 열심히 진행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판화를 주제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이면에는 법당에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는 기본적인 포교 바탕 위에 불교와는 관계없을 것 같은 다양한 분야를 통해 전법활동도 전문적인 영역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이윽고 2011년에 들어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선정됐다는 희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국내에서 문화포교를 전개하기에



그림 · 박구원

이날 고판화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한 명주사 노보살들은 스님이 목판을 수집해 절로 가져왔을 때 ‘왜, 목판을 모으냐’며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조각도를 들고 목판화를 새기는 것을 일종의 사경수행처럼 하고 있다. 목판화 판각이 정신집중력에 좋다며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판각을 권하고 있다. 외부에서 보면 전시전이 쉽게 성사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국립민속박물환 기획전도 4번의 도전 끝에 이뤄졌다. 대부분의 불교계가 이러한 공모사업에 있어 정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두번의 시도로 좌절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점은 공모 탈락에도 주저앉지 않고, 문제를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단 것이다.

명주사가 고판화를 주제로 템플스테이 사찰에 선정됐을 때의 일화다. 당시 명주사는 고판화박물관과 연계해 뮤지엄스테이와 판화학교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템플스테이 사찰 선정에서는 연거푸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명주사가 고찰이 아닌 신생사찰인 점이 문제라고 생각됐다. ‘선정에서 안타깝게 빠졌다’는 말만 듣기를 세 번째, ‘포기할까’는 생각도 들었다. 천년고찰로 사찰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때 ‘더욱 고칠 점은 고치고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고판화를 이용한 콘텐츠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갔으며 기존의 체험프로그램도 더욱 열심히 진행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판화를 주제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이면에는 법당에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을 하는 기본적인 포교 바탕 위에 불교와는 관계없을 것 같은 다양한 분야를 통해 전법활동도 전문적인 영역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이윽고 2011년에 들어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선정됐다는 희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국내에서 문화포교를 전개하기에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불교계의 많은 문화시설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문제에 처해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들과 불자들의 상황에서 문화적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문화계 전반에서 불교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처음 고판화박물관의 시도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때 꾸준한 활동으로 지금의 위치에 왔듯이 불교계도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7월 3일부터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일본 고판화의 세계 특별전’ 초청전시를 비롯해 9월 민속박물관 지원 특별전, 10월 동경에서 열리는 ‘고판화박물관 명품전’ 등 5개의 전시전을 준비 중에 있다. 이제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아시아 유물소장박물관인 기메미술관 초청전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7전 8기의 각오로 도전 해야한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 관장(명주사 주지)

불자님들의 오늘 운세 는?

백팔번뇌 운수카드 + 복주머니
1SET 3만원

TIP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갑골문자(甲骨文字)는 신석기 시대 점괘(占卦)를 기록한 점서로 한자의 모체가 되어 변(邊)과 획(劃)에 신통력이 있다. 바로 격암유록이나 정감록비결은 파자(破字)의 신통력으로 국운을 예지(叡智)한 예언서이다. 나라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인생항로에는 길흉화복이 있으니 천부(天賦)의 계시로 신통력이 있는 백팔번뇌 파자비결(破字秘訣)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구름처럼 사라진다.

■ 계좌번호 : 우체국 011965-02-112777 (예금주 : 한영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 1길 16 정원아트하우스 2층 201호 / 전화 010-7742-3111 松岩 한영필 합장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대행 스님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자체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화두!

나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요?

질문 우리 인간에게는 뚜렷하게 나라는 형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체를 현미경으로 분석을 한다면 수많은 세포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기에 결코 나라는 하나만의 형체라는 건 절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수많은 세포를 분석해 들어가면 그 속에는 원자와 전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원자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유위의 세계에서는 나 개인이 분명히 있지만 무위의 세계에 들어가면 지금 나라는 형체조차도 없는데, 그 나라는 형체를 만드는 질서정연하고 수많은 세포와 원자와 전자로 구성된 나의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요?

답변 지금 나라는 존재도 분석을 해 보면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아주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여러 개가 돼서.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게 종합된 하나, 그것을 우리가 무전자라고 일컬어 말할까요? 그것도 아마 내가 이름을 지어 놨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유전자들이 너무 한데 합쳐져서 있는 게 무전자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생명들이 한데 합쳐져서 요만한 능력,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콩씨라면 요걸 또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해서 어떤 거를 유전자라고 할 수 없으리만큼 됐을 때에 바로 세울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이것이 부처라고 한다. 이럴 때 그걸 어떻게 말을, 이름을 붙이나.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자유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무전자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무전자로 인해서 유전자가 나고 유전자로 인해서 물질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무전자의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하자. 부동한 그 자체가….

그럼 무전자만 있느냐. 유전자 무전자 육신, 이것이 종합해서 지금 원형을 이루고 돌아가니까, 공했으니까, 나도 사대도 공했고 오온도 공했다. 그러니 사대와 오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대도 오온에 같이 지금 들어서 공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한테서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 개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에서 나온다 말입니다, 합쳐진 공에서. 그러니까 합쳐진 공에다 다시 놓는 거죠. 믿고 놓는 겁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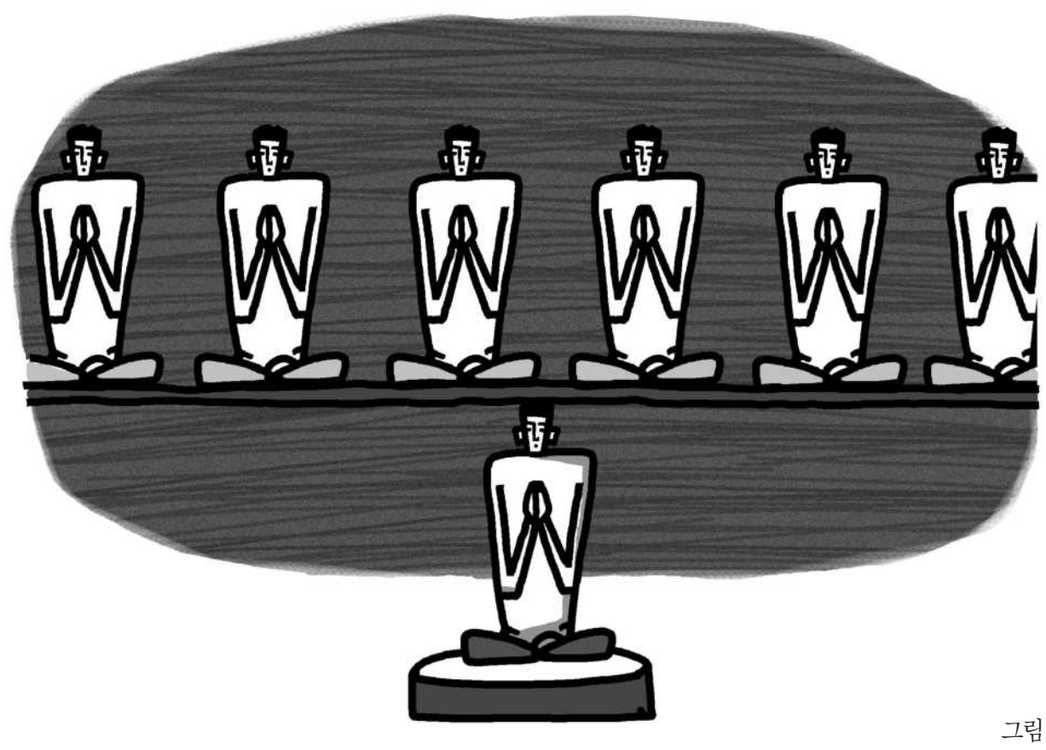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럴 때 보이지 않는 그 무의 세계의, 미지수의 헤아릴 수가 없는 그 문제가 바로 이 유의 세계의 헤아릴 수 없는 모체에 모든 것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되고….

어떠한 유(有)의 법의 물건, 이 물질이 하나도 없다면 무(無)의 그 무체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콩나무가 나듯, 그 모든 씨가 있기 때문에 모두 나는 거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이 자체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화두요, 그것이 바로 근본의 모체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니라면 부처가 어디 있으며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상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부인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있기 때문에 인연법이다 유전이다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게 공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없다 이 소립니다. 내가 내세울 게 없는데 내가 하는 일까지도 내세울 게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먹은 것도 내세울 게 없고 하는 것도 내세울 게 없고 내가 나온 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한 방에 앉았는데 나만 사람입니까. 그러니 나만 사람이라고 내세울 게 없죠? 그러니 모든 것에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나와 더불어 배우기 위해서 주인이라고 했고, 그것은 차도 바퀴가 굴러가는데 심봉이 꿰어져야 바퀴가 올바로 굴러가듯이 인간에게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 이렇게 해 놓고 '공!' 주인이자 공이다. 바로 너다. 그래서 그냥 "공이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법 만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질문 지금의 시대를 말법 시대다 혼돈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이런 시대에 태어난 저희 중생들은 정말 정법 만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이 정법을 만났고 또 배우고 수행하여 참자유인이 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법을 모르고 사법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분들에게 이 법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이 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가서 날짜를 물어보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탈이 생긴다.' 이렇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살아요. 그 한 예만 봐도 살아나가는 게 모두 그렇게 관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나가는 게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권리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그 권리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전되어 와서 그냥 머리에 배었죠. 지금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틀리지 않고 배우는 사람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부처님 법 그대로라는 걸 백지 한 장 사이인데도 모르고 있지만 그것만 알아채면 이 세상을 그대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아주 그렇게 간단하죠.

그런데 생각들에 젖어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 줘도 "아이고, 그렇게 다 놓으라니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허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이 걸어올 때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건 짊어지고 다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림하는 게 그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붙들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대로 그냥 순응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그렇게 온통 붙들고 만날 걸리는 거죠. 그게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고 나오지 못해서 자유스럽지 못한 것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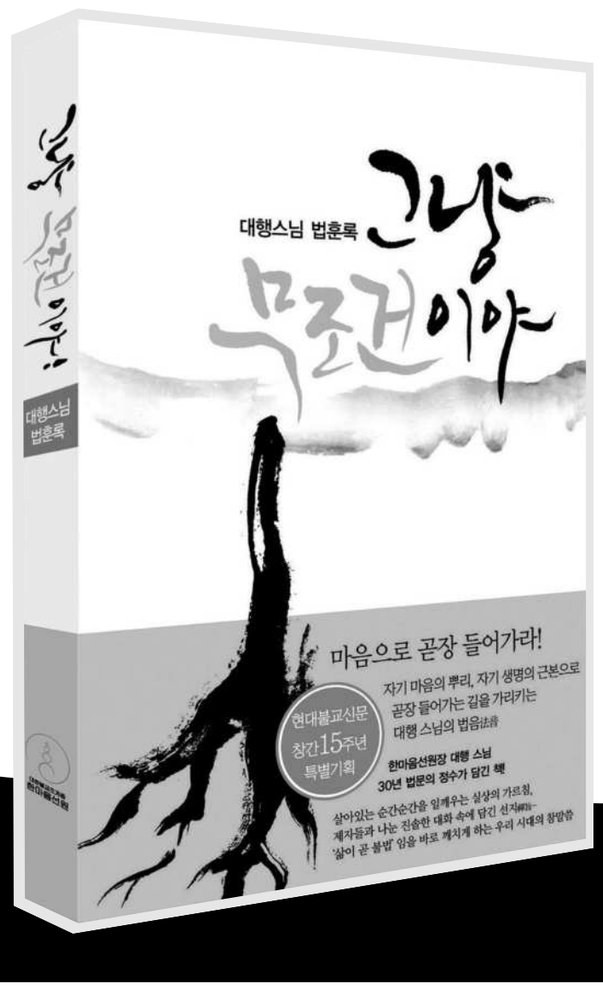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러니까 그거를 일러 주세요. 배우는 사람에게도 '이게 뭣고?' 하지 말고 '네가 너를 끌고 다니니까 그대로 거기다 맡기고 그대로 지켜봐라. 못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 굴리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고, 잘됐으면 감사하게 놓고 거기에다 맡겨라. 주인의 그 구멍은 한 구멍밖엔 없다.' 하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면서 당신을 끌고 다니는 자체를 주인 삼아서 꼭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깨치게 되어 고삐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듯이 자기 주인이라는 이름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서로 100% 작용할 줄 알아야 에너지를 바로 자기 자신들이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 몸을 받아야 성불한다는데

질문 여인의 몸으로는 성불하지 못하기에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어 '변성남자(變成男子)'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을 주위의 도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큰스님 법문을 듣기로는 '불성은 둘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남녀가 없다.' 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느 말씀이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그냥 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진리는 찰나찰나 나투기 때문에 시공도 남녀도 동서도 없다!

☞ 29면에서 계속

옳은지요?

답변 이게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참, 이게 간단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자는 죽어서 남자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람은 세 번 죽었다 깨어나야 사람으로서 부처 될 수 있는 것이 아주 100%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금방 짐승이 화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그것은 아니 된다. 또 '여자는 성불을 못한다. 일곱 번 죽었다 깨어나야 성불을 한다. 남자는 세 번 죽었다 깨어나야 성불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던가. 짐승으로 있다가 사람으로 곧 태어난 사람은 짐승으로 살던 습이 남아서 사람으로 태어나도 껍데기만 사람이지 그건 짐승이야. 짐승의 습이 자꾸 튀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습을 지금 배우는 거지, 미래에 갈 거를 배우는 거지 전자의 습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불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기 전에 여자부터 제일 먼저 태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자가 태어난 뒤에 남자가 태어났지.' 이렇게 됩니다, 인제. 여자가 한번 죽어서 또 남자로 태어날 수는 있을지언정 어찌 그렇게 되느냐는 얘깁니다.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이 죽어 가지고 또다시 짐승으로 좌천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전에 살던 습이 그대로 남아서 습대로 행을 하니까 그대로, '너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행을 못하니 다시 좌천해서 가거라.' 이러고선…, 그거는 누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거기 떨어진 겁니다. 또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올라오는 거지요. 올라가고 내려감도 없고 이 자리지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을 하려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언어도 붙지 않는 그런 자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그만큼 그렇게 구르면서, 억겁 년을 거쳐 오면서 그렇게 구르면서 공부한 사람들이 남자로 태어나서 또 공부를 해서 그 도리를 완전히 파악한 뒤에 또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여자가 여자가 아니에요. 깨달으면 여자가 아니다. 남자도 아니다. 여자라고 해도 아니 되고 남자라고 해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고 못을 박을 수도 없고 남자라고 못을 박을 수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모습은 여자로 가질지언정, 모습은 남자로 가질지언정 찰나찰나 나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화해서 나툰다는 얘깁니다. 남자도 됐다 여자도 됐다가, 부처도 됐다가 법신도 됐다 화신도 됐다가, 관세음도 됐다가 지장도 됐다가 신장도 됐다가 아, 짐승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또는 용신도 됐다가 지신도 됐다가 온통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이름들로 다 나투어서 이렇게 화하니까 손도 천이요, 눈도 천이요, 천은 천이 아니라 전체 삼천대천세계 아니 닿는 데가 없어야 천이라고 합니다. 천도 일이요, 일도 천이다. 만도 천이요, 천도 만이고 만도 일이고 일도 만이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 사람이 지어서 시간이 몇 시, 몇 년, 몇 달, 며칠 이러는 거지 이 진리는 시간과 공간도 없고 여자와 남자도 없고 동과 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찰나찰나 나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서 입산을 해 가지고, 입산을 했든 안 했든 여자이기 때문에 성불을 못한다는 거는, '못한다'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여자라고 해서 성불 못하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이치는 그러하나 내가 만약에 못 박아서 여자는 성불 못한다 이런다면, 모습만 보고 그런 말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남자로 몇 수십 번을 태어났다가 여자로, 보살로 부처로 태어났다면 어떡할 작정인고. 여자 없이 남자가 어디서 나왔나. 모두가 여자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 즉 말하자면 이 땅덩어리가 다 여자인 거라. 일체 만물을 소생시키고 일체 만물을 길러요, 땅이. 땅은 일체 만물을 길렀으나 기른 그 모습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다 점령을 했으니 뿌리를 박은 그 땅은 다 점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존께서 이 세상을 다 항복을 받고 점령을 했으나 그 석존은 누가 낳았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랬으니 '여자도 남자도'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상당히 어리석다고 봅니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해도 그르고 '한다' 해도 그른 겁니다. 거기에는 미묘한 그 뜻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갓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성불은 못한다. 그러나 몇 번 굴러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럭하면서 공부해 내려온 그 사람은, 지금에 와서 금은 금대로 모이고 넝마는 넝마대로 모이듯이, 무쇠는 무쇠대로 모이듯이 이러한 근기가 좀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대로 모이게끔 돼 있죠. 왜? 신상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못한다.' 이래도 그른 거고, '남자만 한다.' 이래도 그른 겁니다. 그러니 그저 '그르다 못한다 한다' 이런 게 다 없는, 그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의 자비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자비를 깨달아야만이 부처라고 일컬어 말하고 자유인이라고 일컬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아예 마시고 거기에 끄달리지도 마시고 '못한다 한다'에 끄달리지 마시고,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가 몰락 맡겨 놓으면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저 놓으면 그게 굴려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홀연히 자기 스스로 그 생명수의 참맛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개구리탕이라도 탕 맛을 보면 또 맛이 나는 거죠. 또 용탕을 맛을 보면 또 더 맛이 나죠. 이렇듯이 종합탕을 먹으면 맛이 또 참, 희한하고 그래서 '아이고, 어떤 걸 넣어야 이게 종합탕인가. 이것이 어떤 것인고.' 어떤 것이다 할 수가 없으니까 '탕' 한 것이, 우리가 '할' 할 때 둥근 이 자리에 벌써 이 둥그러미를 긋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을 것도 없고 안 그을 것도 없는 거죠. 그대로 여여함을 뜻하는 겁니다.

> 내 마음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남의 마음을 살펴 주는
>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생명들을 둘 아니게 조복받아 공심이면

질문 친구의 권유로 선원에 등록한 지는 3년 가까이 되었으나 인연이 안 되어 외면하고 있다가 4개월 전부터 우연한 기회에 이 공부의 길로 들어서서 지금은 큰스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주인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선법합창단에도 들었고요. 다름이 아니고 '삼세가 둘 아닌 노래'에서 "생명들을 둘 아니게 조복받아 공심이면 자유권을 자재한다."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 몸속에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조그마하니까 하등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게 만약에 이렇게 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를 꺼내 놓았는데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거쳐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거친 인연들이에요. 우리가 한때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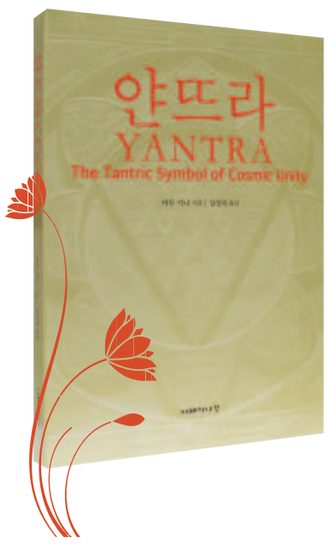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자꾸 지혜가 생기고 회개를 하게 되고 또 건너뛰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 아래 축생들은 그냥 먹고 살기 급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만 알지 한 번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사람은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부처 될 가능성이 99%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똑같이 부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많으냐. 똑같이 부처라 하더라도, 뿌리는 같으나 모습이 다르고, 하는 차원이 모두 다르고, 살아 나온 기술이 다르고, 모든 게 자기의 습대로 하고들 산단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모습도 삶도 또 권세도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가지고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벗어난다는 말조차 없이 그대로 내 몸에서 이 모든 생명들을 둘 아니게 조복을 받는다면, 내가 마음대로 마음을 내는 대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라도 이 보살이 응신(應身)으로 화(化)해서 모든 걸 이익하게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성을 하면 이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생명들이 자기가 스스로 벌써, 모두 부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래의 마음은 공심(共心)이다. 여래의 몸은, 즉 말하자면 공체(共體)다. 공체기 때문에 크죠. 여러분이 볼 때는 사람 하나지만 공체이기 때문에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용(共用)을 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에서도 공용이요, 바깥에서도 공용입니다. 이런 얘기 곧잘 하죠. 우리가 물을 한 그릇 먹었다고 하면, 이것을 내가 먹은 겁니까? 이건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여기서 목마르다고 달라고 그래서 준 거예요. 줬는데, 준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나누어 먹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식들이 이렇게 나누어 먹게 된 동기를 알게 되면 동시에 그냥 한마음이 돼 주죠. 지나가다 보면 하다못해 소나무도 말을 하고 돌도 말을 하는데, 이 속에 의식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남이 볼 때는 나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먹은 사이가 없다. 이 물은 내가 먹은 사이가 없이 더불어 같이 공식(共食)을 했다 이런 뜻이 나오죠. 공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먹는 것만 공식이 아니라 이 모든 거,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공식입니다, 그게. 같이 움죽거리죠, 이 몸도. 지금 자기가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움죽거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건 모든 부서에서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움죽거리는 겁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만 움죽거려 주지 않아도 그냥 폐인이 돼 버리고 말죠. 모두가 그렇게 움죽거려 주는 걸, 본래 그렇게 움죽거려 주고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얍삽해서 이거를 죄다 가르는 거죠. 자기 자불이 그렇게 있고 자불로 하여금 마음이 의식하고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해 주질 않으니까 같이 조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인연 받은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나 팔자나 이런 거를 면할 수가 없다 이러는데, 이 공부는 팔자 운명도 없고 고(苦)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고라는 건 집착만 없으면 모든 게 없어요. 집착! 집착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을 먹었으니까, 내가 물을 줬으니까 저 물 대신 뭐가 오겠지.' 하는 이런 집착, 또 '내가 해 줬으니까 좋게 되겠지.' 하는 집착, '부처님한테 뭐를 놓았으니까 뭐가 오겠지.' 하는 이런 집착, 이런 집착들이 모두 자기를 멸(滅)하게 못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물을 한 그릇 떠다가 부처님한테 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부처님한테 놓았다 하면 뭐, 몇 억을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한 사이 없이 했다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죠, 그냥. 그러니 돈보다도 수없는 이 허공을 다 준대도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준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왜 집착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알갱이나 산다고 집착을 합니까. 그리고 미워하고, '너로 인해서 망했다.' 이러고. 간혹 '너로 인해서 흥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그것도 집착입니다. 모두가 집착이에요. 그래서 고 · 집 · 멸 · 도, 아닙니까? 고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고라는 것은 집착이 없다면 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멸하면 도다, 이거예요. 간편하죠, 아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여기 걸어서 들어올 때 내 발자국을 짊어지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는데 왜 없어진 그 발자국에 집착하느냐. 없어진 발자국에 집착을 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 살면서 그냥 '요거는 요게 잘못됐는데….' '이런 게 잘못됐다.' '이건 정말 날 무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영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질 않는 그것이 집착이에요. 무상하게 살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이것도 한 발자국 떼어 놓는 거와 같구나. 이것도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저 이해해 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남의 마음을 살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얀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 얀뜨라
얀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얀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얀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으로 얀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얀뜨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뜨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얀뜨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얀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중 20,000원,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

마음의 정원
{ 랄랄라 진관사 }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빵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밥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붓다〉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는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 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절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